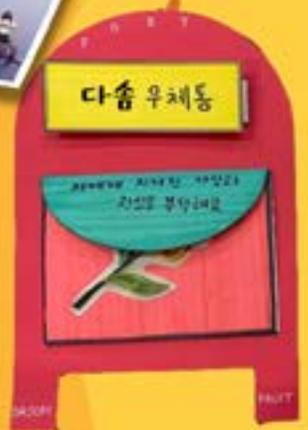


# Dasom 2022/2023 Sarang

다솜사랑  
통권 제37호



다솜 한국학교

[www.dasomks.org](http://www.dasomks.org)

# 다솜사랑

Dasom Sarang  
2022-2023 다솜한국학교 교지  
(통권 제37호)

다솜한국학교 Yearbook  
발행인/편집인: 최미영  
편집위원: 최미영, 박은경, 권미정, 안지은, 조은미, 정희조, 신해윤, 김원구  
디 자 인: 김소연  
사 진: 김원구  
표지 다솜사랑 글씨 디자인: 최하은  
발 행 일: 2023년 7월 (통권 제37호)  
주 소: 770 Lucerne Dr, Sunnyvale, CA 94085  
홈페이지: www.dasomks.org  
이 메 일: info@dasomks.org  
인 쇄: Better Yearbook (1-888-550-8604)

다솜사랑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서니베일 시에 위치한 다솜한국학교의 교지로 연간 1회 출판하며 본 한국학교의 역사 기록을 목적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본 교지에 게재된 글이나 사진 등은 다솜한국학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무단 복제나 사용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Dasom Korean School, All rights reserved.

## CONTENTS

04	인사말 _ 교장 최미영
05	격려사 _ 이사장 전남진
06	축사 _ 샌프란시스코 한국교육원장 강완희
07	축사 _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 추성희
08	다솜한국학교 연혁
09	다솜한국학교 학사보고 및 수상자 명단
<b>각 반 소개 및 학생 작품</b>	
10	사랑반 _ 교사 안지은
18	충성반 _ 교사 정희조
30	은유반 _ 교사 권미정
43	화평반 _ 교사 신해윤
58	믿음반 _ 교사 조은미
73	열매반 _ 교사 박은경
<b>학생 및 학부모 글</b>	
84	졸업생 글 모음
86	졸업생 부모님 글
88	기타 학생 글과 작품
<b>이모저모</b>	
92	다솜의 자랑, 보조교사들의 이야기
97	한국 역사문화 강의
101	행사 모음
110	보도자료 모음
125	다솜 앨범
132	다솜한국학교 교사 및 이사진
133	다솜 온라인 등록 안내
134	다솜한국학교 개강 포스터
135	'토크 콘서트 _ 재미동포의 삶과 꿈' 포스터

## 다솜의 자랑, 그리고 다솜의 열매인 우리 학생들

교장 최미영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처럼 새 학년을 시작할 때는 많은 준비로 바쁘고 어렵지만 일단 시작하고 나면 한 학년이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년 동안 매주 다양한 학사 일정과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다솜 교사들은 치열하게 준비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한국어 수업과 함께 우리 학생들이 재미 한인의 바른 정체성을 갖도록 돕기 위해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교육에 힘을 모아 주신 선생님들의 수고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은 올해의 여러 행사 중에서 설날에 했던 ‘차 마시기’ 모임과 개교 19주년 개교기념 행사, 패널들과 함께한 토크 콘서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함께 듣고, 배우고, 나누며 발표하는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한국학교의 역할이고 재미동포로서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즐겁게 공부한 우리 학생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12년 동안 그리고 6년 동안 다솜에서 공부하면서 한국학교 천 시간의 법칙을 실천한 장하진, 오태양 학생이 이번에 졸업합니다. 권민호, 한동진, 박뽀뽀 보조교사는 수년 동안 학생으로 그리고 3년간 보조교사로 봉사하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솜을 떠납니다. 학교를 떠나지만 어디에서든 재미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긍지를 갖고 학업에 정진하기를 기대합니다.

예년에 비해 지난 1년동안에는 개근한 학생의 수가 적었습니다. 지난 봄 학기까지도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였고, 개근 학생이 적은 것은 코비드의 여파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가을학기부터는 모두 더욱 건강히 학교에 다닐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면서 다솜이라는 교육공동체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고 좋은 결과를 많이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생님, 학부모님, 이사회와 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2022-2023학년도 다솜사랑을 발간하며

다솜한국학교 이사장 전남진



올해도 어김없이 ‘다솜 사랑’ 발간하게 되어 기쁘고 축하를 드립니다. 2022-2023년 한 해 동안 공부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여 책으로 남긴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의 기록물이 아니라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며 평가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솜의 발자취를 엿어 볼 수 있는 귀한 자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내용이 더 풍부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교지 발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고 애써주신 교장선생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학년에는 특별히 축하할 일들과 새로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독도 평화재단에서 수여하는 독도평화대상을 받게 되었고, 역사 문화 교재 출판 그리고 ‘재미동포의 삶과 꿈’이라는 제목으로 토크 콘서트를 열어 재미동포의 삶을 돌아보며 그들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서 이민자로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매년 그렇듯이 이번에도 한국어 교육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행사(추석, 설날, 한글날, 독도의 날, 삼일절)로 알차게 보낸 한 해여서 교지의 내용도 풍부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사와 매개체를 통해서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과 풍습을 잊지 않고 계승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수업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보조교사와 선생님들께 그리고 뒤에서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열심히 잘 따라 준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다음 학기의 여정이 9월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재충전을 하고 새로 시작되는 학기에 만나서 새로운 도전에 임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상을 보는 더 넓은 창, 다솜한국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응원하며

샌프란시스코 한국교육원장 강완희



한해 동안 다솜한국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정성껏 담아 실어내는 교지 출간을 축하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교지를 통해 다솜의 알찬 교육활동을 되돌아보고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 분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에서의 주말 한국학교는 재외동포 2세대, 3세대, 이제는 4세대로 이어지며 한글, 한국문화, 역사교육으로 더욱 그 의미와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은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느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민자들의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이러한 다민족사회의 통합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키워주자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지원을 2011년 시작한 이중언어인증제(Seal of Biliteracy)를 통해 선도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은 미래에 우리 학생들에게 큰 장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2-3개의 언어에 노출된 아이들이 더 창의적이며 문제해결능력도 뛰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제2언어를 구사하면 인지능력에도 도움을 주어 다른 언어도 쉽게 습득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다른 언어와 문화에 대한 포용성,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더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창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창을 통하여 시야가 넓어지고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겠지요.

다솜한국학교의 교육은 이러한 이중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뿐 아니라 열정과 능력의 최미영 교장선생님과 뛰어난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일년 동안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 가르쳐오셨습니다. 그 내용을 알뜰히 담은 교지 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믿고 따르며 함께해 온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솜 교육가족 모두의 건강한 여름방학 휴식과 새학기 힘찬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솜한국학교의 개교 19주년 기념 교지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21대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 추성희



“한국어 및 한국 역사 문화 교육에 앞장서는 한국학교”를 표방하는 다솜한국학교의 개교 1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4년 창립된 이래 다솜한국학교는 꾸준히 한국 역사 문화 교재를 개발해 옴으로써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미 지역의 한국학교에 가능할 수 없는 도움과 뚜렷한 반향을 불러오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열정적으로 학교를 이끌어 오고 계신 최미영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뜻을 함께 공유하는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봉사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다솜한국학교 개교 19주년 축사를 위한 하얀 공백의 원고를 앞에 두고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이며, 어떤 의미로 후세대들에게 남게 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의 단상을 간단하게나마 나누며 축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1997년 10월 1일 유네스코는 우리나라 훈민정음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언어학 대학에서는 한글의 합리성과 과학성, 독창성으로 인해 세계 모든 문자 가운데 으뜸으로 한글을 선정함으로써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한글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체계로 인해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의 언어는 한글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글이 지닌 과학적 체계 이외에도 한국어를 배움으로써 습득케 되는 다른 언어에 대한 융통성과 수용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언어에 내포된 타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다솜한국학교 선생님들이 매주 한국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한글에 깃든 정신이라고 여겨집니다. 한국학교 교육을 통해 좀 더 세상을 넓게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가능성을 깨닫고 가슴에 꿈을 품을 줄 아는 학생들을 배양해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한국학교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껏 성실하게 한 발자국씩 걸어오신 그 길 지치지 마시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나아가시길 응원드립니다. 미래의 다솜한국학교 100주년 회보 발간을 또한 미리 축하드립니다!!

다솜한국학교 2022~2023학년도 연혁

2022년 가을학기	
2022 8월 15일	교지 <다솜사랑> 통권 36호 발행
8월 20, 27일, 9월 7일	교사연수회 및 보조교사 연수회
9월 10일	2022-2023학년도 개강식 및 수업 시작,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9월 10일	추석 행사 (강의 및 진행: 안지은, 권미정 교사)
9월 17일	교사 회의
9월 24일	한식 진흥원 및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후원 [한국음식 만들기] 행사 (열매반, 믿음반)
10월 1일	독도의 달 행사 (강의: 최미영 교장)
10월 1일	소방 훈련 실시
10월 15일	교회 바자회에서 사물놀이 공연 및 시장 놀이
10월 22일	특활 시작
10월 29일	역사문화 강의 I (제목: 재미동포 독립운동가, 강의: 최미영 교장)
11월 12일	교사 회의
11월 26일	추수감사절 휴강
12월 3일	역사문화 강의 II (제목: 여성 리더의 삶, 강의: 조은미, 정희조 교사)
12월 10일	역사문화 교재<이중언어로 배우는 한 스타일> 출판 기념식 및 보조교사 사은회
12월 17일	겨울방학 시작 및 교사회의
12월 29일	독도평화대상 시상식 (장소: 경상북도 도청 안민관, 반크 김보경님이 대리 수상함)
1월 21일	겨울 방학 후 개강
1월 28일	가을학기 종강, 성적표 배부, 설 행사 (강의 및 진행: 권미정, 신해윤, 조은미 교사)
2023년 봄학기	
2월 5일	봄학기 개강, 교사 회의
2월 18일	역사문화 강의 III (주제: 독립의 꿈을 이룬 재미 사업가) (강의: 박은경 교무)
2월 25일	교사회의 (개교기념식 및 기타 행사 협의)
3월 4일	삼일절 104주년 행사 (강의: 정희조 교사) 및 대형 태극기 행진
3월 11일	개교19주년 기념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와 운동회 실시
3월 25일	믿음반과 열매반에서 NAKS한국어 시험(NKT) 실시
4월 8일	코리안 아메리칸 컨퍼런스 강의(강사: 최미영 교장)
4월 15일	역사문화 토크 콘서트 (주제: 재미동포의 삶과 꿈) (패널: 전남진 이사장, 김현주 교육위원, 윤희선 정무영사, 정만용 디렉터)
4월 15일	북가주 구연동화대회 총성반 정에서 학생 참가
4월 22일	재미한국학교협의회 교사들을 위한 직지 강의(강사: 최미영 교장)
4월 22일	2023-2024학년도 교과서 수령
5월 7일	종강식과 졸업식 준비를 위한 교사회의, 각 반 성취도 평가 완료
5월 13일	종강식 및 졸업식 리허설
5월 20일	2022~2023학년도 종업식 및 졸업식 • 1년 개근상: 박지윤, 장예림, 김연우, 한서진 • 정근상: 정에서, 장예진, 김서윤, 송주담, 이준겸, 윤재윤, 윤지용, 김민건, 박준우, 윤지유, 윤지윤 • 우등상: 박가운, 정에서, 한서진, 김서윤, 한예진, 박채린, 윤지유 • 모범상: 송해담, 장예림, 명소정, 장예진, 이준겸, 김은수, 안아민, 윤지윤, 박준우 • 2022-2023학년도 졸업생: 장하진, 오태양 • 10학년 이상 재학중인 보조교사 중 80시간 이상 봉사한 학생들에게 이사장 상 및 장학금 수여: 권민호, 한동진, 박희보, 전이현, 이남현, 이준건, 장우주, 남하은, 이현일 • 대학 입학 보조교사에게 장학금 수여: 권민호, 한동진, 박희보 •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 권민호, 한동진, 박희보, 전이현, 이남현, 이준건, 장우주, 남하은 • 보조교사 명단: 권민호, 한동진, 박희보, 전이현, 이남현, 이준건, 장우주, 남하은, 이현일
7월 20~22일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41회 학술대회, Hyatt Regency San Francisco Airport • 제1회 [직지] 교육 우수 체험프로그램 공모전에서 박은경 교무선생님 우수상 수상 (제목:활자의 시공간 여행, 직지를 찾아서) • 제6회 한국어 학습활동 수업 경시대회에서 신해윤 교사 장려상 수상 (제목: 벚꽃 축제를 설명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동네의 축제를 소개할 수 있다.)

다솜한국학교 2022~2023학년도 학사 보고

반 명	교 사 명	2022~2023학년도 학생 명단
사랑반	안지은 (보조교사: 한동진, 남하은)	박라은, 송해담, 염바다, 김웨슬리, 김제이든, 그레이에이든이슬
총성반	정희조 (보조교사: 권민호, 장우주)	박가운, 박지윤, 장예림, 정에서, 조경민, 이준현, 최하준, 허지아
은유반	권미정 (보조교사: 이남현, 이현일)	김연우, 김재이, 명소정, 손우제, 송하담, 이주환, 이지용, 장예진, 한서진
화평반	신해윤 (보조교사: 이준건)	김서윤, 박주연, 손은제, 송주담, 윤세인, 이정윤, 이준겸, 한예진, 허지나
믿음반	조은미 (보조교사: 전이현)	나예준, 박채린, 송예담, 신주원, 안아민, 윤재윤, 윤지용, 이준, 장시은, 조새린, 조다나, 김은수, 윤지우
열매반	박은경 (보조교사: 박희보)	김민건, 남소은, 박준우, 안아라, 오태양, 윤지유, 윤지윤, 장하진
보조교사	최미영	권민호(회장), 한동진(부회장), 박희보(부회장), 전이현, 이남현, 이준건, 장우주, 남하은, 이현일

다솜한국학교 2022~2023학년도 수상자 명단

졸업생	장하진, 오태양
이사장상 및 장학금	권민호, 한동진, 박희보, 전이현, 이남현, 이준건, 장우주, 남하은, 이현일
고등학교 졸업 장학금	권민호, 한동진, 박희보
1년 개근상	박지윤, 장예림, 김연우, 한서진
1년 정근상	정에서, 장예진, 김서윤, 송주담, 이준겸, 윤재윤, 윤지용, 김민건, 박준우, 윤지유, 윤지윤
우등상	박가운, 정에서, 한서진, 김서윤, 한예진, 박채린, 윤지유
모범상	송해담, 장예림, 명소정, 장예진, 이준겸, 김은수, 안아민, 윤지윤, 박준우
대통령 봉사상(PVSA)	권민호, 한동진, 박희보, 전이현, 이남현, 이준건, 장우주, 남하은

# 사랑반



담임 교사 안지은



보조 교사 한동진



보조 교사 남하은

2022~2023 학년도 사랑반에는 가을 학기 총 5명 그리고 봄 학기 총 3명의 학생들이 등록하여 각 학기를 잘 마쳤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고 모든 것이 어색하지만 했던 사랑반 학생들이 매주 만나면서 서로의 얼굴과 이름을 익히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습니다. 사랑반에는 대부분 미취학 아동들이 많은데, 다솜 한국학교가 인생의 첫 학교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치는 승부욕에 속상해 울기도 하고, 먼저 이야기하고 싶지만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견디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규칙들을 함께 지키며 서로를 존중하는 것을 배우면서 간식이 없는 친구를 위해 자기 간식을 나누고, 친구를 기다리며 도와주는 멋진 학생들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3시간 동안 한국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그대로 사랑반 학생들에게 차곡차곡 쌓여서 가슴에 간직하고 또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나듯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자라며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글자씩 소리를 내어 배우며 익히고, 읽을 수 있는 어휘들이 많아질수록 초롱초롱하게 빛나던 바다, 해답이 그리고 라온이에게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또한 봄학기에는 함께 하지 못한 이솔, 제이든 그리고 웨슬리에게도 한 학기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줘서 고맙습니다. 매주 숙제와 라이드로 헌신 하시며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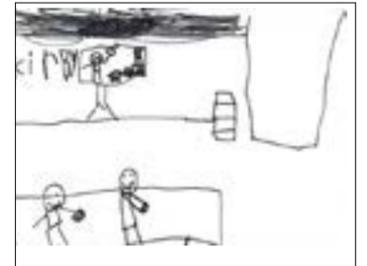
담임 교사 안지은



그레이에이든이솔



[그림일기]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친구 Kirby랑 놀았어요.



김웨슬리



[그림일기] 나는 오늘 코로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김제이든



[그림일기] 감사한 사람: 엄마



[그림일기] 내가 좋아하는 것

사랑반



박 라 온



[그림일기] 할로윈에 공주 벨로 변신했어요.



[겨울방학]



송 해 담



[그림일기] 친구랑 놀았던 하루



[겨울방학] 친구집에서 놀았어요



염 바 다



[그림일기] 나의 소개

사랑반  
특별활동

사랑반은 특별 활동시간에 한글학습을 더욱 확장하거나 연계하는 수업을 하기 위해 쉬운 활동들 위주로 만들기 수업을 가졌습니다.

한국에 대해 배우기



[ 태극기 퍼즐 완성하기 ]



[ 훈민정음, 작은책 만들기 ]



[ 무궁화 꽃잎 붙이기 ]

사랑반  
특별활동

독도 모형 만들기



[ 박라운 ]



[ 송해담 ]

소고 만들기



[ 박라운 ]



[ 송해담 ]

사랑반  
특별활동

감사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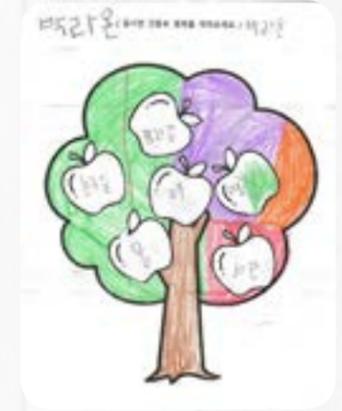
'감사함'을 가지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감사한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열매에 적어 '감사나무'를 완성하는 활동을 했어요.



[ 그레이에이든이슬 ]



[ 김제이든 ]



[ 박라운 ]

떡국 만들기

한국에서는 설날에 떡국을 먹지요. 떡국에 들어가는 재료를 배우고 만들기 활동으로 재료를 하나씩 붙여서 떡국을 만들었어요.



[ 박라운 ]



[ 송해담 ]



[ 엠바다 ]

사랑반  
특별활동

민화 호랑이 색칠하기

우리나라 고전 전래동화 속에는 동물들이 자주 등장하지요. '호랑이와 꽃감' 이야기를 함께 듣고 이야기 속 겁이 많고 영뚱한 호랑이를 생각하며 색칠 활동을 했어요.



[ 박라온 ]



[ 송해담 ]



[ 엄바다 ]

애벌레 완성하기 (모음 글자를 순서대로 배열하기)



사랑반  
특별활동

어버이날 카드 만들기

어버이 날을 맞아 부모님께 감사를 전해요.



[ 박라온 ]



[ 송해담 ]

사진으로 보는 사랑반



[ 2023년 토끼해를 축하해요! ]



[ 가을 학기 종강식을 잘 마쳤어요! ]



[ 손가락의 힘을 기르기 위한, 낙서시간 ]



[ 추석 달맞이 소원 적어보기 ]

# 충성반



담임 교사 정희조

“오드리는 갑갑한 나무 옷을 벗고 빙그르르 춤추며 무대로 나갔어요.”

충성반 아이들과 함께 읽었던 ‘나는 오드리아’ 라는 책의 한구절입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넘치는 상상력과 엉뚱함이 가득한 오드리를 통해 저희 충성반 아이들이 독후활동으로 틀에 박혀 있지 않은 자기 자신의 나무를 원하는대로 마음껏 표현 해 보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충성반 아이들을 보면 또래를 키우는 엄마로서, 가르치는 선생님께서도 이 시기의 아이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 때가 많아요. 빨리 서둘러야 하는데 세월아 네월아 늦장 부릴 때, 들어주기 힘든 일을 지금 당장 해 달라고 고집을 피울 때, 온 몸이 땀에 흠뻑 젖었는데 절대 씻지 않겠다고 울고 불고 할 때... 부모 마음을 콕콕 찌르고 인내심의 한계를 매일 시험하지 말입니다. 하지만 잠시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은 다시 바라보면 그렇게 큰 잘못을 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이해가 될만한 상황도 많더라고요. 우는게 귀여워 보일 정도로 그저 사랑스러운, 각자의 개성대로 모두 완벽한 아이들 있었어요.

언제나 긍정과 밝은 힘을 빛내는 가온이, 늘 식물 이야기에 눈이 반짝이는 경민이, 뭐든지 최선을 다해 잘 해내고 싶어하는 준현이, 놀라운 그림체를 소유한 귀여운 지윤이, 항상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예린이, 따뜻한 마음과 섬세함으로 감동을 주는 하준이, 예쁜 미소와 마음속 깊이 성숙함이 느껴지는 지아, 순수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예서 까지, 아이들이 커 갈 수록 속절없이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 어른들의 기대감이나 기준이 아닌 우리 아이들의 속도에 맞춰 이해하고 기다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도 한국학교에서도 지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격려 합니다. 무조건 이겨 해! 가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솔직히 표현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어 줄 수 있기를.

2022-2023 다솜한국학교를 마치며, 앞으로 저희 아이들이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 성장하며 마음껏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자유로운 모험을 해보고 밝은 세상과 미래를 꿈꾸고 누릴 수 있기를 기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담임 교사 정희조



보조 교사 권민호



보조 교사 정지우



# 충성반



박 라 온



[ 가족 소개 ]



[ 가을나무 ]



[ 봄맞이 동시 짓기 ] 봄



[ 내안의 감정표현 ]



[ 복주머니 만들기 ]



[ 한복 종이접기 ]



박지윤



[그림일기] 유관순 열사님께



[가을나무]



[봄맞이 동시 짓기] 봄 생일



[내안의 감정표현]



[독후활동] 엄마 약



[한복 종이접기]



장예림



[그림일기] 유관순 열사님께



[가을나무]



[봄맞이 동시 짓기] 봄 꽃



[가족소개]



[한복 종이접기]



정 예 서



[그림일기] 유관순 열사님께



[가을나무]



[봄맞이 동시 짓기] 장미꽃



[내안의 감정표현]



[가족소개]



[복주머니 만들기]



조 경 민



[그림일기] 유관순 열사님께



[가족소개]



[봄맞이 동시 짓기] 파리지옥



[내안의 감정표현]



[독후활동] 엄마 약



[복주머니 만들기]



이준현



[가족소개]



[가을나무]



[봄맞이 동시 짓기] 봄 비



[내안의 감정표현]



[독후활동] 엄마 약



[복주머니 만들기]



최하준



[그림일기] 유관순 열사님께



[가을나무]



[봄맞이 동시 짓기] 봄 바람



[내안의 감정표현]



[독후활동] 엄마 약



[복주머니 만들기]

충성반



허지아



[ 독후활동 ] 엄마약



[ 가을나무 ]

충성반  
활동사진  
모음



[ 추석 미니책 ]  
달아~ 달아~ 밝은 달아~



[ 설날 미니책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유관순 열사 병풍 ]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 삼일절 행사 ]  
존경하는 독립운동가분들



[ 태극기 ]  
태극기에 대해 배워보고 그림 순서 익혀보기



[ 삼일절 미니책 ]  
한 글자 한 글자 열심히 완성한 책!



[ 한복 접기 ]  
고이고이 접어 본 고운 한복



[ 독후활동 ] 짜증나지 않았어  
우린 짜증나지 않았다고...!



[ 어버이날 카드 ]  
아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충성반  
활동사진  
모음



[ 송편 만들기 수업 ]  
차근차근 따라해 보세요



[ 송편 만들기 ]  
욕심내지 않고 속은 조금만



[ 송편 ]  
맛도 모양도 먹기 아까운 송편



[ 직지 활동 ]  
알록 달록 멋지게 만들어보자!



[ 자율학습 ]  
여러가지 골라하는 재미가 있다!



[ 색종이 접기 ]  
차례차례 따라해 보세요~



[ 동서남북 ]  
추억의 게임을 다함께!



[ 동서남북 ]  
이제는 내가 해볼게~



[ 백일장 그림 그리기 ]  
사진찍다 눈 마주침!

충성반  
활동사진  
모음



[ 설 행사 ]  
다소곳하게 절하는 법 배우기



[ 설 행사 ]  
절 하기 전 의젓함!



[ 설 행사 ]  
설 특집 단체사진



[ 단체사진 ]  
청량한 가을 하늘 아래 스마일 :)



[ 삼일절 단체사진 ]  
태극기를 더 높이~~!



[ 단체사진 ]  
신중하게 임해보는 백일장 그림 그리기



[ 백일장 그림 그리기 ]  
멋지게 뽐내보는 우리들의 솜씨!



[ 발렌타인 하트 ]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 종업식 ]  
수줍게 입차게 불러본 애국가

# 은유반



담임 교사 권미정

은유반에는 참 성실하고 섬세하며 진지한 여자 친구들과 개구쟁이 미소로 매사에 신이 나고 즐거운 남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상반되는 그룹이지요? 이 학생들을 마주하며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어 클래스를 이끌어 가야할지 저의 첫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에게 분명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되뇌었지만, 현실은 ‘조용히 해보자!’를 수없이 외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감사한 것은 은유반 친구들간의 공통점을 찾게 되는 순간 생각보다 함께 집중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아트를 좋아한다는 것이었어요. 해마다 기념하는 독도의 날.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와 근거를 배우고, 독도의 동식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사람을 그리고 싶어요!”  
 “그래, 그럼 독도를 지켰던 어부 안용복을 그려보자!”  
 “선생님, 저는 지도 좋아해요.”  
 “그럼, 독도가 일본보다 한국 땅에 가까운 걸 그대로 그릴 수 있겠니?”  
 “저...우체통 그려도 되나요?”, “태극기 그리고 싶은데, 더 꾸며도 돼요?” 각자가 관심사와 자신 있는 부분들을 외치며 그림 그리기에 집중하게 되었고, 집중과 동시에 은유반 학생들 간에 처음으로 균형 잡힌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보조 교사 이남현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책 읽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예요. 동화책의 글줄이 길어지면 힘이 들텐데, 아이들은 짝꿍과 번갈아 가며 읽기 위해 온전히 책에 집중합니다. 책 읽기를 마친 후 이어지는 동화 퀴즈 시간에는 넘치는 승부욕으로 목소리까지 커지며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됩니다.

마지막 공통점은 풍선 배구 놀이를 즐겨 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풍선 배구할 수 있나요?” 조심스럽게 묻는 여자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답변은 필수입니다. 가벼운 풍선으로 시작된 놀이에 아이들은 흥겨워했고 땀도 많이 났지만, 이렇게 온 에너지를 쓴 후에 은유반에는 평화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친구들 모두가 함께 집중하고 함께 노는 것이 바로 은유반에 필요한 밸런스였습니다.



보조 교사 이현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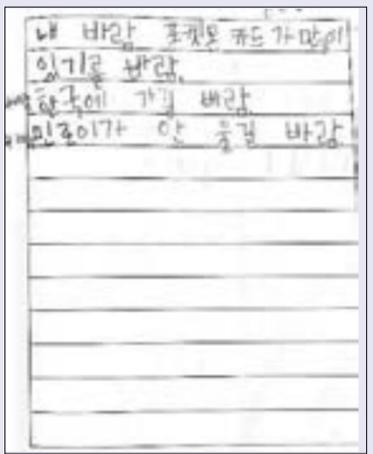
학기를 마무리하며 은유반 친구들을 떠올려 봅니다. 언제나 밝은 미소를 장착한 친구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스러운 친구들. 떠들었지만 다른 친구보다 덜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생각할수록 귀여워서 제게도 행복한 웃음이 묻어납니다. 수업 시작 전부터 플레이 데이트와 생일파티, 캠핑 등 오후 일정을 공유해 주는 친구들. 지난주 일상과 속상했던 일, 다쳤던 일을 이야기하는 친구들. 생각보다 진지하고, 많은 것을 이해하는 속 깊은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사랑의 마음이 풍풍 솟아납니다.

애들아! 선생님은 너희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로 시작하는 아침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 같아. 언제나 밝았던 너희들의 모습처럼 맑고 밝은 그리고 마음이 큰 아이들로 자라나길 기도할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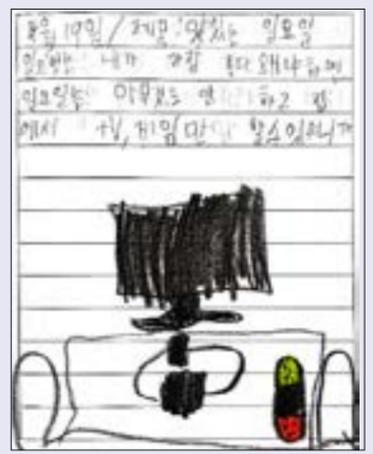
담임 교사 권미정



김연우



[ 시 ] 나의 바람



[ 글쓰기 ] 내가 좋아하는 요일



[ 월로우스 비행학교 ]

<b>갔다</b> 지평이 눈 덮을 무렵이다. 지평이 눈 덮을 무렵이다. 눈이 백설에 덮인다. 눈이 백설에 덮인다.	<b>값</b> 값이 비싸서 못살려고 있다. 값이 비싸서 못살려고 있다. 눈이 많이 내린다. 눈이 많이 내린다.	<b>많다</b> 하늘에 구름이 많은 날이다. 하늘에 구름이 많은 날이다. 눈이 많이 내린다. 눈이 많이 내린다.	<b>괜찮다</b> 이 세상엔 뭐든 괜찮다. 이 세상엔 뭐든 괜찮다. 눈이 많이 내린다. 눈이 많이 내린다.
<b>샀다</b> 풍선을 샀다. 풍선을 샀다. 풍선을 샀다. 풍선을 샀다.	<b>없다</b> 눈이 많이 내렸다. 눈이 많이 내렸다. 눈이 많이 내렸다. 눈이 많이 내렸다.	<b>꿈다</b> 꿈을 꾸고 싶어한다. 꿈을 꾸고 싶어한다. 꿈을 꾸고 싶어한다. 꿈을 꾸고 싶어한다.	<b>귀찮다</b> 뭐든 내 맘대로 귀찮다. 뭐든 내 맘대로 귀찮다. 뭐든 내 맘대로 귀찮다. 뭐든 내 맘대로 귀찮다.

[ 맞춤법 ] 겹받침 배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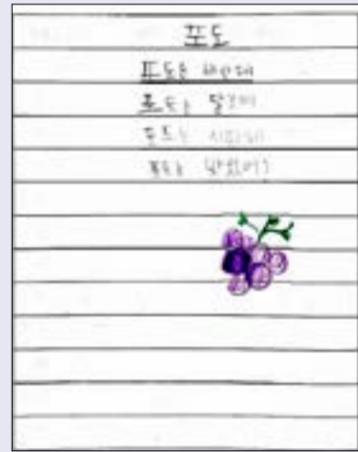
[ 어휘 익히기 ] 경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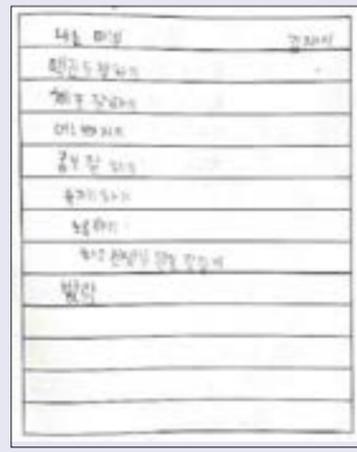
[ 독후 활동 ] 가족 자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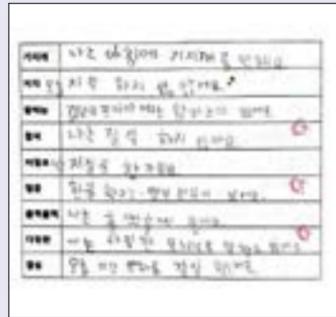
김재이



[ 시 ] 내가 좋아하는 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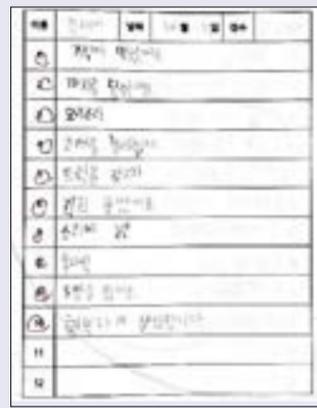
[ 시 ] 나의 바람



[ 문장 만들기 ]



[ 독후 활동 ] 가족 자판기



[ 받아쓰기 ]

• 별명: 사막의 사람들  
• 별명을 지은 까닭:  
미어캣은 사막에 살고  
사람같아요.

[ 미어캣의 별명 짓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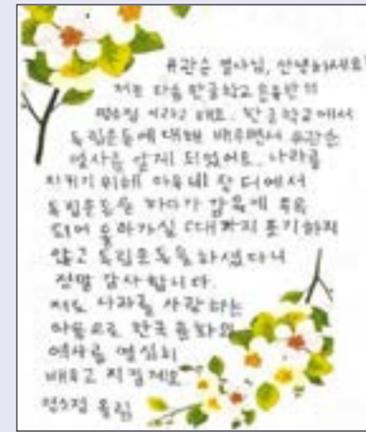
[ 어휘 익히기 ] 3.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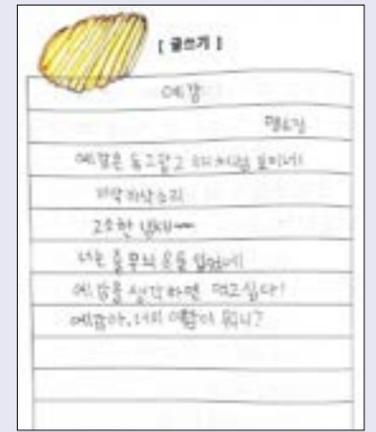
[ 어휘 익히기 ] 강충강충



명소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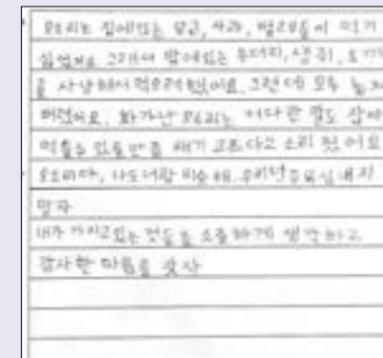
[ 편지쓰기 ] 유관순 열사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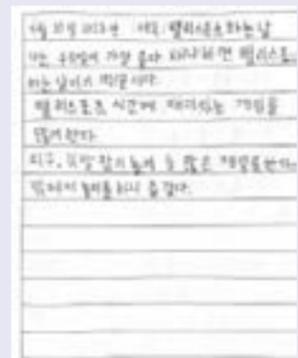
[ 시 ] 내가 좋아하는 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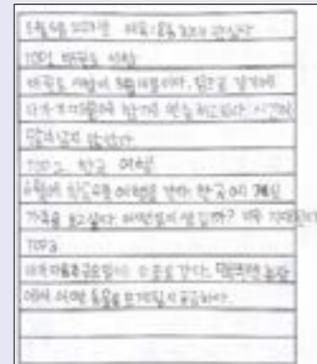
[ 어휘 익히기 ] 알록달록



[ 독서일기 ] 오소리의 멋진 점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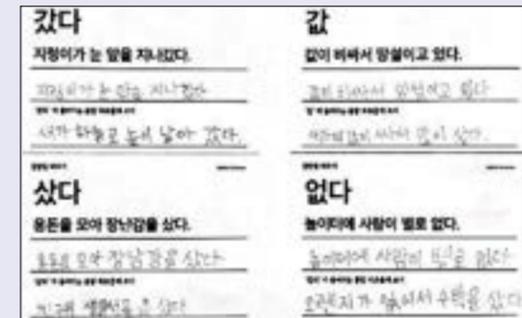
[ 글쓰기 ] 내가 좋아하는 요일



[ 글쓰기 ] 요즘 최대 관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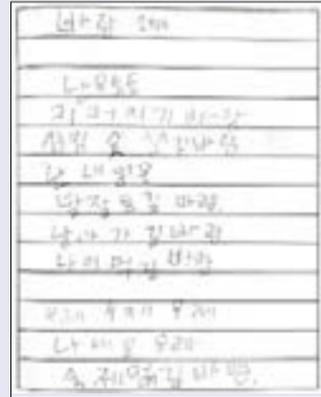
[ 독후 활동 ] 가족 자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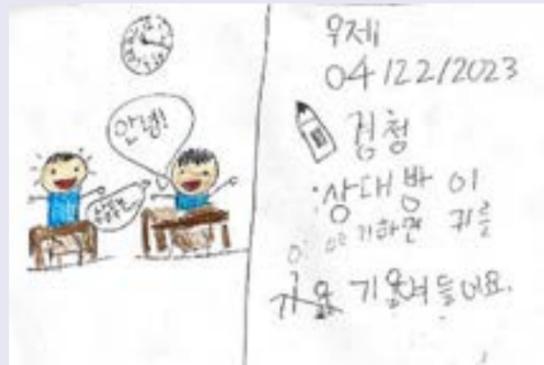
[ 맞춤법 ] 겉받침 배우기



손우제



[시] 나의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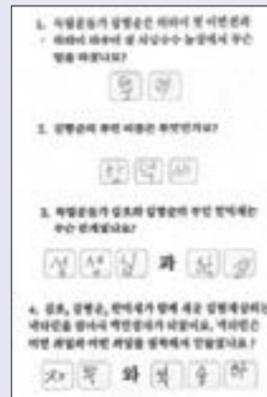
[어휘 익히기] 경청



[맞춤법] 겹받침 배우기



[독후 활동] 가족 자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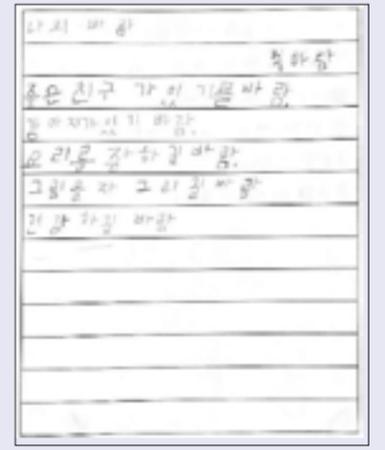
[김형순 퀴즈]



송하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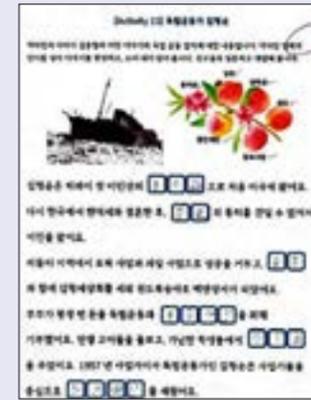
[시] 내가 좋아하는 간식



[시] 나의 바람



[독후 활동] 가족 자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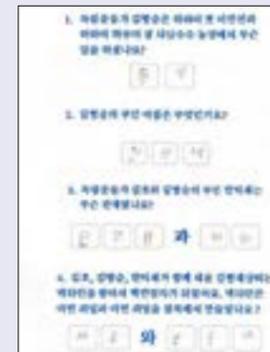
[독립 운동가] 김형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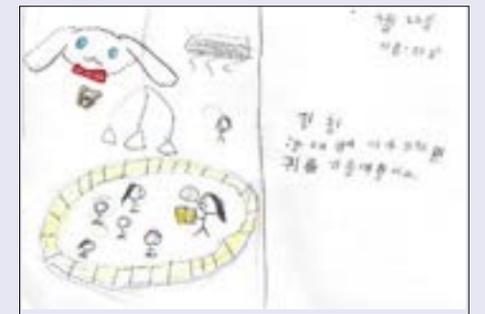
[맞춤법] 겹받침 배우기

• 별명: 스파이  
• 별명을 지은 까닭:  
눈이 선글라스를 낀 것  
같고, 자꾸 두리번거리  
니까 스파이 같아요.

[미어캣의 별명 짓기]



[김형순 퀴즈]



[어휘 익히기] 경청



이주환

5월 6일 / 제목: 요즘 최대 관심사  
 나는 폰키모 카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관심사인 폰키모 카드 게임  
 나 개인적으로 폰키모 카드를  
 아 하기 어렵기 때문 폰키모 게임  
 중 VSTAR 와 VMAX를 플레이하고  
 싶어요. VMAX 과 VSTAR는 플레이  
 서 친구들과 놀때에 이걸 플레이하  
 어 피라 닌 친구들 VSTAR를 플레이하  
 면서 나요.

[ 글쓰기 ] 요즘 최대 관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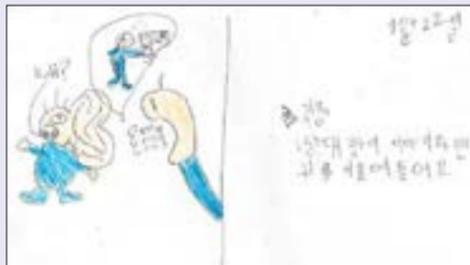
4월 23일 / 제목: 기쁜날은 구름일  
 나는 구름이 좋아한다. 왜냐하면  
 구름이 하늘 친구들이라서  
 좋다. 구름이 구름이다. 왜냐하면 구름이  
 보는 사람이 좋아해서 좋다.

[ 글쓰기 ] 내가 좋아하는 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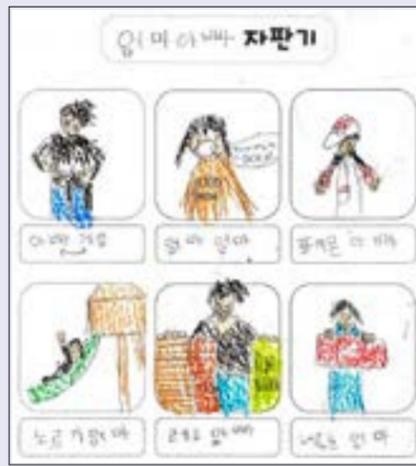
<b>밝다</b> 오늘은 밝은 보름달이 떴다. 오늘은 밝은 보름달이 떴다. 밝은 보름달이 떴다.	<b>맑다</b> 공기 맑아 시원하다. 공기 맑아 시원하다. 시원하다.
<b>밝다</b> 해 뜨고 밝아 보인다. 해 뜨고 밝아 보인다. 저녁 해 뜨고 밝아 보인다.	<b>넓다</b> 한강을 함께 놀러가는 친구 한강을 함께 놀러가는 친구 친구들 놀러간다.

<b>많다</b> 하늘에 구름이 많은 날이다. 하늘에 구름이 많은 날이다. 구름이 많다.	<b>괜찮다</b> 이 비는 학교도 괜찮다. 이 비는 학교도 괜찮다. 이 비는 학교도 괜찮다.
<b>꿈다</b> 밤을 세게 덮어 준다. 밤을 세게 덮어 준다. 나는 이 꿈을 꾸고 있다.	<b>귀찮다</b> 비가 오니까 나가기가 귀찮다. 비가 오니까 나가기가 귀찮다. 나는 이 귀찮음을 이겨내고 있다.

[ 맞춤법 ] 겹받침 배우기



[ 어휘 익히기 ] 경청



[ 독후 활동 ] 가족 자판기



이지용

나의 가장 오래된 기억은 구름을  
 보는 것이다.  
 구름이 하늘에 떠다니다.  
 구름은 하늘에 떠다니다.  
 구름이 하늘에 떠다니다.  
 구름이 하늘에 떠다니다.  
 구름이 하늘에 떠다니다.

[ 글쓰기 ] 오래된 기억

01 TUBE / 오뚜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는  
 감자와 감자 같이 먹는 것이다.  
 감자와 감자 같이 먹는 것이다.  
 감자와 감자 같이 먹는 것이다.  
 감자와 감자 같이 먹는 것이다.

[ 글쓰기 ] 내가 좋아하는 간식

내 마음  
 마음은 마음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감정 받고 사랑이 피자가  
 피자를 먹고 피자를  
 피자를 먹고 피자를  
 피자를 먹고 피자를  
 피자를 먹고 피자를

감정 받고 사랑이  
 감정을 받고 사랑이  
 감정을 받고 사랑이  
 감정을 받고 사랑이  
 감정을 받고 사랑이

[ 시 ] 내 마음



[ 어휘 익히기 ] 경청



[ 독후 활동 ] 가족 자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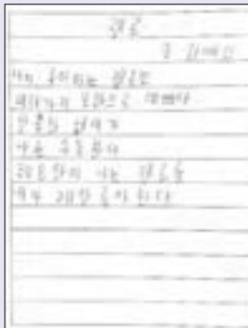
장예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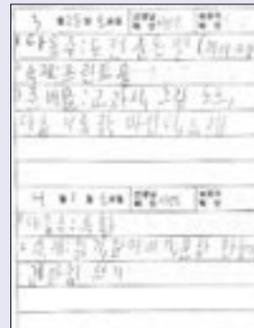
[편지쓰기] 유관순 열사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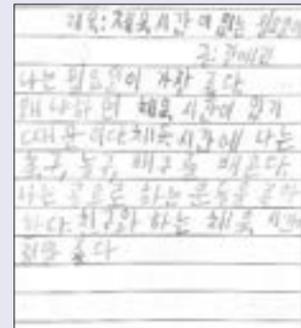
[나를 소개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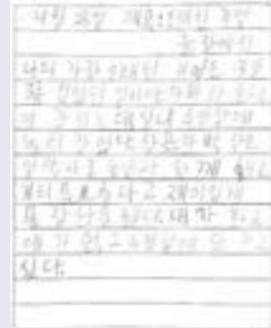
[시] 내가 좋아하는 간식



[다솜 기록장]



[글쓰기] 내가 좋아하는 요일



[글쓰기] 오래된 기억



[독후 활동] 가족 자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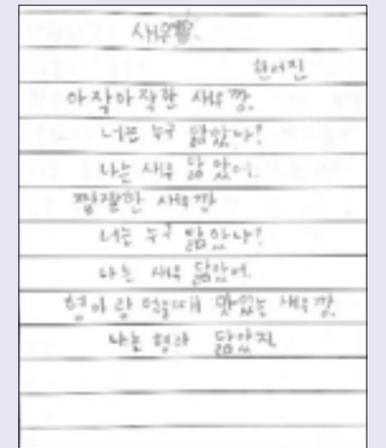
[어휘 익히기] 알록달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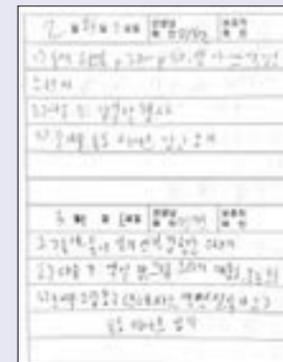
한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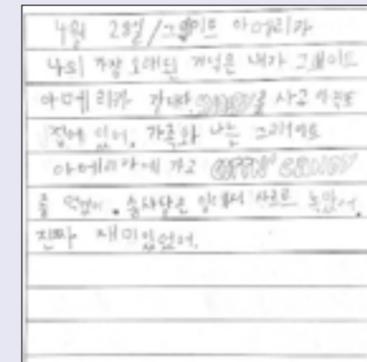
[통역관 김형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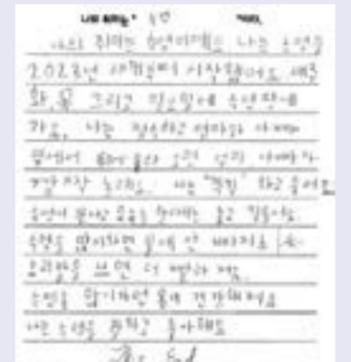
[시] 내가 좋아하는 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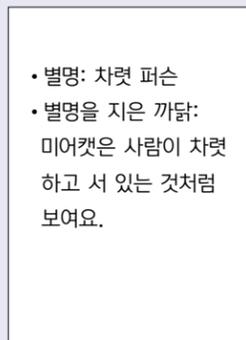
[다솜 기록장]



[글쓰기] 오래된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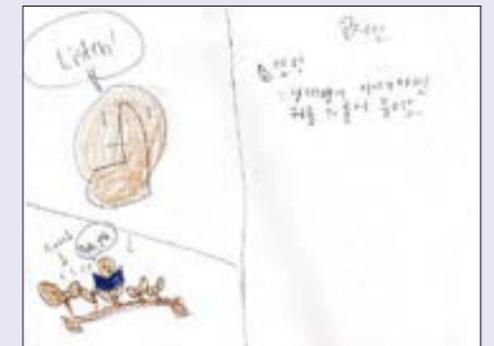
[글쓰기] 나의 취미



[미어캣의 별명 짓기]



[독후활동] 가족 자판기



[어휘 익히기] 경청

은유반  
활동사진  
모음



[ 독도의 날 ]

은유반  
활동사진  
모음



수업



유관순 미니 병풍 만들기



[ 설날 ] 복주머니 만들기



[ 설날 ] 다도



구연동화발표



크리스마스

은유반  
활동사진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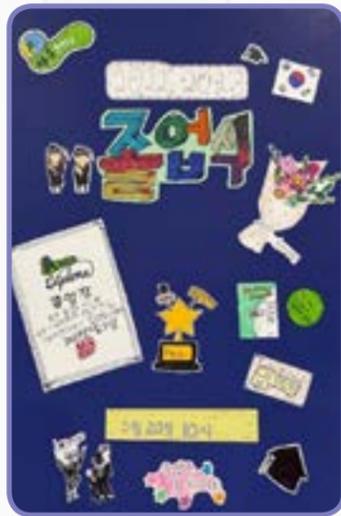
삼일절



도전 골든벨



도전 골든벨 우승



졸업식 포스터



은유반 단체사진

# 화평반

2022-2023 학년도 화평반 수업은 저에게 ‘교학상장’의 시간이었습니다. 배우고 가르치면서 함께 성장한다는 말의 뜻처럼, 학생들만 배우고 익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수업을 열정적으로 가르칠 수록,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과 태도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에 저는 매 수업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노력을 아는 듯이 열심히 따라와주었고 그 덕분에 즐겁고 유익한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23년 봄학기에는 우리반 학생들과 함께 전미한국학교 협의회(NAKS)에서 주최하는 수업경시대회에도 참여하였는데 장려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화평반 수업을 할 때마다 느낀 것은, 우리 반 친구들이 예비된 미래의 인재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적극적인 태도로 수업이 잘 진행되도록 돕는 서운이, 그림을 잘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은제, 항상 밝은 얼굴로 수업 분위기를 띄워주는 주연이, 조용하지만 그림을 잘 그리고 꼼꼼한 세인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모범생 예진이, 마음이 따뜻하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담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준겸이 그리고 노래를 좋아하고 예술적인 감성을 가진 정윤이까지 우리반 학생들은 각기 다른 장점과 개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강점들이 한국학교에서 배운 한국어와 한국의 역사문화와 시너지 효과를 내어 미래에 역량을 펼치며 살아갈길 기대합니다.

이번 학기가 첫 해라 서투른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지해주시고 협조해주신 화평반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미리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주시고 도와주신 이준건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한 해 동안 지지고 북으며 행복한 수업을 하게 해준 화평반 학생들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교사 신해운



담임 교사 신해운



보조 교사 이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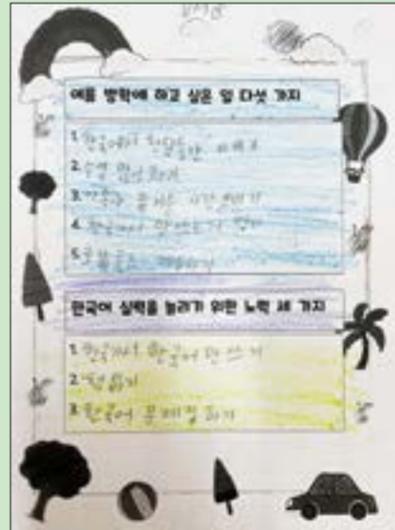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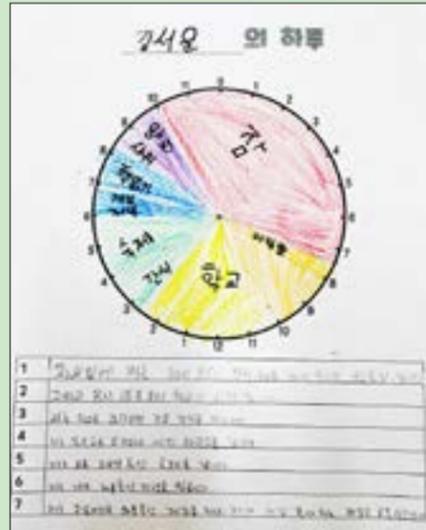
김서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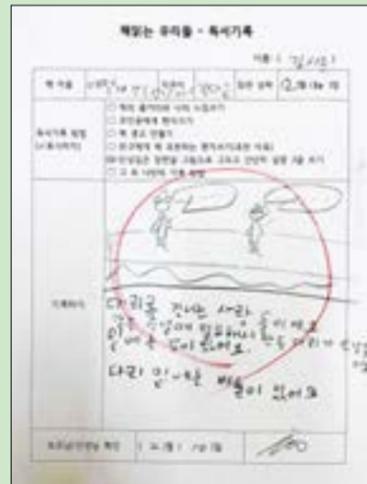
[ 한글 타이포그래피 ]



[ 방학 계획 세우기 ]



[ 나의 하루 ]



[ 독서 기록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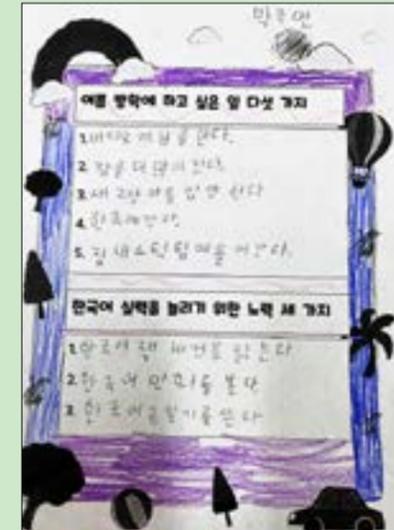
[ 독도 크래프트 ]



박주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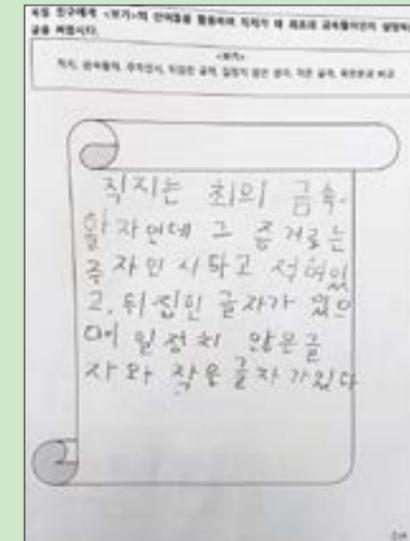
[ 한글 타이포그래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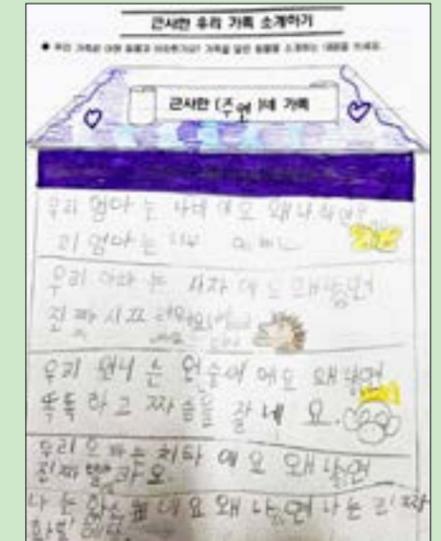
[ 방학 계획 세우기 ]



[ 나의 하루 ]



[ 직지 글쓰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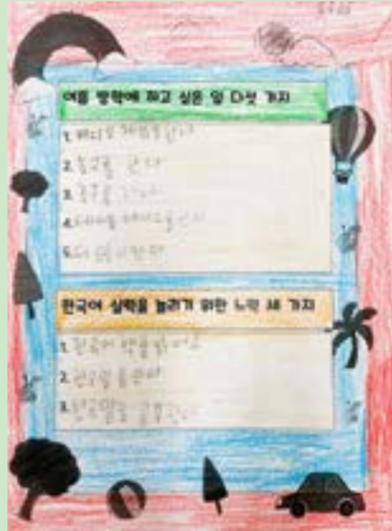
[ 우리 가족 소개하기 ]



송 주 담



[ 한글 타이포그래피 ]



[ 방학 계획 세우기 ]



[ 나의 하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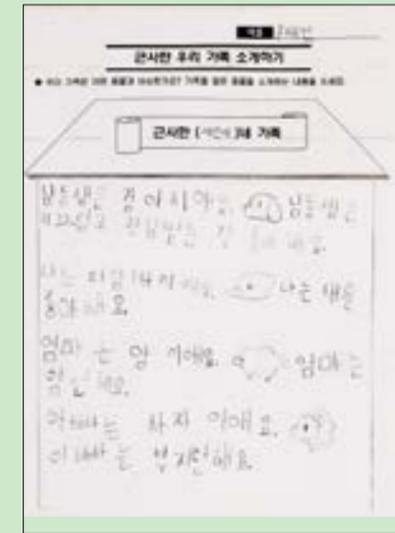
[ 독서 기록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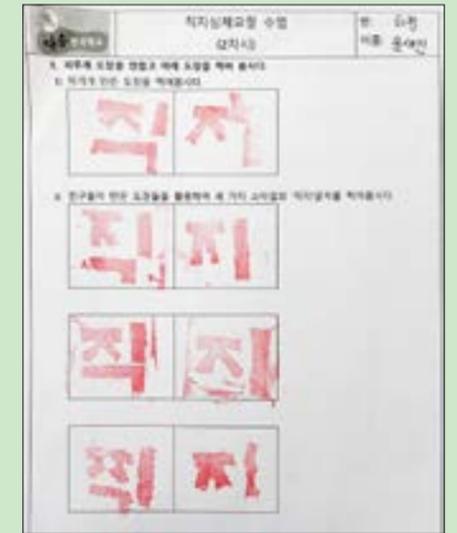
[ 독도 크래프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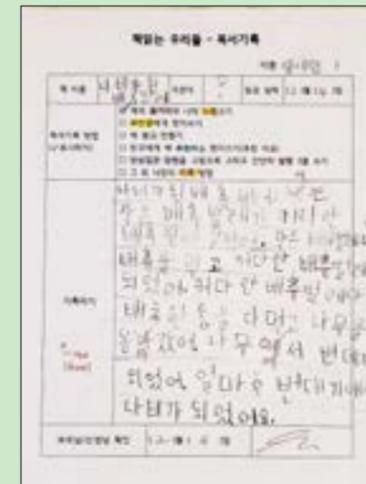
윤 세 인



[ 우리 가족 소개하기 ]



[ 직지 판화 ]



[ 독서 기록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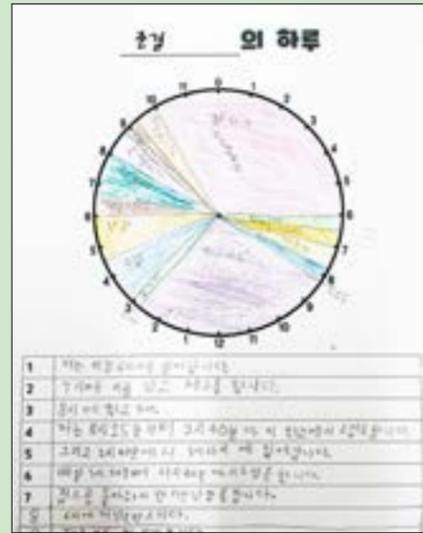
[ 독도 크래프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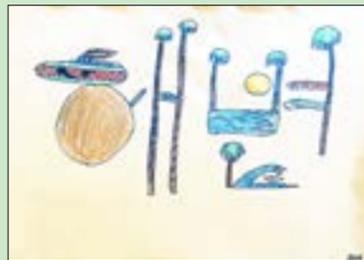
이준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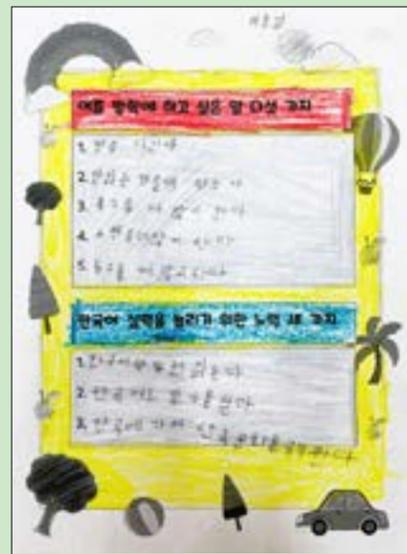
[ 우리 동네 그리기 ]



[ 나의 하루 ]



[ 한글 타이포그래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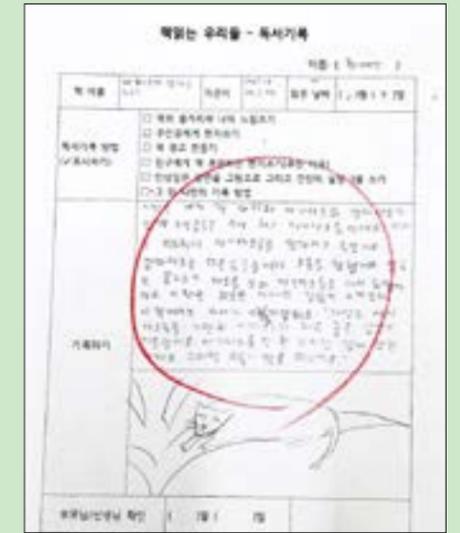
[ 방학 계획 세우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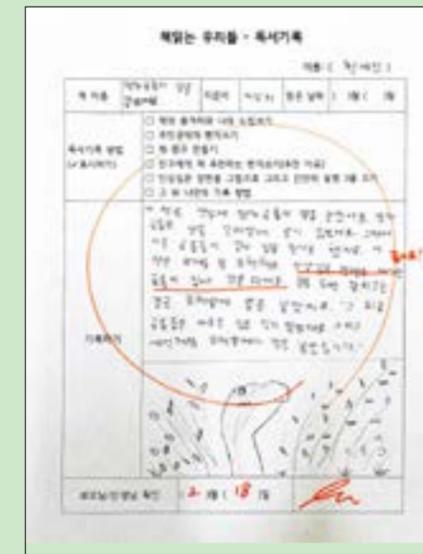
한예진



[ 독서 기록장 1 ]



[ 독서 기록장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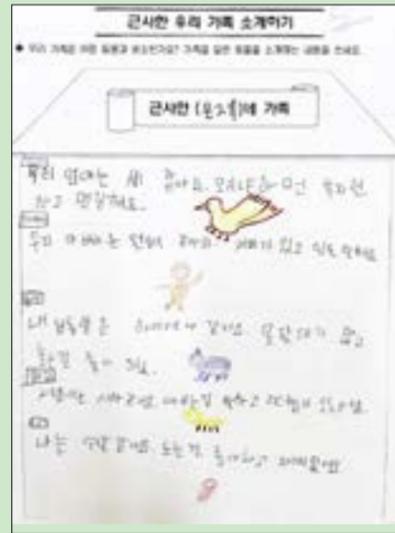
[ 독서 기록장 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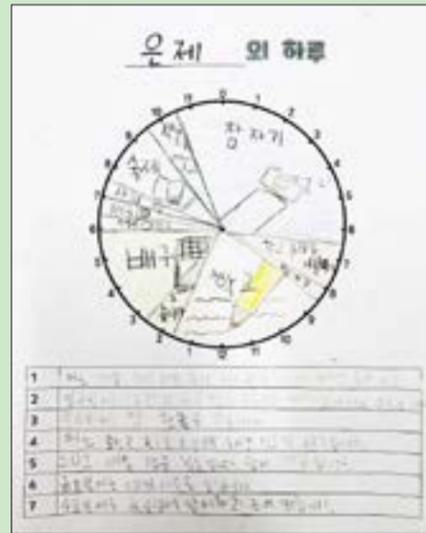
손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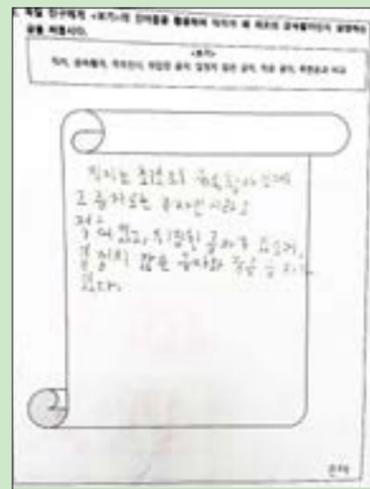
[ 한글 타이포그래피 ]



[ 우리 가족 소개하기 ]



[ 나의 하루 ]



[ 직지 글쓰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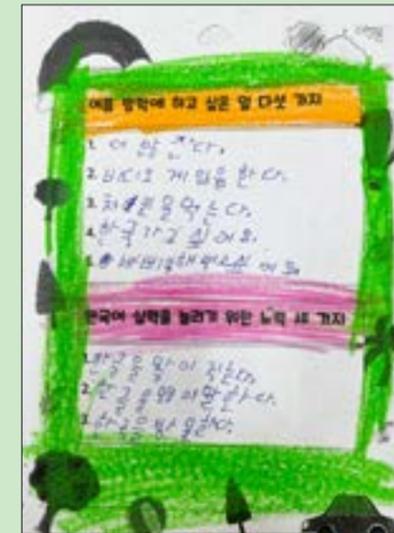
[ 독도 크래프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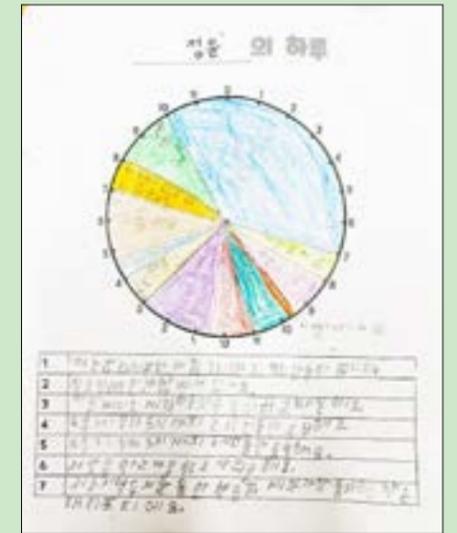
이정윤



[ 한글 타이포그래피 ]



[ 방학 계획 세우기 ]



[ 나의 하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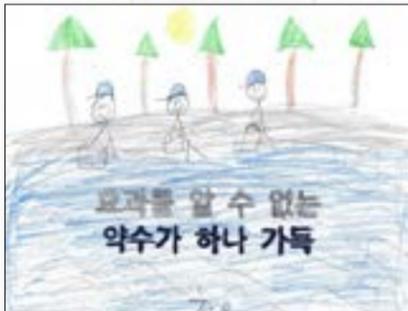
[ 직지 판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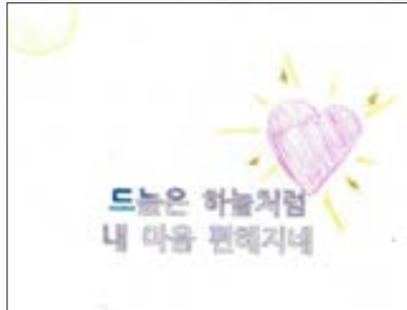
[ 독도 크래프트 ]

화평반  
활동사진  
모음

2022 가을학기 특별활동  
[ 가을 아침 ] 노래 듣고 가사에 맞는 그림 그리기



화평반  
활동사진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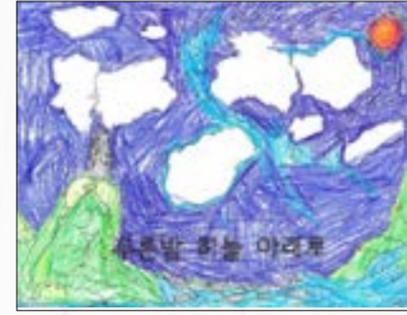


화평반  
활동사진  
모음

2023 봄학기 특별활동  
[ 제주도 푸른 밤 ] 노래 듣고 가사에 맞는 그림 그리기



화평반  
활동사진  
모음



화평반  
활동사진  
모음



산호세 축제 포스터 만들기



독도 크래프트



카네이션 만들기

화평반  
활동사진  
모음



추석 송편 만들기



다솜 백일장 대회



직지 역할극



추석맞이 활동



독도의 날



2023년 종강식 리허설

# 믿음반



담임 교사 조은미

다솜 한국학교에서 믿음반 담임으로 풍요로운 한 해를 보내는데 기여를 해주신 학부모님, 선생님,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믿음반은 모두의 응원 속에서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4-1 교재를 마저 마치고 4-2를 시작했고, 재미동포에 대한 특별 강의에도 활발하게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국어 책을 읽고 독서감상문을 쓰고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워크북도 열심히 풀었지요.

올해 아이들과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것은 한국어와 매체였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전자기기를 수업 시간에 사용하며 한국어 자판도 한 글자씩 눌러 보고 사랑하는 부모님께도 한국 스타일로 이메일도 써보고 아이들이 나중에 이 모든 것을 추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는 메타버스 속 경복궁에 소풍도 다녀왔어요. 이럴 때면 몸은 미국에 있지만 기술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매주 토요일에 한국학교에 오는 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막상 오면 하하호호 재미있게 수업에 임하는 우리 믿음반 아이들이 참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한국어 속에서 성장하는 시간들이었길 바랍니다.

담임 교사 조은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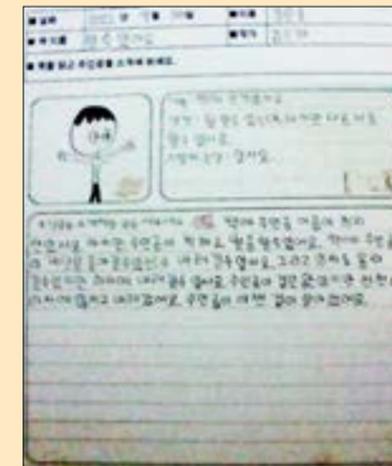
보조 교사 전이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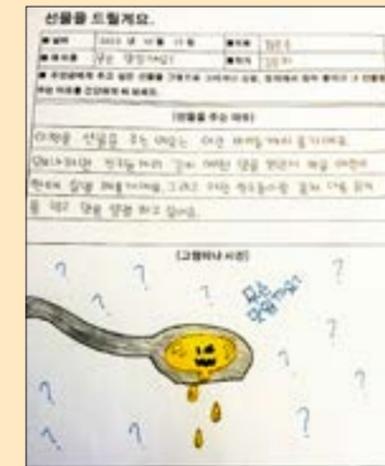
# 믿음반



김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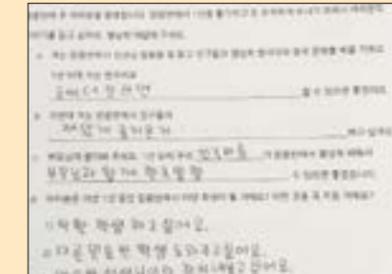
[ 독서 감상문 ]



[ 독서 감상문 ]



[ 독도 안용복 삼각책 ]



[ 새학년도 다짐 ]

<p>은수의 자서전</p>	<p>나의 나의 기록</p>	<p>나의 나의 기록</p>	<p>나의 나의 기록</p>
<p>나의 나의 기록</p>	<p>나의 나의 기록</p>	<p>나의 나의 기록</p>	<p>나의 나의 기록</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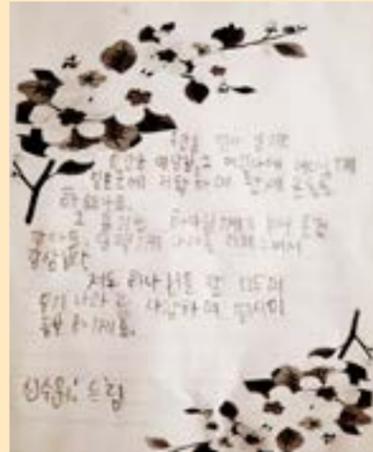
[ 김은수 자서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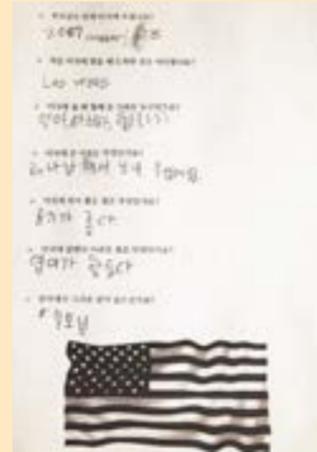
[ 시화 ] 저는요



신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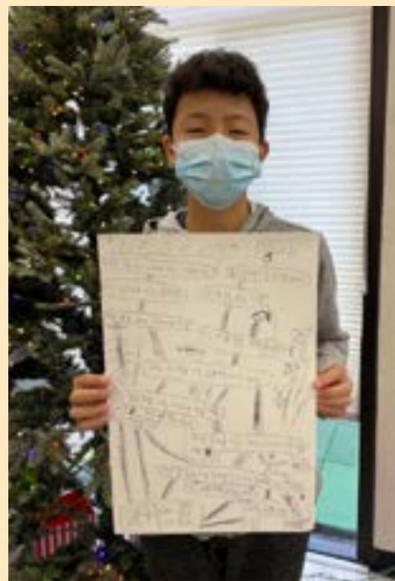
[ 유관순 열사께 드리는 편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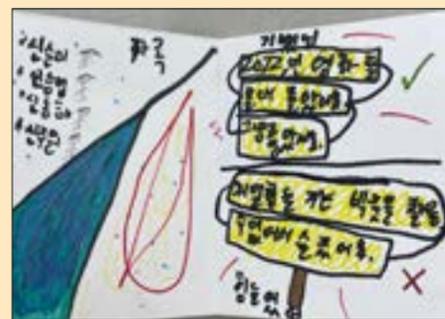
[ 부모님 인터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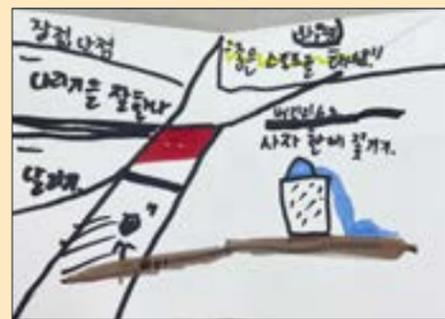
[ 독도 안용복 삼각책 ]



[ 시화 ] 저는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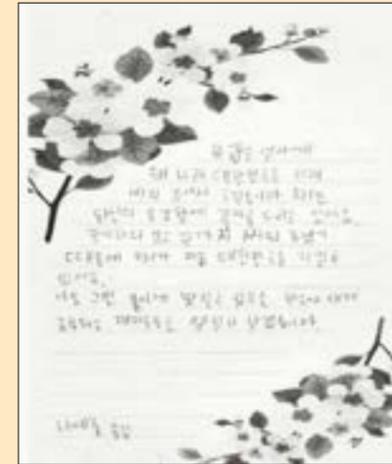
[ 신주원 자서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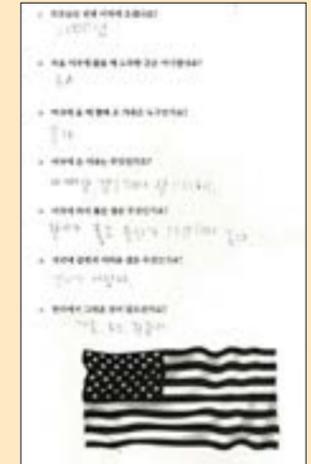
[ 신주원 자서전 ]



나예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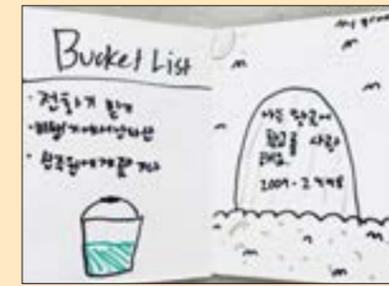
[ 유관순 열사께 드리는 편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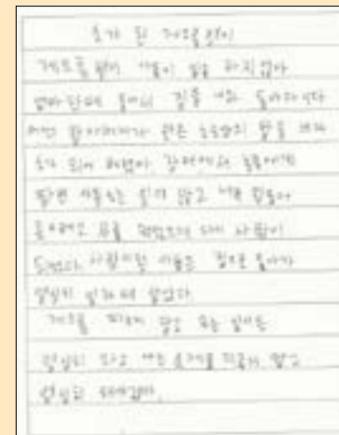
[ 부모님 인터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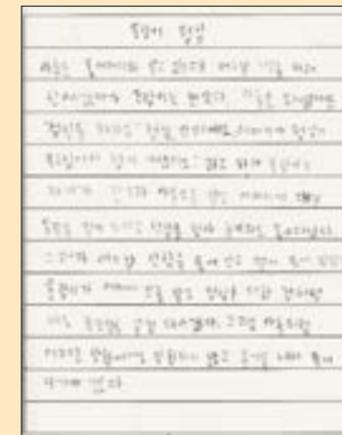
[ 독도 안용복 삼각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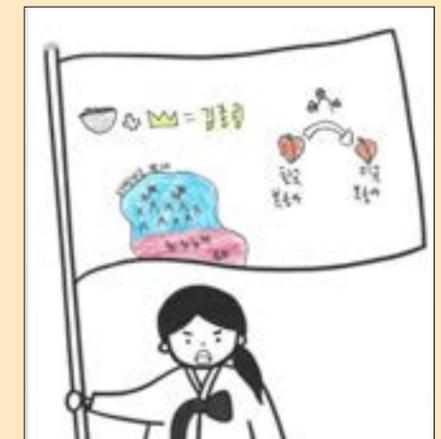
[ 나예준 자서전 ]



[ 독서감상문 ]



[ 독서감상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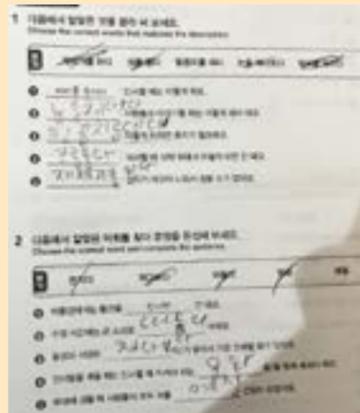
[ 독립 운동 깃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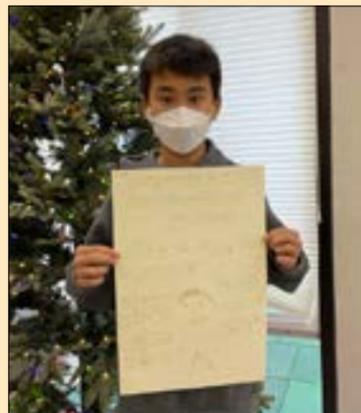
장 시 은



[ 독도 안용복 삼각책 ]



[ 문장 만들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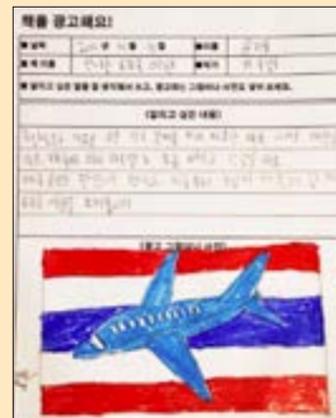
[ 시화 ] 저는요



윤 지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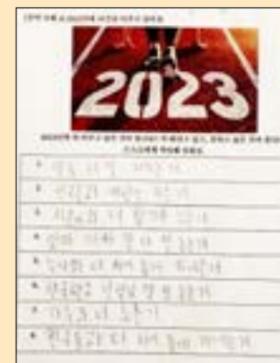
[ 독립 운동 깃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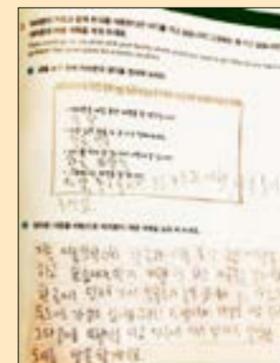
[ 독서감상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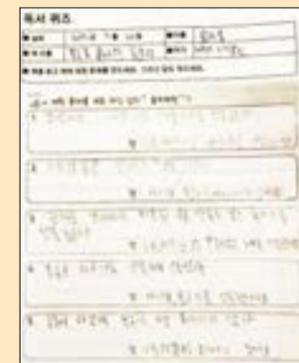
[ 독도 안용복 삼각책 ]



[ 2023년에 이루고 싶은 것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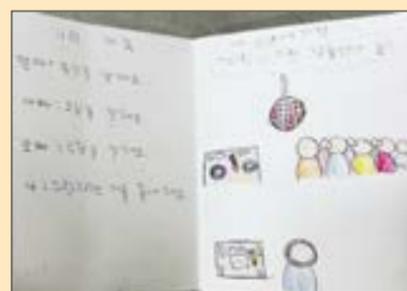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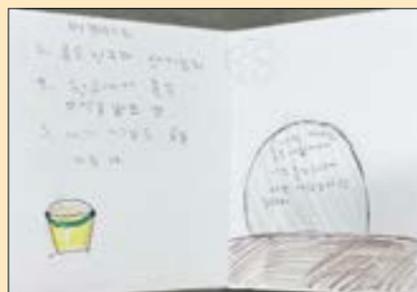
[ 여름 계획 세우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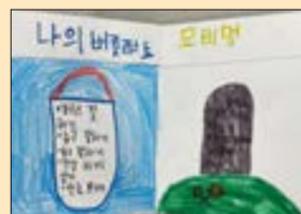
[ 독서감상문 ]



윤 지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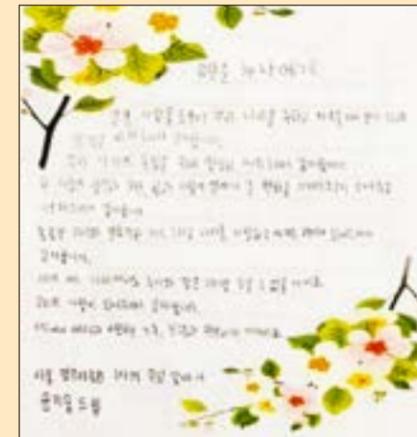
[ 윤지우 자서전 ]



[ 윤지웅 자서전 ]



[ 시화 ] 저는요



[ 유관순 열사께 드리는 편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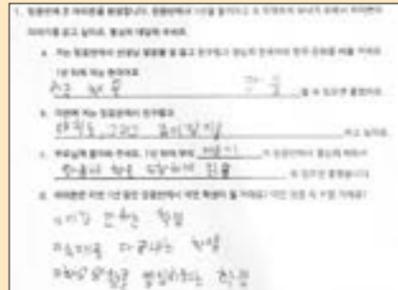
윤재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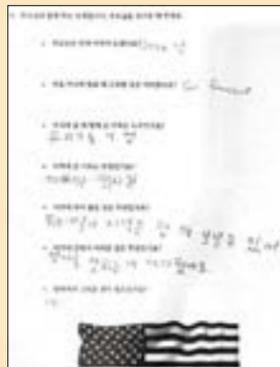
[ 유관순 열사께 드리는 편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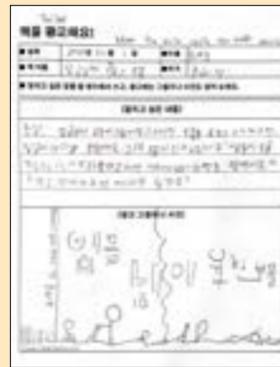
[ 겨울방학 숙제 ] 요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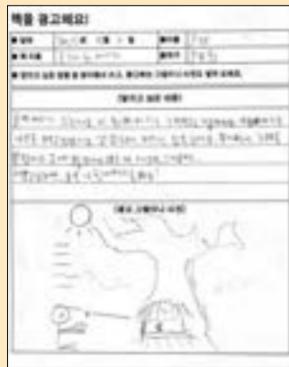
[ 새학년 다짐 ]



[ 부모님 인터뷰 ]



[ 독서감상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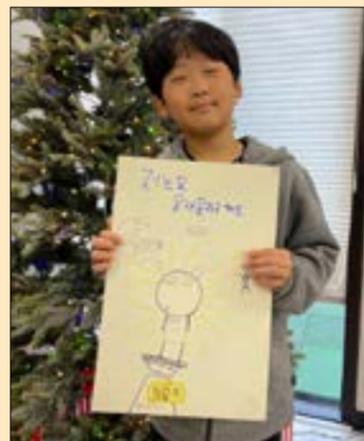
[ 독서감상문 ]



[ 윤재윤 자서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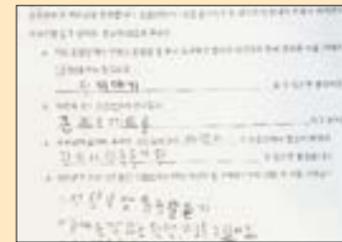
[ 시화 ] 저는요



안아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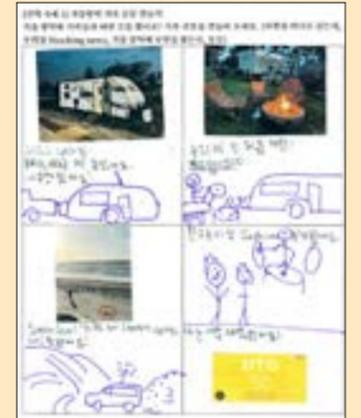
[ 독도 안용복 삼각책 ]



[ 새학년 다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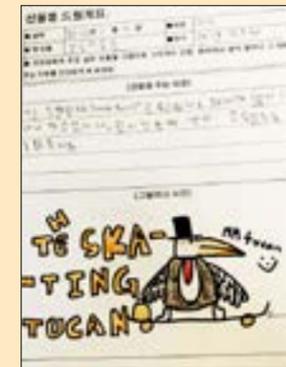
[ 독립 운동 깃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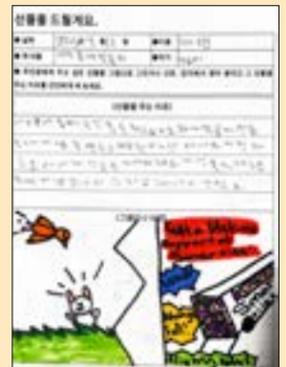
[ 가족신문 만들기 ]



[ 독서감상문 ]



[ 독서감상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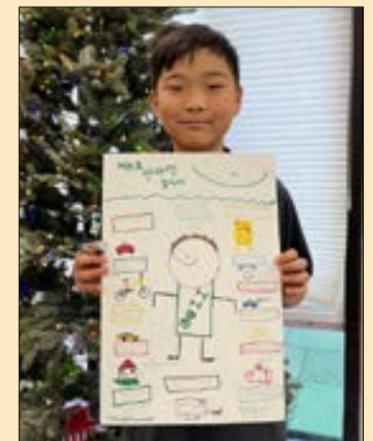
[ 독서감상문 ]



[ 안아민 자서전 ]



[ 시화 ] 저는요





이준



[ 독도 안용복 삼각책 ]



[ 새학기 다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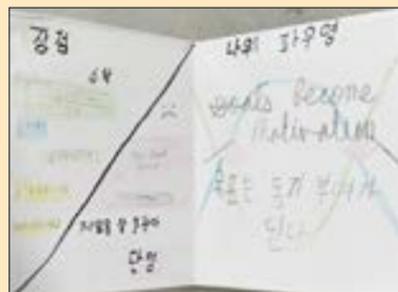
[ 2022년에 잘하게 된 것 ]



[ 2023년에 이루고 싶은 것 ]



[ 부모님 인터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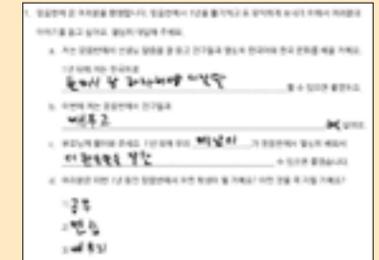
[ 이준 자서전 ]



송예담



[ 독도 안용복 삼각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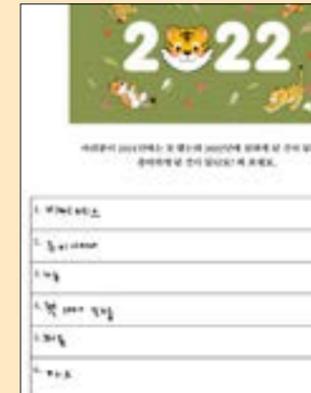
[ 새학기 다짐 ]



[ 시화 ] 저는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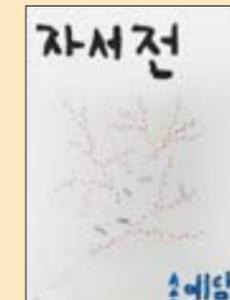
[ 독립 운동 깃발 ]



[ 2022년에 잘하게 된 것 ]



[ 부모님 인터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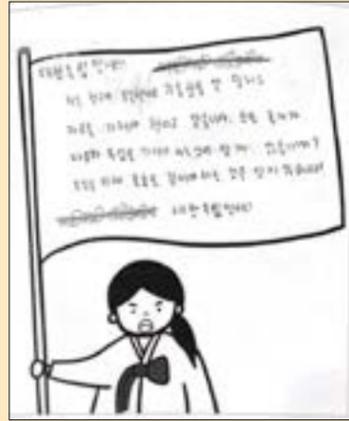


[ 송예담 자서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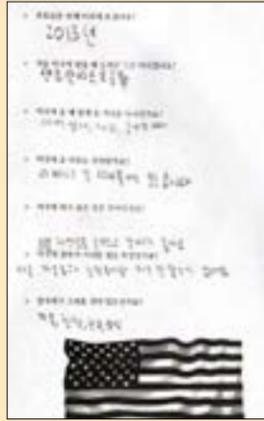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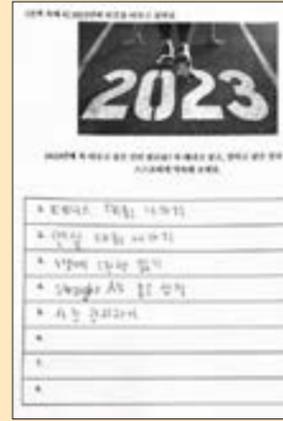
박채린



[ 독립 운동 깃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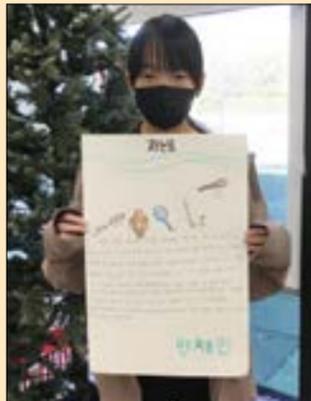
[ 부모님 인터뷰 ]



[ 2023년에 잘하고 싶은 것 ]



[ 독도 안용복 삼각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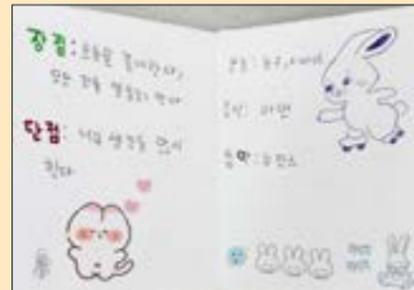
[ 시화 ] 저는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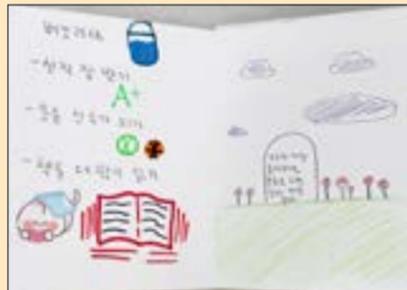
[ 독후감상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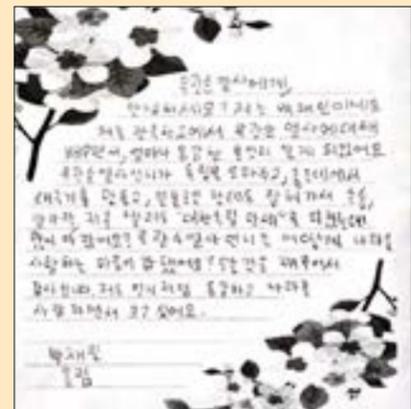
[ 가족신문 만들기 ]



[ 박채린 자서전 ]



[ 유관순 열사에게 드리는 편지 ]



조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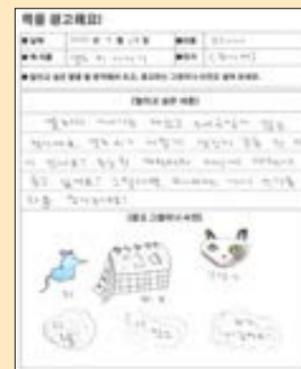
[ 독립 운동 깃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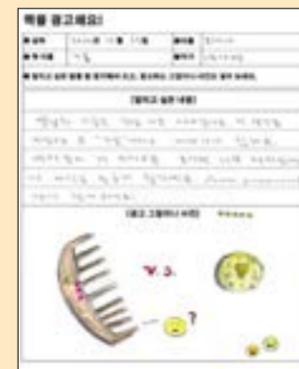
[ 겨울방학 숙제 ] 요리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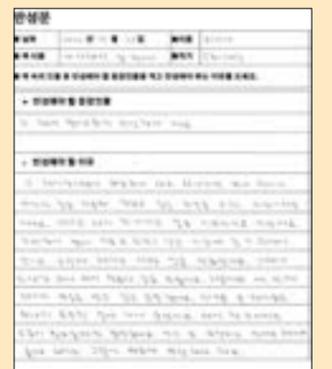
[ 독서감상문 ]



[ 독서감상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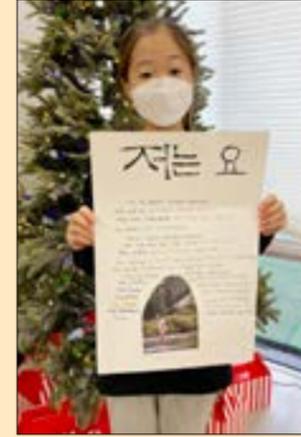
[ 독서감상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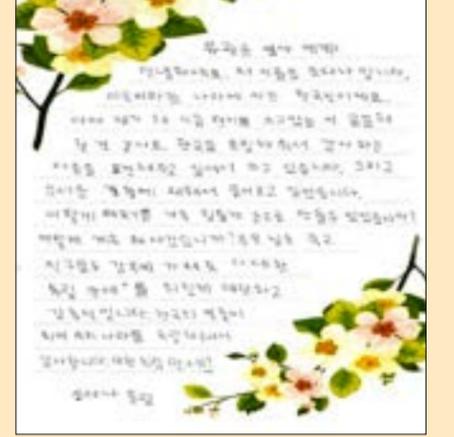
[ 독서감상문 ]



[ 조다나 자서전 ]



[ 시화 ] 저는요



[ 유관순 열사에게 드리는 편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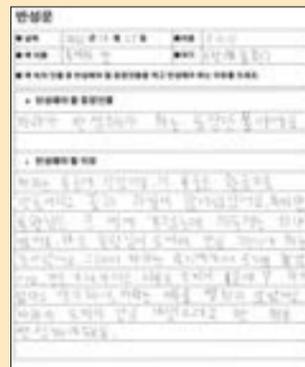
조새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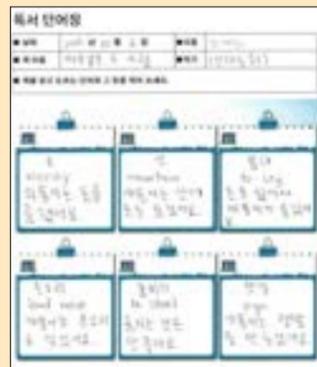
[ 조새린 자서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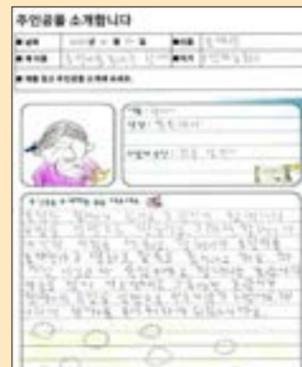
[ 독도 안용복 삼각책 ]



[ 독서감상문 ]



[ 독서감상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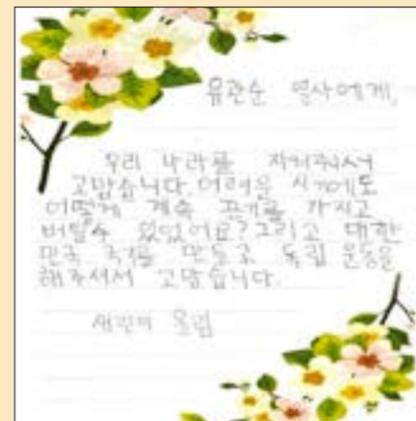
[ 독서감상문 ]



[ 독립 운동 깃발 ]



[ 겨울방학 숙제 ] 요리 만들기



[ 유관순 열사께 드리는 편지 ]



설날 행사



수업시간



한식의 날 수업



개교 19주년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



나만의 바인더 꾸미기

민음반  
활동사진  
모음

특강 · 특별활동 · 수업시간의 모습들



열매반

시간을 반으로 접으면 그 가운데 사진이 있어요. 사진 속에는 우리들의 이야기와 사진 속 순간에 함께 나눈 마음들이 들려지고 생각나고 전해져요. 지난 일 년의 열매반 파노라마들이 저의 전화기 사진첩에 가득해요. 전화 앨범 속의 사진들을 정리하며 사진 속에 있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때론 경이롭고 때론 흐뭇하게 바라보며 그 순간을 포착해준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해요. 열매반에서 그 누군가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열매반의 시간들을 더욱 빛나도록 섬겨준 뽀뽀 보조교사가 함께 해서 참 고마웠어요. 동역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통하는 눈빛으로, 날렵한 손과 발로,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는 것임을 느끼게 해 준 동역자요 열매반 학생들의 롤모델이 되어줘서 든든했어요. 그렇게 기록된 열매반 학생들의 열매를 바라보며 열매반 특기인 시로 지난 일 년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담임 교사 박은경



보조 교사 박보비

다송 나무에 아홉 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따뜻하고 용기 주는 관계를 맺는 지유의 사랑 열매  
즐겁고 에너지 가득한 지윤이의 기쁨 열매  
낭만적이며 평화롭게 중재하는 아라의 화평 열매  
묵묵히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완주한 태양이의 인내 열매  
한결같은 성실로 섬김이 몸에 배인 뽀뽀생의 자비 열매  
올바름과 너그러움에 유머 가득한 준우의 양선 열매  
약속을 잘 지키고 믿음을 주는 민건이의 충성 열매  
자비로우며 내면에 큰 열정을 가진 소은이의 온유 열매  
자발적으로 하고,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 줄 아는 하진이의 절제 열매  
여름동안 더욱 영글어 색과 맛과 향기가 더욱 진해지기를 바라요!  
담임 교사 박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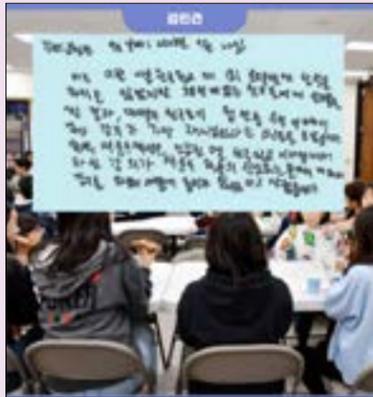
김민건

**이탈리아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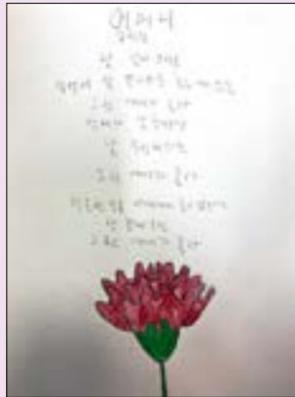
제가 소개하는 나라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의 문화 상징은 콜로세움입니다. 제가 콜로세움이 이탈리아의 문화 상징이라고 한 이유는 이탈리아 하면 피자, 파스타, 피사의 사탑, 그리고 콜로세움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탈리아의 국기가 가지고 있는 뜻은 초록은 희망, 하양은 신뢰를, 그리고 빨강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동물은 늑대입니다. 늑대가 이탈리아의 동물인 이유는 로마를 세운 두 형제가 아기 때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신화가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인물**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안중근입니다. 안중근은 황해도 해주목 영동방 청풍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안중근은 어린 시절 '안응칠'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야 그의 할아버지께서 중근이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합니다. 안중근은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고 합니다. 안중근은 32세의 젊은 나이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안중근 의사의 인생의 목표는 일제의 지배에서 우리 나라가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는 이유는 안중근 의사께서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는 점에서 안중근 의사를 존경합니다. 저는 제6회 안중근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것이 저와 안중근 의사와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 다솜 토크콘서트 카드 뉴스 ]



[ 시화 ] 어머니



[ 사랑의 우체통 ]



남소은

**12살의 여름방학 "내가 어떻게 엔진이 되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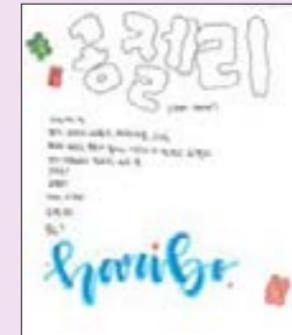
저는 이번 여름방학에 한국을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5년 동안 못갔지만 이번에 갈 수 있어서 엄마랑 언니랑 두 달 동안 한국에 있었어요. 두 달 동안 한국에서 제일 기억나는 거는 <뮤직뱅크>를 갔던 일이었어요. 뮤직뱅크는 한국에서 제일 인기있는 K-POP 노래 음악 방송이에요. 뮤직뱅크에는 일주일마다 제일 뜨는 노래 또는 아이들을 인터뷰하고 공연하는 방송이에요. 뮤직뱅크 Anniversary Concert에 가려면 500명만 뽑히는 티켓팅을 해야 돼요. 하지만 저희 이모 할머니의 아는 사람이 뮤직뱅크 PD여서 저희는 티켓팅 없이 뮤직뱅크에 갈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티켓에 15살 미만이면 못 들어간다고 써 있어서 아주 떨렸어요. 하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티켓만 체크하고 후다닥 들어갔어요. 다행이다 했는데 갑자기 뒤에 있는 사람이 사진 찍다가 걸려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퇴장을 당했어요. 다시 두리번거리니까 누가 핸드폰만 보면 경호원이 쫓아 봤어요. 무서웠지만 방송은 아주 재미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룹은 안 나왔지만 ENHYPEN 이 나왔어요. 그리고 ENHYPEN 멤버 중에 성훈님이 저한테 하트를 날려 주셔서 그 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ENHYPEN을 사랑하는 엔진이 되었습니다.

**2과 여회를 사용한 글쓰기**

오늘은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아브라함 링컨 메모리얼은 미국에서 역사적인 장소 중 하나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흑인도 아닌 백인 대통령이 흑인과 백인의 사이에서 평화를 상징했다고 할 수 있어요. 흑인들도 백인들처럼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해석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애국심이 생겼어요. 링컨 메모리얼에는 아브라함 링컨의 동상이 있어요. 생동감이 느껴지도록 잘 만들어진 동상이에요. 다음은 미국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 할게요. 미국 학교에는 까마귀 또는 비둘기가 많이 있어요. 한국 학교와 미국 학교랑 비교하면 참 많은 것이 달라요.



[ 다솜 토크콘서트 카드 뉴스 ]



[ 시화 ] 곰젤리



[ 태극문양 독도 ]



박준우

**내 13살의 여름방학**

저는 이번 여름방학에 삼촌 가족이랑 비발디파크에 다녀왔습니다. 차를 타고 수원에서 홍천으로 가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은 애완견이랑 같이 잘 수 있는 곳이라서 방, 화장실, 복도까지 어두웠습니다. 개의 시력을 위해서입니다. 지하에는 개랑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식당과 게임장도 있고 1층에는 개가 뛰어놀 수 있는 파크가 따로 있어서 삼촌네 강아지와 같이 놀았습니다. 사촌들과 같이 튜브도 타고 파도 풀에서도 놀았습니다. 발바닥도 까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줄이 길고 더웠지만 다시 가고 싶은 곳입니다. 이번 여행을 위해 삼촌과 숙모는 회사에서 휴가를 내셨고, 사촌들은 학교를 결석했습니다. 다음에 사촌 가족이 미국에 오면 저도 학교를 결석하고 싶습니다.

**미국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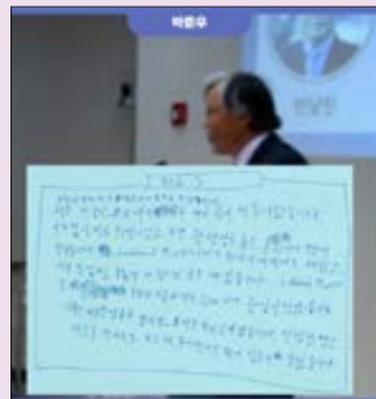
제가 소개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 국기는 빨간색과 하얀색, 파란색이 있습니다. 하얀색은 청정을 뜻하고, 빨간색은 강인함과 용기를 뜻합니다. 국기 안에는 13개의 빨간색과 하얀색 줄이 있고, 50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50개의 별은 50개의 주들을 상징하고, 13개의 줄은 독립선언 때 13개의 주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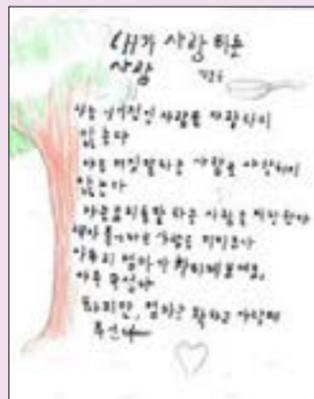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저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미팅이 많아서 바쁘시지만 저에게 매주 수학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는 수학을 참 잘하십니다. 아버지와 저는 관심있는 것들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저를 위해 지원해 주십니다. 저는 아빠의 성격과 지식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습니다.

**나의 적성과 진로**

저는 관심있는 것들에 집중을 잘합니다. 제가 관심있는 것은 컴퓨터와 그림 그리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정확하게 어떤 직업을 가질지 아직 잘 모르지만 컴퓨터나 엔지니어링, 디지털 디자인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하여 앉아 있고 논리적이며 내성적인 제 성격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학교 성적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수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또 컴퓨터를 하면서 게임에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 다숨 토크콘서트 카드 뉴스 ]



[ 시화 ] 내가 사랑하는 사람



[ 사랑의 우체통 ]



안아라

**내 13살의 여름방학**

여름방학 때 한국에서 엄마와 함께 자우림 25주년 콘서트에 갔다. 처음에는 자우림이 누군지 몰라서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표가 비싸고 엄마가 너무 신나 보여서 갔다.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우리는 서울에 있는 삼촌 집에 머물렀다. 콘서트는 7월 2일에 있었는데 지하철을 타고 조금만 가면 됐다. 삼촌은 우리를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고 가셨고 엄마랑 나는 지하철을 타고 콘서트가 열리는 서울 올림픽 공원으로 향했다. 같은 날에 또 다른 콘서트가 열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자리마다 “영원히 자우림”이라고 쓰여진 종이가 있었다. 자우림의 25주년을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좋아하는 게임인 ‘앙상블 스타즈! 뮤직크’를 하면서 기다렸다. 콘서트 가기 전에 엄마는 자우림이 데뷔할 때부터 팬이었다고 하셨다. 그 때 엄마는 내 나이랑 비슷했다고 했다. 엄마가 정말 좋아하는 두 개의 노래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 노래 밖에 알지 못했다. 콘서트 내내 ‘와! 저 여자 노래 정말 잘한다. 나도 그렇게 노래하고 싶다!’ 라고 생각했다. 콘서트를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엄마의 모습이었다. 나는 엄마가 정말 신났다는 걸 알았지만 훨씬 더 신나 보였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좋았다. 콘서트가 끝나고 나오니 어두워져 있었다. 삼촌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편의점에서 먹고 싶어졌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진라면이 먹고 싶었다. 그런데 GS 25에는 진라면이 없었다. 한국에서 밤에 편의점에 앉아 라면을 먹다니... 너무 신기했다. 첫 콘서트인 자우림 콘서트는 나에게 큰 임팩트가 된 것 같다. 언젠가는 나도 김윤아처럼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노래를 더 잘 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했고, 그동안 모르던 엄마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다. 그리고 이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어 엄마의 즐거워하는 (자우림 25주년 콘서트)는 이번 여름방학 때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다.

**바자회 스케치**

2022년 10월15일 산호세 한인장로교회에서 선교 바자회가 열렸어요. 먹을거리와 볼거리가 많았어요. 바자회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준비했어요. 어른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유스 그룹에서는 포스터와 과일과 디저트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각자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도네이션했어요. 음식이나 물건들을 팔아서 생기는 수입은 모두 선교지에 전달했어요. 이 날 아침부터 테이블을 세팅하고 음식을 만드느라 많이 분주했어요.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온 것 같아요. 다솜한국학교 학생들도 밖으로 나와서 바자회에 참여했어요. 학생들은 미리 준비한 돈으로 음식과 물건을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한 사물놀이 공연을 보며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바자회에서 많이 구경 못했는데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존경하는 인물**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조이 언니입니다. 조이 언니는 교회에서 만났고 10학년이예요. 제가 언니를 존경하는 이유는 언니가 ‘한 줄기 햇살’ 같기 때문이에요. 조이 언니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어떤 활동이든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해요. 그리고 정말 친절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기꺼이 도와줘요. 또 노래를 정말 잘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갔던 교회 수련회에서 언니의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언니처럼 노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찬양을 더 부르고, 구절을 암송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해 줘요. 이런 이유로 조이 언니는 저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 가족신문 ] 안패밀리 신문



[ 다숨 토크콘서트 카드 뉴스 ]



[ 시화 ] 내 마음속의 이야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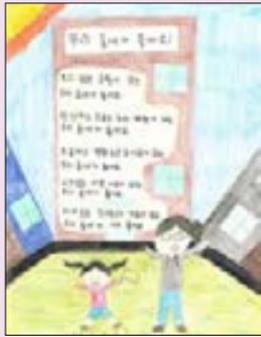
[ 시화 ] 어머니 날



윤지유

**내 12살의 여름방학**

저의 12살 여름방학은 한국에서 보냈어요. 11년만에 한국에 가게 되어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한국에 도착하고 삼일 뒤에 가족이 모두 코로나에 걸려서 2주동안 집안에서만 지내는 게 정말 답답하고 심심했어요. 하지만 할머니 댁에 있는 TV를 보면서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코로나에서 다 회복된 다음에 한국의 여러 곳을 다녔어요. 차로 다니면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많이 갔었는데 그 곳은 신기하고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이 가득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하면 제일 먼저 '소떡소떡'이 생각나요. 집에서 만들어 먹었던 소떡소떡하고는 맛이 달랐어요. 같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쫄깃쫄깃한 떡 맛이 너무 좋았고 한국 소시지가 미국 소시지보다 더 맛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갔었던 휴게소 중에 이름이 재미있는 곳도 있었어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사시는 창원에 갈 때 들었던 남성주 참의 휴게소예요. 이런 휴게소들은 그 지역 특산물의 이름을 사용한 것이라고 부모님이 알려주셨어요. 한국에 이런 이름을 가진 휴게소가 여러 곳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특산물 이름을 딴 휴게소를 찾아보니가 천안 호두 휴게소, 정안 알밤 휴게소, 송산 포도 휴게소가 있었어요. 여러 휴게소 중에 저에게 아주 특별했던 곳은 경기도에 있는 덕평 자연 휴게소예요. 이 휴게소는 별빛 정원 우주(일루미네이션 파크)가 아주 유명해요. 저희 가족은 친구 가족과 함께 밤에 가서 예쁜 조명 쇼도 보고 초대형 체스 게임도 하고 맛있는 차도 마셨어요. 이 곳의 제일 인기있는 음식은 소고기 국밥인데 저희가 갔을 때는 식당이 닫아서 이 음식을 먹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친구 가족과 함께 멋진 곳에서 시간을 보낸 것이 가장 특별하고 좋았어요. 이렇게 신기하고 재미있고 맛있는 음식들이 있는 휴게소들을 많이 다녔지만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보낸 시간이 가장 소중한 행복하다는 걸 알았어요. 휴게소에서 먹었던 소떡소떡도 맛있었지만 할머니와 외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음식들이 제일 맛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자주 볼 수 없었고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슬펐는데 한국에 와서 이것을 실천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가장 소중한 경험과 선물이었어요.



[ 시화 ] 우리 동네가 좋아요

**중국을 소개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국기는 빨간색 바탕에 별 5개가 있어요. 빨간색 바탕은 중국 사회주의 혁명을 상징하고, 5개의 별은 국민들의 통합을 가리켜요. 중국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유적이기 때문에 만리장성이 중국의 문화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만리장성은 오래 전에 지어졌고, 만드는 데 2,000년 이상이 걸렸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만든 만리장성의 길이는 21,196.18km이에요. 역사적으로 공격하는 다른 나라를 막고, 중국 사람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 까 중국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문화 상징이 되었어요. 중국을 대표하는 동물은 자이언트 판다예요. 자이언트 판다는 흰색과 검정색 털이 있는 곰이에요. 이 판다들은 중국 남서부 대나무 숲에 살고 있고, 대나무만 먹어요. 자이언트 판다는 중국의 국보이고, 용기, 평화, 행운, 그리고 힘을 상징한다고 해요.

**존경하는 인물**

제가 존경하는 인물은 유관순 열사예요. 한국학교 선생님들이 3.1운동을 가르쳐 주셨을 때, 처음으로 유관순 열사에 대해 들었어요. 유관순 열사가 한국을 위해 한 일을 배우면서 흥미로웠고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일본이 우리 나라를 빼앗았을 때,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독립을 위해 독립운동을 했어요.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많았어요. 가족을 잃었고, 몸을 다쳤고, 목숨을 잃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 싸웠어요. 그 중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는 만세 운동이 있었어요. 이 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 16살 여학생 유관순이 있었어요. 유관순은 리더십이 있었고 용기가 많았어요. 유관순은 나라를 잃어버린 슬픈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독립운동을 같이 하자고 말했고 앞장서서 만세 운동을 시작했어요. 유관순은 만세 운동을 하면서 부모님과 친구들을 잃었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의 생활은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그렇지만 유관순 열사는 독립운동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감옥에서 한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유관순 열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끝까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용기와 리더십을 존경해요. 저도 유관순 열사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싶어요.



[ 시화 ] 엄마! 고맙습니다



[ 다솜 토크콘서트 카드 뉴스 ]



[ 가족신문 ] 유터랜드



[ 사랑의 우체통 ]



오태양

**나의 성격유형**

저는 앞에 나서기보다 조용한 성격입니다. 좋고 싫은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저는 컴퓨터나 표, 그래프, 그림으로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긴 설명보다 간단한 말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 다솜 토크콘서트 카드 뉴스 ]



[ 어머니날 카드 ]



[ 사랑의 우체통 ]

### 내 12살의 여름방학

7월 24일 처음으로 K-POP 콘서트에 갔어요. 교회가 끝난 후, 소은이랑 1시간 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갔어요. 저는 그날 밤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전소연을 본다는 것이 너무 설렐었어요. 호텔에 도착한 후, 우영우 드라마를 보다가 호텔에서 주스를 마시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저녁을 먹고 콘서트장에 갔다. 나는 너무 설레서 자리에서 광광 점프하고 있었어요. 여자 아이들이 왔을 때 너무 예뻐서 울 뻔했어요. 민니, 미연, 소연, 우기, 슈화가 뿔뿔처럼 너무 아름다웠다. 저는 목이 없어질 정도로 노래를 불렀어요. 마지막에 가까이 가서 소연이를 봤어요. 저를 보고 손을 흔들어줘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콘서트가 끝난 후, 목이 나가서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만들었어요. 다음에도 여자 아이들을 꼭 만나고 싶어요.

### 바자회 스케치

10월 15일 교회에서 바자회가 있었어요. 저는 맛있는 음식 때문에 기분이 좋았어요. 수업 시간 동안 다리 떨며 잔치국수, 어묵, 떡볶이, 솜사탕을 상상해요. 선생님이 쉬는 시간이라고 말한 뒤, 저는 후다닥 날아가서 지윤이의 바자회 먹방을 시작해요. 먼저 언니 오빠들 사물놀이 공연을 봐요. 너무 멋졌어요! 그리고 잔치국수를 먹어요. 김, 계란, 김치가 들어간 국수가 너무 따뜻해요. 쫄쫄깃한 어묵도 먹고, 김밥 한 개 뺏어 먹고, 달달한 솜사탕을 먹어요. 나중에 주스도 마시고 와플이랑 어묵도 먹었어요. 유스 부스에서 과일 컵이 잘 안 팔려서 전도사님이 음식을 드시는 분들에게 과일을 팔라고 하셨어요. 저는 달리면서 큰 소리로 "과일 팔아요! 한 컵에 5불입니다"라고 외쳤어요. 거스름돈, 포크 가지러 많이 왔다 갔다 해서 힘들었어요. '유스 배달'도 만들었는데 와플을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배달을 하는 서비스를 했어요. 와플이 인기가 많아져서 한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와플을 다 팔고 나니 \$500을 만들었어요. 저는 뛰면서 소리를 질러서 목이랑 다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서 기뻐합니다!  
-지윤 먹방 ^-^



윤지윤

### 14살이 된 여름방학

저는 이번 여름방학 때 한국을 방문했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에 많은 곳에 가봤어요. 가본 곳들 중에 기억에 남는 곳들은 서울숲, 한강,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코엑스 스타필드몰, 롯데월드, 그리고 홍대입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 친구들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제 중학교 후배랑 제 친구 한 명이랑 롯데월드에 가서 아주 신나게 놀았어요.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롯데월드에서 제일 인기있는 놀이기구를 1시간 가까이 기다려서 탔어요. 그리고 자이로 드롭 외에 있는 드롭 타워를 탔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또 롯데월드에서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인생 네 컷을 찍어봤어요. 또 다른 친구와는 홍대를 갔어요. 홍대에 있는 예쁜 옷이랑 가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다른 친구와도 인생 네 컷을 아주 많이 찍었어요. 재미있게 놀고 있는 중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점심을 먹을 겸 GS 25에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라면을 먹었어요. 라면 이야기가 나온 김에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엄마와 한강에 갔었을 때 2-3시간을 힘겹게 걸은 뒤에 그 유명한 한강변에서 끓여 먹는 라면을 먹었어요. 그 날도 심하게 비가 왔기 때문에 바지도 다 젖었어요. 하지만 비가 와서 오히려 분위기가 있어서 더 좋았어요. 한국에서 친구들과 보낸 시간,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한국을 경험하는 것이 참 즐거웠어요.



장하진

### 존경하는 인물

제가 존경하는 인물은 엘리자베스 블랙웰입니다. 엘리자베스 블랙웰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자 의사입니다. 지금은 여자가 의사가 되는 것이 흔한 일이지만 1800년대 그 때에는 있을 수 없을 일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블랙웰은 영국에서 태어나 이주하여 미국 의과 대학에서 M.D.를 받은 것으로 제일 유명합니다. 그녀는 죽어가는 친구를 보면서 여성 환자의 담당 의사가 여인이었으면 더 잘 보살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의학에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를 의대에 받아주지 않았고, 겨우 입학할 했지만 남녀 차별이 심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1등으로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드디어 의사가 되기는 했지만 1849년 눈에 화학 약품이 들어가는 사고로 한 쪽 눈의 시각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그 뒤에 수술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미국에서 세 번째로 의대를 졸업한 여동생 에밀리와 함께 예방 의학이 중요성을 알리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최초의 간호 학교와 여성 의과 대학도 세웠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서도 의사의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다는 게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런 이유로 지금도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또한 엘리자베스의 업적 때문에 엘리자베스 블랙웰 상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 상을 대단한 업적을 이룬 여인들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저도 의학을 공부하는 것이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 시화 ] 밤과 낮



[ 태극문양 독도 ]



[ 그림 + 캘리그라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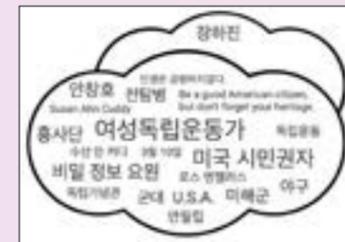
[ 다솜 토크콘서트 카드 뉴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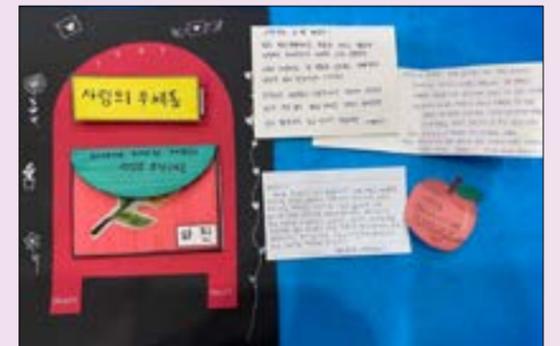
[ 시화 ] 라이언



[ 사랑의 우체통 ]



[ 안수산 단어 구름 ]



[ 사랑의 우체통 ]



[ 다솜 토크콘서트 카드 뉴스 ]



[ 태극문양 독도 ]

열매반  
활동사진  
모음



추석 활동



9월 달력 활동



삼일절 만세 행진



만두 빚기 활동



훈민정음 서문 쓰기 활동



직지 제본 활동



독도의 날 활동



[ 천도복숭아의 꿈 ] 연극 활동

열매반  
활동사진  
모음



추석 보름달



직지 타임라인



주사위 게임 활동



얼굴책 활동



역사문화 율놀이 활동



설날 활동



직지 드라마 촬영



**자랑스러운 졸업생이 되었어요!**



졸업생 오태양

저는 다솜한국학교를 6년 동안 다녔습니다. 한국학교를 다니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행사는 독도의 날과 김치의 날이었습니다. 제가 독도에 대해서 배운 것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 한국의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독도의 자연과 사람들 이야기를 배우는 것이 재미있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재료부터 배우고 다같이 직접 만들어 집에 가져갔던 일이 재미있고 신기했습니다. 저는 특활반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국어 수업보다 더 다양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미술도 배우고 이해는 영상 제작과 편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들 인터뷰도 하고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였습니다. 또 기억나는 것은 송편 만들기, 떡볶이 만들기, 만두 빚기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많은 모양들을 만들어서 새롭고 인상 깊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함께 먹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한국학교에 다니면서 어려웠던 점은 교과서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시험 보는 것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국학교를 다녀서 오늘 졸업하게 되어 기쁩니다. 한국학교를 보내주신 부모님과 6년 동안 가르쳐주신 선생님들께 고맙습니다.



졸업생 장하진

“하진아! 너 엄마랑 언니랑 한국학교 갈래?” 저는 이렇게 엄마랑 언니 따라 한국학교를 시작했어요. 저의 첫 선생님은 김영식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은 저를 아기처럼 사랑해 주시고, 가끔은 제가 어리지만 mature한 사람으로 대해주셔서 제가 큰 언니처럼 대접받는 느낌이 좋았어요. 저는 12년 동안 한국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서도 이정원이라는 친구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정원과 같은 반에 계속 있으면서 공통 경험들을 많이 하였는데 특히 통일 골든벨 대회에 함께 나갔던 즐거운 추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엄청 큰 공원에서 백일장 대회와 소풍, 운동회를 하루 종일 했을 때가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또YKAA 여름 캠프로 Angel Island에 배 타고 함께 갔던 기억, San Francisco에서 열린 조선왕실 잔치 전시회 등 Field

Trip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저는 한국학교를 오래 다니게 되면서 교과서 공부가 반복되어 조금은 지루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역사문화 수업은 늘 새롭고 재미있었어요. 같은 주제를 배워도 또 새로웠어요. 그래도 계속 배우니 이제는 이야기가 연결되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자신감을 얻었어요. 독도, 직지, 독립운동가, 재미 한인 역사 인물들에 대해 배운 내용들은 정말 중요하고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학교를 통해 정말 많은 도전을 하였어요. 글쓰기 대회, 동화구연대회, 프로젝트 대회, 창작 공모전 등 여러 대회에 나가 어떤 것은 큰 상을 받기도 하고, 어떤 것은 참가상을 받기도 하였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안해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배우고 절대 잊을 수 없는 내 것이 된 것 같아 너무 감사해요. 어려운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교장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해요.

저의 특활반은 사물놀이반이었어요. 사물놀이는 제가 정말 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사물놀이를 연주하는 언니 오빠들이 멋있어 보여서 가장 어린 나이에 들어가서 배웠어요. 사물놀이반을 만드신 원종은 선생님께서 직접 배우고, 사물놀이반 1세대 언니 오빠들과 계속 함께 하다 보니 어느새 지금은 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어 더욱 의미있는 특별활동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학교 생활을 정리하다보니 다솜한국학교는 미국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는 저에게 작은 한국이었고, 저는 한국을 미국에 심는 작은 꿈나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다솜한국학교에서 즐겁게 배우고 두려움 없이 도전하여 졸업할 때 저보다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 한국인이라는 자신감과 긍지를 갖게 한 다솜 한국학교

글\_ 박윤희 (졸업생 오태양 어머니)



안녕하세요? 2023년 다솜한국학교 졸업생 오태양 엄마 박윤희입니다. 태양이가 벌써 한국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어디로 보낼 지 몰라 고민하던 중 언니의 소개로 다솜한국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냥 다른 한국학교처럼 한글공부만 하는 줄 알았는데, 다솜한국학교는 제 생각과 달리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정체성을 배우면서 집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6년을 다니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선생님들의 격려와 사랑으로 태양이가 무사히 졸업할 수 있

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갑작스러운 코비드 사태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 보조교사들께서 빠른 대처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노고와 열정을 보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필요한 재료나 교재가 있으면 각 가정에 하나하나 전달해 주시고 아이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집중하기도 힘들고 수업 자체가 어렵지만 그래도 열정적으로 진행하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태양이가 부족한 부분도 많아서 과제나 숙제를 못하고 가는 날이 많아서 죄송했지만, 그래도 선생님께서 끝까지 마칠 수 있게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졸업을 앞둔 태양이에게 다솜한국학교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어떤 건지 물어보았습니다. 한국의 명절에 관해 배울 때가 제일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명절마다 무엇을 먹고 왜 먹는지 배우고, 또 음식을 만들고 직접 먹었던 것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해마다 명절엔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을 챙겨 주게 됐습니다.

다솜 한국학교는 한글만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체험과 문화와 정체성의 중요함을 일깨워 주면서 이 미국에서 한국인이라는 자신감과 긍지와 자존감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태양이도 이전 선생님들에게 받았던 사랑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보조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태양아! 졸업 축하하고 마지막까지 다솜한국학교를 잘 다녀줘서 고마워.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교사 같은 엄마, 엄마 같은 교사

글\_ 박은경 (졸업생 장하진 어머니)

하진이 한국학교를 졸업하던 날, “졸업생들, 입장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저의 음성은 가느다란 떨림과 울컥하는 목메임에 잠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오랜 시간 다솜에서 졸업반을 담임하고 있는 저에게 졸업식은 늘 감동과 기쁨을 선사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눈물이 차올라 당황스러운 때가 여러 번 있어서 살짝 긴장되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올해는 졸업식을 시작도 하기 전인 입장 때 목 소리가 잠기고 흔들리다니 감기 때문인지 감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급히 추스려야 했지요. 극한 직업 엄마 교사입니다.

하진이 지난 12년, 정확히는 11.5년이라는 최장 재학 기록을 세우며 다솜을 졸업하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하는 하진이 때문에 지치고 어렵기도 했지만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어와 역사문화를 재미있게 배우는 하진이 덕분에 매주 꿈꾸고 성장할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한 기억들이 가득하니까요. 미국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다닌 학교가 한국학교였던 하진이는 공동체 생활을 다솜에서 시작한 것이지요. 한국학교 첫 행사였던 추석 활동에서 직접 송편을 만들어 먹었으니 얼마나 재미있고 수준높은 교육을 받았는지요. 아이가 즐거워하는 것만으로도 해방감을 느낀 불량 엄마는 상급반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한 주간 준비한 수업 보따리를 풀며 육아를 잊고 교육을 시작했지요. 그렇게 일 년이 지나면 한글을 떼고, 또 그렇게 일 년을 보내면 책을 읽고, 한 해 지나 글을 쓰고, 또 역사 문화를 배우가는데 하진이는 과제를 혼자서 해결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엄마 마음으로는 글씨도 더 예쁘게 쓰고, 내용도 더 풍성하게 하면 좋겠는데 교사 같은 엄마를 허용하지 않아 처음에는 걱정도 되고 서운하기도 하였어요. 하지만 조금 부족하더라도 스스로 성취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일임을 하진이를 통해 배우는 엄마 훈련을 받게 되었지요. 하진이는 또 여러 담임 선생님들을 만나 아주 다양한 감성과 활동들을 경험하며 하고 싶은 것과 되고 싶은 것이 어찌나 시시각각 변하는지 정말 스펙타클한 꿈 이야기들을 펼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도 교사인데 학교 선생님 말씀이 진리인 하진이는 한국학교 수업에서 가정사를 얼마나 소상하게 알리는지 하진이 담임선생님은 우리 집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을 이미 알고 계셔서 깜짝 놀라기도 했지요. 이렇게 한마음 공동체같은 분위기를 아이들을 통해 느낄 수 있었던 따뜻한 추억도 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하진이 우리 반에 왔어요. 그것도 사춘기에 들어선 때 열매반 교실에서 담임교사와 학생으로 만나게 되었으니 절로 기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의 우려와는 달리 하진이는 소리없이 물처럼 학급에 잘 스며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춘기 초입인 하진이 옆에 사춘기 한창인 언니, 그 옆에 사춘기 정점인 오빠, 또 옆에는 사춘기를 막 지난 언니 오빠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열매반에서 4년을 함께 보내니 작년 한 해는 말년 병장의 느낌으로 사춘기 동생들을 즐겁게 해주고자 수업의 아이디어나 분위기를 이끌기도 해서 든든하고 고마운 예비 보조교사 역할을 잘 감당해 주었지요. 하진이는 사자성어나 속담을 즐겨 사용하는데 가끔 경우에 맞지 않게 쓰기도 하지요. 그랬을 때 남편은 “너 한국학교 선생님이 누구야?” 하고 농담을 하곤 해요. 그러면 하진이는 “박은경 선생님이요” 대답하고 웃어요. 그러면 저는 “관찮아, 나는 너의 엄마, 장은경이니까”라며 극한 직업 엄마 교사의 변을 합니다. 이제 한국학교를 졸업하고 배움의 터전에서 섬김과 나눔의 자리로 옮겨 나의 새로운 동역자가 되어 줄 하진이에게 “엄마가 교사라서 하진이도 여러 가지로 수고 많았고, 끝까지 성실하게 마쳐줘서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부족한 저를 교사다운 교사가 되도록 본을 보이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주신 최미영 교장선생님과 김원구 박사님, 오랜 시간 함께 하며 엄마다운 엄마가 되기 위해 삶을 함께 나눠주신 원은경 교감선생님, 하진이의 작은 한국 마을에 예쁜 색채들을 입혀주신 김영식 선생님, 김소연 선생님, 오진화 선생님, 원종은 선생님, 장신복 선생님들과의 귀한 인연과 아름다운 섬김에 마음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려요. 그리고 지나온 길 만큼 앞으로 가야할 길에도 동행해주실 다솜의 차세대 귀한 일꾼 되신 선생님들께도 고마움과 축복의 마음을 전해요.



2023년 개교기념일 백일장 & 그림그리기 대회 우수작

나의 즐거운 여름방학 - 열매반 김민건

저는 지난 여름방학에 가장 즐거웠던 날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인천국제공항에 자리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바나나우유를 먹었을 때가 가장 즐거운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저에게 가장 즐거웠던 이유는 3년동안 이런 편의점 음식을 못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난 3년 동안에도 편의점 음식이 그리기도 했고 없어서 못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른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한국에서 분식을 먹었을 때입니다. 이것 또한 3년동안 제대로 된 분식을 못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에 갔을 때가 저에게 가장 즐거웠던 날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느낌 - 윤지유

- 봄에 첫 꽃이 필 때의 느낌
- 회색 하늘에서 파란 하늘로 바뀌는 느낌
- 친구들과 웃을 때의 느낌
- 생일날에 선물을 여는 느낌
- 한국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는 느낌
- 비올 때 침대에 앉아서 책을 읽는 느낌
- 금요일에 교회에서 만나 노는 느낌
- 체육 시간에 피구를 하는 느낌
- 학교에 가서 친구와 같은 웃을 입을 것을 본 느낌
- 꿈에서 하늘 위로 나는 느낌
- 동물원에 가서 멋진 사자를 보는 느낌
- 엄마가 만드는 미역국을 먹는 느낌
-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느낌
- 밤늦게까지 해리포터 영화를 보는 느낌
- 학교에서 집에 돌아와 감자 칩을 먹는 느낌
-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느낌
- 공원에서 아빠와 동생과 야구를 보는 느낌
-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느낌
- 이 모든 것은 사랑의 느낌

사랑 - 남소은

나는 12년을 살면서 좋은, 따뜻한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보답으로 나도 그 사람들에게 좋고 따뜻한 사랑을 나눴다. 하지만 사랑을 받고 준 과정은 항상 좋지 않은 않다. 거짓된 사랑.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서 차갑고 거짓된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우리도 모르게 혹 지나가는 차가움, 뒤늦게 알아챈 우리의 오해, 거짓된 사랑을 알아채야 될까? 또는 모른 채 넘어가야 될까?

누군가의 상실

사랑하는 사람 또는 사랑하는 것이 사라졌다. 사랑은 이렇게 이해되지 않고 갑작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만든다. 없어지면 많은 생각이 든다. 그 중 하나는 후회. 왜 나는 그 분이 내 눈 앞에 있었을 때 잘못했을까? 왜 나는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놓쳤을까?

설렘

사랑은 표현을 감추고 있다. 그 중 다들 한 번은 느꼈을 느낌은 설렘. 가끔씩은 설렘으로 꼭 차서 잠이 안 오고 또는 학교에서 집중이 안된다. 각자 다들 느끼는 다른 설렘. 이유는 각자 다르다.

나의 사랑이란?

맨날 기억에 남는 추억같은

날 설레게 만들고 기대감을 만들게 한다, 계속 시간이 넘어가는데 그 시간이 각자 다른 느낌으로 사랑을 표현한다.

여름에 친구들과 멀리 조용한 바다를 가든지

가을에 집에 바로 나갈 때 보는 파스칼이든지

겨울에 행복해 보이는 눈사람을 만들든지

봄에 예쁜 꽃을 보든지

사랑은 감정 뿐만이 아니다. 우리 각자 우리가 서로 아는 사람이 있다.



2023년 개교기념일 백일장 & 그림그리기 대회 우수작

사랑 - 안아라

민아, 민아  
나한테 소중한 민아

숨바꼭질도 놀아?  
민아, 맛있는 나뭇잎 있다!

민아, 배고프지?  
언니가 밥을 많이 줄게,  
먹고 싶은 것은 언니가 다 줄게!

사랑하는 민아, 또 숨었니?  
빨리 나와, 어두운 구름이 오고 있어.

민아, 어디 있니?  
언니가 밥을 많이 줄게  
다음에는 같이 놀자!

민아, 아직 숨어 있어?  
나한테 기쁨 주는 동생

이번에는 어디 숨어 있니?  
언니한테 팔짝팔짝 오면  
나뭇잎 많이 줄게!

민아, 자고 있어?  
비가 끝났어. 이제 나와도 돼

민아, 지금 뭐해?  
하나님 옆에서 나뭇잎을 맛있게 먹고 있지?  
민아, 행복하게 있어.



박은경 선생님 - 윤지유

매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입니다. 선생님은 밝은 목소리로 “애들이! 잘 지냈어?” 침대에서 간신히 일어난 저는 선생님 목소리만 들으면 힘이 넘쳐요. 선생님 목소리를 들으면 설렘처럼 당 충전이 되어요. 선생님은 우리가 잘 이해 못할 때 차근차근 설명해줘요. 우리가 재미있게 공부하라고 빙고 게임이나 맞추기 게임, 윗놀이 등등을 힘들게 준비해요. 선생님 게임들은 항상 재미있고, 창의력이 넘쳐요. 우리가 학교를 대표하는 대회를 나갈 때, 밝고 긍정적인 목소리로 “할 수 있어! 너가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연습한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무대를 서렴!” 이 말을 듣고 저는 감동 받았어요. 우와! 이렇게 말을 안 듣는 학생들을 자신의 아들과 딸처럼 소중히 아끼는 선생님이 있어서 저는 박은경 선생님을 많이 존경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선생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느껴요. 박은경 선생님! 열매반을 위해 모든 힘을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봄 - 한동진

봄은 따뜻한 계절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저번 주에 또다시 깨달았습니다. 봄이 되고 비가 안 오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에도 비가 쏟아졌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더 이상 가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비랑 바람이랑 거세게 와서 우산도 못 펼친 날도 있었고, 학교 애들이랑 비를 피하려 온힘으로 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등산을 가거나 그냥 걸어가다 오려고 나가면 작은 강들에 다 물이 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봄은 흔히 “생명” 아니면 “재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봄은 그런 푸르고 밝은 봄의 이미지랑은 달라도 말라 죽어 있던 강에도 평화롭게 흐르는 물의 소리를 듣고 나니 이번 봄은 흔한 푸른 봄보다도 “재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 개교기념일 백일장 & 그림그리기 대회 우수작

사랑 - 장하진

‘사랑’이란 단어는 하루에 수백 번씩 쓰이는 단어지만 그 중에 진심이 담긴 말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런 생각으로 인해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지 고민을 해봤어요. 비록 제 어린 나이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말하기엔 이르지만, 제가 주고 받고 싶은 감정만큼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가족에서 막내로 태어나 어린 나이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마음씨가 착한 언니와 다정한 부모님 덕분에 갖고 싶은 물건이나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은 당연한 듯이 갖고, 했고, 갔습니다. 또한 친구들과도 깊은 애정을 나누었기 때문에 애정은 애정 대로, 사랑은 사랑 대로, 부족함 없이 받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철들기 시작한 저에게는 사랑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 19 이후에 저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가족과도 관계가 흐트러졌습니다. 2021년 8학년 때 다시 대면으로 바뀐다는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다시 친구들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좋았지만 성격이 바뀐 저를 끝내 좋아해 줄 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9학년이 된 제가 2년간의 제 모습을 돌아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22년의 나 - 박뽀뽀

2022년은 ‘첫’이라는 단어가 많은 해였다. 친구들이랑 ‘첫’ 여행, 친구들이랑 ‘첫’ 파티, ‘첫’ 대학교 에세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한 ‘첫’ 영상 통화... ‘새로운’이라는 단어도 많은 해였다.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경험들. 2022년은 나의 가장 중요한 해였던 것 같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많은 것을 배웠다. 대학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도 발견했다. 사람들이랑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한다든지, 수학을 엄청 싫어한다든지, 참을성이 많다든지... 하지만 중요하게 배웠던 건 나 자신에 대해서다. 2021년까지 몰랐던 나의 모습, 2022년에 새롭게 발견한 나의 모습. 나는 생각보다 감정적인 사람이다. MBTI는 ISTP지만 가끔은 ISFP 같다. 잘 울고, 잘 웃고, 잘 짜증내곤 한다. 기분에 따라 행동할 때가 많다. 그 중에서도 제일 새로웠던 나의 모습은 내가 사람을 많이 좋아하는 것이었다. 옛날에는 혼자 있는 걸 선호했다. 내향적인 사람인 만큼 다른 사람들이랑 말을 하는 걸 어려워했다. 하지만 2022년에는 사람들이랑 있는 걸 선호했고, 사람들이랑 말하는 게 좋아졌고 쉬워졌다. 2021년에 내향적이었던 내가 2022년에 외향적인 나로 바뀐 거다. 여러 경험들과 깨달음이 2022년을 2023년을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2023년 개교기념일 백일장 & 그림그리기 대회 우수작

사랑 - 진이현

뇌졸중에 몸을 쓰지 못하는 오빠를 가진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은 30년간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혼자 아무 것도 못하는 오빠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오빠 때문에 여행 같은 건 꿈도 못 꾸고, 항상 경제적으로 빠듯했습니다. 여동생은 오빠가 참 불쌍하다 생각했고, 그것보다 부모님이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의 돌봄 끝에 오빠는 사망했습니다. 여동생은 안쓰러웠지만 내심 이제 부모님이 자유롭게 사할 수 있음에 기뻐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부모님은 누구보다 통곡했습니다. 시간을 잊아가고, 돈을 잊아가고, 자유를 잊아가고, 도로 아무 것도 주지 않았는데 왜 눈물을 흘릴까요? 아마 그 정답은 사랑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봄 - 남하은

그 외롭고 시린 겨울에도 너라는 약속과 함께여서 견딜 수 있었다. 하얗게 내리던 차가운 겨울의 아이도 네가 따뜻하게 품어주었으니 나도 너의 조각들로 가득 채워 주렴. 그러다 네가 지칠 때면 작은 씨앗 하나 떼어다 너의 곁에 심어주겠지. 또 다른 생명을 시작하는 너를 응원하며 깊은 잠에서 일어날 즈음엔 예쁘게 피어나 있겠다.



사랑 - 조다나



다솜의 자람

보조교사들의 이야기



- 하나. 성명 / 다솜에서 얼마 동안 보조교사를 했나요?
- 둘. 지난 일년 동안 담임한 반은 어느 반이고 특별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셋. 2022-2023학년도는 팬데믹이 끝나고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오랜 만에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서 기억나는 일, 어려웠던 일 혹은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 넷. 올해 특별히 기억나는 학교 행사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다섯. 교실에서 보조교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본인의 경험을 예로 들어주세요.
- 여섯. 내년에는 어떤 반 (어린 반, 큰 학생 반 등등) 을 맡고 싶은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일곱. 후배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여덟. 지난 1년 동안 수고하신 선생님과 보조교사께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권민호

- 하나. 권민호 보조교사입니다. 3년동안 보조교사 활동을 했습니다.
- 둘. 지난 1년 동안 충성반을 맡았습니다. 충성반 학생들은 모두 친화력이 좋고 열정이 넘칩니다.
- 셋.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했을 때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 이었지만 이번 학기에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했을 때는 보조교사로서 학생들과 소통도 가능해졌고 수업 도중에 다양한 활동도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학생들이 동시를 쓰는 활동입니다. 온라인 수업이었다면 학생들을 도와 주기 힘들었을 것 같지만 다행히도 대면 수업이어서 학생들 옆에서 주제를 구상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넷. 올해 특별히 기억나는 행사는 바로 개교기념일입니다. 보조교사가 되기 전 학생 때 마지막으로 했던 이 행사를 보조교사로 봉사하는 마지막 학기 때 다시 전교가 뭉쳐서 운동회를 하는게 너무 행복했고 뜻깊었기 때문입니다.
- 다섯. 교실에서 보조교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바로 한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흥미를 키우고 또 또래 나이의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학생들과 선생님을 열심히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린 학생이였을 때 친구들과 보조교사들, 그리고 선생님들 덕분에 한국 역사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더 나아가 백일장 대회와 백범 김구 독후감 대회 등등 다양한 우승을 했고 한번도 들어도 보지 못했던 사물놀이라는 한국의 전통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여섯.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졸업을 하게 됐지만 만약에 다시 보조교사로 봉사를 하게 된다면 큰 학생반을 맡고 싶습니다. 지난 3년동안 꾸준히 어린 반을 맡아왔기 때문에 열매반을 맡으면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 일곱. 비록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꾸준히 한국어와 한국사, 또한 한국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면서 정체성을 더 알아가는 마음가짐으로 공부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 여덟. 모든 보조교사들과 선생님들께 이번 학기도 너무 수고하셨고 꾸준히 열정적으로 가르치시고 지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동진

- 하나. 저는 다솜에서 3년 동안 보조교사를 했습니다.
- 둘. 가장 어린 사랑반을 맡았습니다. 에너지가 많은 반입니다.
- 셋. 저는 오프라인 수업이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이 배우고 노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 넷. 저는 설날행사가 제일 기억납니다. 널뛰기, 투호 등 많은 게임을 해서 재밌었습니다.
- 다섯. 저는 보조교사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일은 어려워하는 학생을 일일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반은 한국말을 많이 안 쓰던 학생이 있어서 제가 수업할 때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주기도 했습니다.
- 여섯.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내년에는 보조교사를 못하지만, 지난 3년을 생각해보면 큰 반 작은 반 둘 다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 일곱. 후배 학생들에게 한국 역사/문화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배울 때는 가끔 힘들거나 어려울 수 있어도, 배우고 나면 보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 여덟.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박보보

- 하나. 저는 박보보입니다. 3년 동안 보조교사를 했습니다.
- 둘. 제가 올해 담임한 반은 열매반입니다. 열매반은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는 반입니다.
- 셋. 온라인 수업보다는 오프라인 수업이 훨씬 좋았습니다. 아이들이랑 얼굴 보면서 수업하고 몸 쓰는 활동이나 한국학교 행사들도 재밌었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배우고 또 한국어 실력이 느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 넷. 기억나는 학교 행사는 개교기념일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운동회도 재밌었고 아이들이 열심히 게임을 하는 게 기억이 나요.
- 다섯. 선생님을 도와드리고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여섯.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어서 내년에는 없지만 다시 보조교사를 하게 된다면 큰 학생 반을 맡고 싶습니다. 어린 반도 좋지만 큰 학생 반이 조금 더 안전해서 좋습니다.
- 일곱. 한국어랑 한국문화를 재밌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 여덟. 선생님들과 보조교사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전 이 현

- 하나. 전이현 보조교사입니다. 2022~2023년 학기를 마무리함으로 보조교사로서 2년을 마쳤습니다.
- 둘. 지난 1년 동안 믿음반에서 보조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재작년부터 함께한 학생들과 더신뢰를 쌓고 성장하는 과정을 볼 수 있어 특별했습니다.
- 셋. 팬데믹 때에는 아이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쌓아가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팬데믹을 완전히 벗어나 2년 동안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되면서 학생들을 진짜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일은 한 학생이 선생님께 부적절한 언행을 쓰고 그것을 교정하는 일이었습니다.
- 넷. 올해 가장 특별히 기억나는 학교 행사는 토크 콘서트였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으로서 다양한 재미교포 어른 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다섯. 교실에서 보조교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학생이 한국학교에 대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시로 저희 반의 한 학생이 있는데 다른 학생들과 말도 섞지 않고 수업에도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런 학생과 꾸준히 대화하고 어려움을 겪는 과제들에 도움을 주면서 우리 학교에 마음을 열게 도와주었습니다.
- 여섯. 작년과 동일하게 조금 큰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반을 맡고 싶습니다. 그 나이 때의 학생들과 원만한 소통이 가능하고 그런 관계에서 제가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일곱. 어릴 때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자신의 감정과 그날의 컨디션에 무관하게 항상 선생님께 예의를 갖추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 여덟. 모든 선생님과 보조교사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다솜한국학교 학생들에게 더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준 건

- 하나. 저는 이준건입니다. 2년간 다솜에서 보조교사로 활동하였습니다.
- 둘. 지난 1년 동안 화평반에서 보조교사를 맡았었습니다. 새로 오신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반이라 반 아이들을 잘 아는 제가 보조교사로서 선생님을 많이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 셋. 역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침 일찍 일어나 9시 10분까지 교회로 가야 했던 점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연도에는 11학년이어서 주중에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할 때가 많은데 주말에도 일찍 일어나야 했던 것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힘들었던 것을 떠나서 이번 연도는 저에게 있어 가장 보람있었던 학기였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새로 오신 선생님을 보조하며 보조교사로서의 책임감과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 넷. 가장 기억나는 행사는 토크콘서트였습니다. 다솜에서 외부 강연자를 초대하는 일은 거의 없사피했기 때문에 유니크하고 유용한 경험이었습니. 재미한인으로서의 삶과 책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 다섯. 선생님이 시키지 않아도 도움이 필요할 때 선생님을 보조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떠들면 선생님이 시키시지 않아도 먼저 나서서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예가 될 수 있겠네요. 그 외에도 수업에서 쓴 미술용품들을 정리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치우든지 하는 자발적인 행동들이 모두 예가 될 수 있습니다.
- 여섯. 저는 딱히 가고 싶은 반이 특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디로 배정되던 그 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일곱. 한국학교에서는 최대한 한국어를 쓰자!
- 여덟. 이번 학기 동안 열심히 수고해주신 선생님들, 특히 새로 오신 선생님들께, 다솜한국학교를 이끌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남 현

- 하나. 제 이름은 이남현입니다. 다솜한국학교에서 2년 동안 보조교사 활동을 했습니다.
- 둘. 지난 1년 동안 은유반을 담당했습니다. 특별한 점이 있다면 우리 반은 정말 흥이 많으며 활기가 넘칩니다.
- 셋.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서 교실에서 학생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활동하는 것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때론 시끄러울 때도 있었지만 학생들을 직접 만날 수 있어서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 넷. 다솜한국학교 개교기념일이 기억납니다.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 다섯. 보조교사는 선생님을 도와드리며 심부름과 도움, 혹은 문제가 발생했을때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반 학생들이 흥이 많아서 시끄러울 때도 있었기에 보조교사로서 학생들을 조용히 시키려고 애썼습니다.
- 여섯. 지난 2년간 어린 반을 맡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큰 학생 반을 맡고 싶습니다.
- 일곱.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게 중요하며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한국 문화에 관심을 더 가지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여덟. 지난 1년동안 쉬고 싶은 토요일에 3시간씩 투자하면서 힘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꼭 이렇게 힘써주시기 바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활동하는게 다솜한국학교의 발전을 향한 길입니다.



장 우 주

- 하나. 장우주입니다. 보조 교사로 일한 첫 해였습니다.
- 둘. 충성반 수업을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마음이 착하고 밝아서 특별했습니다.
- 셋. covid 전염병이 매우 어려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보조교사로서 부족한것이 많아 더욱 어려웠던것 같습니다.
- 넷. 3월에 태극기를 붙잡고 퍼레이드를 했던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 다섯. 제가 보조교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교사의 일을 더 쉽게 하고 아이들을 돕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여섯. 영어로 대화 가능한 선생님과 의사소통이 더 쉬운 어린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고 싶습니다.
- 일곱.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자고 하고 싶습니다.
- 여덟. 학생들에게 계속 열심히 하라고 말하고 싶고, 선생님들 모두 너무 수고 하셨고 감사합니다.



남 하 은

하나. 남하은 보조교사입니다. 1년간 다솜한국학교에서 보조교사로 활동하였습니다.  
 둘. 지난 1년 동안 가장 어린 반인 사랑반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낯을 가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활발해져 편하게 담임했습니다.  
 셋. 저는 오프라인 수업이 더 좋았습니다. 물론 시간 맞춰 학교에 오는 것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얼굴 보면서 수업하는게 좋았습니다.  
 넷. 올해는 토크쇼가 가장 특별히 기억납니다.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졌지만 재미 한인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들은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섯. 교실에서 보조교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담임 선생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많은 아이들을 돌보는 건 힘들다 보니까 선생님이 시키지 않아도 나서서 선생님을 돕고 아이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섯. 내년엔 가장 어린 아이들보다 초등학교 저학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린 아이들한테 더 잘 행동하게 되는 것 같고 이미 사랑반을 맡아봐서 조금 더 큰 아이들을 맡고 싶습니다.  
 일곱.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널리 전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덟. 모든 선생님들과 보조교사들에게 이번 학기동안 정말 수고하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현 일

하나. 이현일 보조교사입니다. 1년 간 다솜한국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일했습니다.  
 둘. 지난 1년 동안 온유반을 맡았고, 온유반은 아주 활기찬 반이었습니다.  
 셋. 오프라인 수업을 함으로써 아이들의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넷. 저는 개인적으로 토크 콘서트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여러가지 배경을 가지고 살아온 서로 다른 재미한인분들의 삶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 그들의 가치관을 배우는 시간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섯. 보조교사로서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학생들이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언어에 흥미를 느끼고 배우는것에 재미를 붙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말게 된다면 어느 반이던 최선을 다 할것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장 어린 반을 맡아보고 싶습니다. 이유는 다양한 나이의 친구들을 담당해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일곱. 항상 화이팅!  
 여덟.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모든 선생님과 보조교사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다솜한국학교 학생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한인사 인종학 1탄 한인 독립 운동가들의 삶과 꿈

2022~2023학년도 한국 역사 문화 교육과정의 대주제를 <한국학교에서 배우는 한인사 인종학 수업>으로 정하고 2022년 10월 29일 그 첫 시간인 <한인 독립 운동가들의 삶과 꿈>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최미영 교장의 강의로 한인사 인종학 커리큘럼에 소개된 미주 독립운동가 중에서 안창호, 서재필, 이승만 세 분의 삶에 대해 소개하였고 그 분들의 꿈이 바로 일제 식민지에서 독립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학생들과 나누었다. 독립운동가들은 언어와 문화 등 여러 가지가 다른 미국에 와서 소수 민족으로서 어려움을 극복하며 동시에 민족을 이끌고 독립을 이루기 위해 많은 희생을 감당했음을 학생들은 알게 되었다.

보조교사들의 역할극으로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어휘 게임을 통해 학생들은 독립운동과 관련된 어려운 단어들도 하나씩 공부했으며 보조교사가 진행하는 카훗 게임으로 배운 내용을 점검하였다. 한 달여 동안 학생들은 눈높이에 맞게 제작된 학습지로 심화학습을 했고 자신들이 미국에 온 때와 어떻게 왔는지를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미국에 온 시기와 방법과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재미한인으로 앞으로 자신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꿈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 한인사 인종학 2탄 세상을 놀라게 한 한인 여성 지도자

한국 역사 문화 교육과정 두 번째 시간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한인 여성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지난 2022년 12월 3일에 진행되었다. 강의에서 배운 여성 지도자는 한인사 인종학 커리큘럼에 소개된 여성 리더인 유관순 열사와 안수산 여사에 관해서 공부하였다.

안수산 여사의 강의를 맡은 조은미 교사는 모든 차별의 벽을 허물고 최초의 아시안 여성 해군으로 군복무를 하며 재미한 인으로서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당당한 삶을 살았던 안수산 여사의 일생에 관해 강의하였다. 팬데믹 이후로 아시안 혐오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인종차별이 더 심했던 시대에 여성 지도자로 용기 있는 삶을 살았던 안수산 여사의 삶을 배우며 인종 차별에 당당하게 맞설 용기를 얻기를 바란다고 했다.

유관순 열사의 강의를 맡은 정희조 교사는 열사를 소개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유관순 연극’을 통해 그분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용기를 표현하며 학생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유관순 열사로 열연한 안지은 교사는 “나라를 잃은 슬픔과 일본의 무력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모습들을 잘 전할 수 있을 지 고민하며 준비했어요. 유관순 열사가 되어 연기할 때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떨림과 뜨거움이 올라오며 어느새 제 자신이 그 시대 속 아우내 장터로 돌아가 우리 나라를 위해 원 없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랑스러운 유관순 열사를 연기할 수 있어 영광이며 가슴 뜨거운 경험이었어요.”라고 전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연기에 몰입되어 매우 엄숙한 모습으로 강의에 집중했고 마지막에 모두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높이 외쳤다.



## 한인사 인종학 3탄 대한독립의 꿈을 이룬 재미 동포 사업가

한국 역사 문화 교육과정 세 번째 시간으로 2023년 2월 18일에는 <대한독립의 꿈을 이룬 재미 동포 사업가>라는 제목으로 백미 대왕 김종립과, 넥타린 등으로 김형제 상회를 일군 김호와 김형순의 삶에 관해 공부하였다.

박은경 교무 선생님은 강의에서 재미 사업가의 삶의 자취를 따라가기 위해 여행, 정보, 극장, 퀴즈의 4가지 방향으로 강의해 주었다.

재미 사업가들의 삶의 자취를 찾아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다솜한국학교에서 사업가들이 거주했던 리틀리와 윌로우 비행학교, 김호 초등학교가 있는 LA까지의 여행 경로를 따라가 보았다. 파워포인트와 비디오 클립, 그리고 열매반이 보여주는 역할극으로 학생들은 재미 사업가들의 꿈과 그들의 삶에 관해 공부하였다. 마지막으로 퀴즈와 윗놀이 게임으로 배운 내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퀴즈 대회를 마치고 백미 대왕의 백미 튀밥을 상으로 받았다.

대한민국 공군의 시초가 된 윌로우스 비행학교를 위해 많은 재산을 기부한 백미 대왕 김종립, 독립 운동 자금을 모금하고 어려운 처지의 민족을 도우며 독립의 꿈을 이룬 김호, 김형순 등의 한인 사업가의 일생을 돌아보며 우리 학생들이 가져야 할 꿈의 방향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 한인사 인종학 4탄 토크 콘서트 [ 재미동포의 삶과 꿈 ]

한국 역사 문화 교육과정 세 번째 시간으로 2023년 4월 15일에는 <재미동포의 삶과 꿈>이라는 제목으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행사에서는 1세, 1.5세, 2세 및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다양한 직업과 배경의 이민 이야기를 나누어 줄 패널들을 모시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학생들의 삶에 적용하는 기회를 가져보았다.

1.5세대의 대표로 소개된 다솜한국학교 전남진 이사장, 1세대의 대표로 소개된 프리몬트 고등학교 교육국 김현주 교육위원장, 여성 외교관으로서 카자흐스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주 샌프란시스코 윤홍선 정무 영사, 2세 대표로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태어나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와 버클리 대학교를 졸업한 정민용 엘리젠 시니어 디렉터는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자신의 꿈을 소개하였다.

패널들의 발표 후에 학생들은 6팀으로 나뉘어서 배운 내용을 나누고 패널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나누었다. 조별로 매우 다양하고 신선한 질문을 하였고 패널들은 매우 성실하게 답변하였다. 학생들의 연구와 발표가 매우 좋아서 패널들은 물론 부모님들이나 교사들도 모두 감탄하였다. 열심히 공부를 마치고 다 함께 피자 파티를 하며 토크 콘서트를 마감하였다. 이런 기회를 통해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리더십을 키우며 자신의 꿈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실행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 교사 훈련 및 보조교사 훈련 2022년 8월 20일, 27일



2022년 가을 학기 개강을 앞두고 2차에 걸친 교사 연수회 및 보조교사 연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보조교사 훈련에서는 카훗 게임을 통해 다솜의 역사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남진 이사장님의 격려사와 교사 소개 및 반 소개가 있었습니다. 보조교사들은 자랑스러운 재미동포 혹은 재미동포 독립운동가를 연구하고 발표하는 과제를 모두 성실히 수행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담임 선생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 앞으로 1년 동안 수업할 내용 및 수업의 특성과 보조교사가 중점적으로 할 일 등에 관하여 나누었습니다. 성실하게 보조교사 직을 수행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마쳤습니다.

## 개강식 2022년 9월 10일



2022-2023학년도 개강식이 2022년 9월 10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10분까지 학생, 교사 및 학부모님 120명이 모인 가운데 산호세한인장로교회 본당에서 있었습니다. 박은경 교무 선생님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되어 국민의례가 있었습니다. 미국국가와 애국가는 보조교사들이 선창으로 제창하였습니다. 윤대진 목사님의 기도와 전남진 이사장님의 격려사가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정희조 선생님과 신해운 선생님에 대한 교사 임명장 수여가 있었습니다. 장우주, 남하은, 이현일 보조교사 임명식도 있었습니다. 사랑반, 충성반, 운유반, 화평반, 믿음반, 열매반 등 6반의 학생과 교사 및 보조교사가 발표되었고 학생들은 반별로 선생님과 보조교사의 인도를 받으며 교실로 가서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학생들이 2교시 수업을 하는 동안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 추석행사 2022년 9월 10일



2022~2023학년도 개강식과 함께 추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2022년 9월 10일 개강식으로 긴장되기도 했지만 학생들은 추석 행사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팬데믹으로 함께 모여 송편을 만들지 못했다가 3년 만에 함께 모여 송편을 만들며 학생들은 정희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송편 모양에 놀라고 찌서 만들어진 송편의 모양에 다시 놀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보통 송편 빚기, 두 번째는 붉은색 물감을 들인 반죽으로 감 모양 송편, 세 번째는 썩반죽으로 만드는 나뭇잎 빚기, 네 번째는 노란 반죽으로 호박 빚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준비해 주신 꽃 모양을 떡 위에 붙였습니다. 부모님들의 도움으로 예쁘게 찌진 떡이 반별로 배달되었고 학생들은 탄성을 올렸습니다. 준비된 박스에 잘 넣어서 소중하게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 한식진흥원 행사 2022년 9월 24일



2022년 9월 24일 오전 11시부터 한식 관련 특별 행사로 한식진흥원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의 주관으로 한식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4학년부터 9학년까지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식진흥원 파견 황정아 셰프가 진행하는 만두 빚기 행사였습니다. 황정아 셰프는 만두는 다른 나라에서도 찾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으로 수준별로 5가지 형태로 빚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동그라미 모양, 세모 모양, 뒷면에만 주름이 있는 모양, 주머니 모양, 앞사귀 모양으로 빚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하나라도 농칠세라 귀를 기울이며 들었고 열심히 모양을 내며 만두를 빚었습니다.

찜기에 찌서 바로 나온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자신이 만든 만두의 맛을 즐겼습니다. 추석에는 송편을 빚었는데 만두도 빚어서 먹게 되니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선물로 간편식으로 만들어진 여러 종류의 밀키트를 선물로 받고 기쁜 마음으로 하교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모여 만두를 만들고 먹어본 추억과 맛을 오래오래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 2022년 독도의 달 행사



다솜한국학교에서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22주년, 2022년 독도의 달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땅 독도 계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은 독도 티셔츠를 입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렸습니다. 독도 노래와 독도 댄스를 하면서 독도에 관한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독도 미니북 만들기, 독도모형 만들기, 독도 캘리그라피 쓰기, 독도 알리기 편지 쓰기 등 독도의 달인 10월 동안 각 반에서는 독도에 관하여 눈높이에 맞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지난 10년 이상 지속하여 독도의 날에 독도 계기 수업을 진행해 오며 다솜 학생들의 독도에 관한 사랑과 강한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독도 계기 수업은 동북아역사재단과 독도재단에서 후원하였습니다.

### 2022년 소방 훈련 2022년 10월 1일



2022년 10월 1일 전체 학생 조회 직후에 소방 훈련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불이 나거나 건물에서 대피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길 때에 주의할 점과 대피 장소를 알려준 후에 얼굴을 가리고 질서 있게 움직여 건물에서 가장 먼 곳으로 대피하였습니다. 보조교사와 교사들이 앞장서거나 맨 뒤에 서고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잡아 주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매우 신중한 모습으로 대피 훈련에 임했습니다.

### 특별활동 시작 2022년 10월 22일



팬데믹으로 못했던 특별반이 3년 만에 재개되어 2022년 10월 22일에 시작하였습니다. 사랑반과 충성반은 특별반 반에서 하고 나머지 반들은 바느질반(장혜경 선생님), 사물놀이반(권민호, 전이연, 이현일 교사), 태권도반(강지민 선생님), 동영상제작반(조은미 선생님)으로 나누어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 특별활동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 역사문화 조희 I 2022년 10월 29일



우리학교에서는 2022~2023학년도 한국 역사 문화 교육과정의 대주제를 <한국학교에서 배우는 한인사 인종학 수업>으로 정하고 지난 10월 29일 그 첫 시간인 <한인 독립 운동가들의 삶과 꿈>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였습니다. 한인사 인종학 커리큘럼에 소개된 미주 독립운동가 중에서 안창호, 서재필, 이승만 세 분의 삶에 대해 소개하고 그 분들의 꿈이 바로 일제 식민지에서 독립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학생들과 나누었습니다. 미주에서의 독립운동가들은 언어와 문화 등 여러 가지가 다른 미국에 와서 소수민족으로서 어려움을 극복하며 동시에 민족을 이끌고 독립을 이루기 위해 많은 희생을 감당했음을 공부하였습니다.

### 5년 근속 교사상 수상 2022년 11월 6일



2022년 11월 6일 저녁 6시부터 Westin Hotel SF Airport에서 북가주 교사 사은의 밤 행사가 있었습니다. 본교 권미정 선생님과 안지은 선생님이 5년 근속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역사문화 조희 II 2022년 12월 10일



우리 학교에서는 2022~2023학년도 한국 역사 문화 교육과정의 대주제를 <한국학교에서 배우는 한인사 인종학 수업>으로 정하고 <한인 독립 운동가들의 삶과 꿈>에 이어 지난 12월 3일에는 한인사 인종학 커리큘럼에 소개된 여성 리더인 유관순 열사와 안수산 여사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안수산 여사의 강의를 맡은 조은미 선생님은 모든 차별의 벽을 허물고 최초의 아시아인 여성 해군으로 군복무를 하며 재미한인으로서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당당한 삶을 살았던 안수산 여사의 일생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정희조 선생님의 강의로 소개된 유관순 열사 이야기는 특별히 준비한 유관순 연극에서 학생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안지은 선생님이 유관순 열사로 열연하여 학생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 보조교사 사은회 2022년 12월 10일



2022년 12월 10일 오후 1시부터 친교실에서 다솜한국학교 보조교사 사은회가 있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바쁜 학업 중에도 보조교사로 교사와 학생들을 돕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 애써 온 보조교사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모두 본인의 보조교사가 제일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훈훈한 시간이었습니다. 협력해 주시는 보조교사 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2022년 역사문화 교재 출판 기념식 2022년 12월 10일



다솜한국학교에서는 일곱 번째 역사 문화 교재로 “이중언어로 배우는 한스타일(Han Style - Hangeul, Hanbok, Hansik, Hanok and Hanji)” 책을 펴내고 출판기념식을 하였습니다. 미국 정규학교 세계사 교과서에도 소개된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에 관한 내용을 동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학습지로 제작하고 특히 한국어와 영어 이중 언어로 제작한 점이 특별합니다. 12월 10일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에서 윤대진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된 출판 기념식에는 윤홍선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정무 영사, 김현주 프리몬트통통교육국 교육위원, 장동구 전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사장 등이 손님으로 참석하여 축하를 해 주셨습니다. 전남진 이사장님은 7년 동안 매년 한 권씩 지속하여 책을 만들어 낸다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하며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장인 정신을 발휘하고 앞으로도 계속 역사 문화 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학교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 제10회 독도평화 대상 동도상 수상



독도평화재단, 독도재단이 공동 수여하는 제10회 독도평화대상 동도상(평화, 인권)을 수상하였습니다. 독도평화대상은 독도 수호와 홍보 활동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를 시상하고 그 활약상을 널리 알림으로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2013년부터 시상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2009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반크 사이버외교사절단 박기태 단장님이 본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독도와 동해에 관해서 가르쳐 주고 왜 독도를 수호해야 하는지에 관한 강의를 한 이후 지난 13년 동안 지속하여 독도

교육을 주요 교육과정으로 정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본교의 독도 알리기 활동이 한국 안에서의 외침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대하는 글로벌 운동으로 확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고, 독도를 향한 헌신적 활동이 전 세계 한인 동포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3년 설 행사 2023년 1월 28일



우리 학교에서는 설을 맞이하여 지난 1월 28일 설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3년 만에 대면행사로 진행되었는데 먼저 다솜 한복집을 개장하여 한복이 없는 학생들에게 한복을 대여하여 모든 학생들이 한복을 입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겨울 방학동안 담당 선생님들이 즐거운 설날 행사를 위해서 의견을 나누며 설날 행사를 준비했고, 보조교사들의 도움으로 세배하고 세뱃돈 받기, 토끼 그리기와 복주머니 만들기, 제기차기, 널뛰기, 투호던지기, 포토존에 새해 소원 3가지씩 적기 등의 놀이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와 한과를 먹는 다례 시간을 가졌는데 학생들은 모두 다소곳이 앉아서 따뜻한 차와 한과를 먹고 마시며 설날에 관해 생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역사문화 조희 III 2023년 2월 18일



다솜한국학교에서는 2022~2023학년도 한국 역사 문화 교육과정의 대주제를 <한국학교에서 배우는 미주 한인사 인종학 수업>으로 정하고 <한인 독립 운동가들의 삶과 꿈>과 <세상을 놀라게 한 한인 여성 지도자>에 이어 지난 2월 18일에는 <대한독립의 꿈을 이룬 재미 동포 사업가>라는 제목으로 백미 대왕 김종림과, 벡타린 등으로 김형제 상회를 일군 김호와 김형순의 삶에 관해 공부했습니다. 박은경 교무 선생님은 재미 사업가의 삶의 자취를 따라가기 위해 여행, 정보, 극장, 퀴즈의 4가지 방향으로 강의해 주었습니다. 파워포인트와 비디오 클립, 그리고 열매반이 보여주는 역할극으로 학생들은 재미 사업가들의 꿈과 그들의 삶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와 윷놀이 게임으로 학생들은 배운 내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퀴즈 대회를 마치고 백미 대왕의 백미 튀밥을 상으로 받았습니다.

2023년 특강: 언어, 한국인의 문화 유전 2023년 2월 25일



우리 학교에서는 지난 2월 25일 경희대학교 한국어 교육전공 조현용 교수를 초청하여 "언어, 한국인의 문화 유전자"라는 제목의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북가주 지역을 비롯하여 LA, 뉴욕, 워싱턴, 플로리다, 일본,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 등 35명이 참석했습니다. 조현용 교수는 AI와 최근 가장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가는 Chat GPT 시대에 한국어 교육의 목표를 취직이나 진학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좋아서 배우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한국어를 배움으로써 학생들이 행복하고 힐링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하며 그 중에서 말하기와 좋은 글 번역과 같은 글쓰기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년 삼일절 104주년 태극기 행진 2023년 3월 4일



다솜한국학교에서는 삼일절 104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3월 4일, 삼일절 수업과 태극기 행진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삼일절이 무엇인지에 관해 배우고 독립운동가 여섯 분이 남긴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또한 태극기에 관해서 자세히 배우고 모두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예년과 달리 조금 쌀쌀한 날씨였지만 학생들은 가로 4.6미터, 세로 3 미터의 대형 태극기를 맞잡고, 다른 쪽 손에는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와 애국가" 음악에 맞추어 행진을 하였습니다. 1920년 삼일운동 1주년 기념 행사가 캘리포니아의 다뉴바 시에서 개최되었을 때 재미한인들은 대형 태극기를 들고 독립을 염원하였습니다. 100여년이 지난 현재 다솜한국학교 학생들은 독립을 위해 애쓰시던 선조들의 뜻을 기억하고 재미한인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라며 큰 소리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개교 19주년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 및 운동회 개최 2023년 3월 11일



### 개교 19주년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 및 운동회 개최 2023년 3월 11일



다솜한국학교에서는 개교 19주년을 맞이하여 2023년 3월 11일에 백일장대회 및 그림 그리기 대회와 기념 운동회를 교내에서 개최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개교 기념 운동회를 4년만에 개최하게 되어 학생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1교시에는 "나의 보물 1호를 소개합니다, 여름 방학 동안 가장 즐거웠던 날, 한국학교 선생님, 사랑, 봄"이라는 주제로 백일장 및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교내 곳곳에 삼삼오오 무리 지어 편안하게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모습이 매우 정겹고 대견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부푼 기대감을 안고 휘날리는 만국기 아래서 국민체조를 하면서 운동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질서 있고 즐겁게 참여하도록 보조교사들이 함께 했고 학부모 응원단은 품품을 준비해서 학생들을 응원하니 하늘을 찌를 듯한 학생들의 응원 소리가 교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청백전으로 이루어진 운동회는 질서도 더 잘 지키고 게임도 잘한 청팀이 우승을 하였습니다. 운동회 후에 친교실에 함께 모여 간식을 먹으며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전남진 이사장님은 개교 19주년을 축하하며 오늘까지 학교가 계속 발전,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신 선생님, 학생, 학부모님들께 함께 큰 감사의 박수를 보내자고 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학교가 되기를 바란다는 축복의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개교기념일을 지낼 수 있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는 우리 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토크 콘서트 [재미동포의 삶과 꿈] 2023년 4월 15일



우리 학교에서는 지난 4월 15일 토요일 10시 반부터 1시까지 산호세한인장로교회 본당에서 <재미동포의 삶과 꿈>이라는 제목으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행사에서는 1세, 1.5세, 2세 및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다양한 직업과 배경의 이민 이야기를 나누어 줄 패널들을 모시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학생들의 삶에 적용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패널들의 발표 후에 학생들은 6팀으로 나뉘어서 배운 내용을 나누고 패널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조별로 매우 다양하고 신선한 질문을 하였고 패널들께서는 매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의 연구와 발표가 매우 좋아서 패널분들은 물론 부모님들이나 교사들도 모두 감탄하였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마치고 다 함께 피자 파티를 하며 토크 콘서트를 마감하였습니다. 여러 학교에서 비슷한 행사가 확산되어 동포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리더십을 키우며 자신의 꿈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실행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대통령 봉사상 시상식 2023년 5월 13일



5월 13일 보조교사 시상식을 거행했습니다. 대통령 봉사상 (The President's Volunteer Service Award)와 이사장상 및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9학년을 마치고 다솜 한국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로 이루어진 보조교사들은 10학년부터 하게 되는데, 권민호, 한동진, 박보희, 전이현, 이남현, 이준건, 장우주, 남하은, 이현일 등 9명입니다. 최미영 교장은 학업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보조교사로서 최고 130시간까지 자원봉사를 해준 보조교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남진 이사장님은 후배들에게 자랑스러운 롤 모델이 되고 선생님들에게는 제자를 넘어 협력하는 동료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보조교사들이라며 매우 자랑스럽다고 하였습니다.

### 2022 - 2023년도 졸업식 2023년 5월 20일



다솜한국학교에서는 2022~2023학년도를 마치며 5월 20일 종강식과 졸업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보조교사 사물놀이 팀의 식전 공연을 마치고, 권미정 선생님의 사회로 시작된 졸업식은 국민의례와 박석현 목사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학생들의 이야기가 담긴 10분가량의 동영상에 감상했고 전남진 이사장님의 격려사가 있었습니다. 최미영 교장 선생님의 학사보고와 학생들이 잘 배워서 많이 성장했다는 칭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반별로 발표가 진행되었고 1년 개근상, 정근상, 모범상, 우등상 등이 수여되었습니다. 9월 9일 개강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즐거운 여름 방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 2022 - 2023년도 종업식 2023년 5월 20일



종업식에 이어 박은경 교무 선생님의 사회로 이어진 졸업식에서는 장하진, 오태양 학생이 졸업하였습니다. 졸업생을 소개하기 위해 다솜에서 성장하는 모습의 사진들과 재학생들의 축하 인사를 담은 동영상과 함께 감상하며 졸업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장하진 학생은 어머니인 박은경 선생님을 따라 3세 반부터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여 12년을 다솜에서 공부하였습니다. 최미영 교장 선생님은 두 학생의 졸업을 축하하며 졸업생은 다솜의 열매이며 동역자라고 하며 앞으로 선배들과 함께 보조교사로 동역하면서 더욱 성장해 가기를 바란다고 축하했습니다. 졸업생들은 졸업에 대한 감회를 발표가 있었는데 다솜을 통해 성장하고 선생님들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고, 한국 학교 활동에 더 열심히 최선을 못한 것이 아쉽지만 보조교사를 하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한 졸업생도 있었습니다. 이사장님은 격려사에서 긴 세월 동안 한국학교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준 학생들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한국어와 한국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의 축하 인사를 마치고 권민호 보조교사의 축하 공연도 있었습니다. 박석현 목사님의 축도로 졸업식을 마쳤습니다.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인 졸업생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1. 교사 연수회: 2022년 8월 29일 KD TIMES

2022. 08. 29 PM 다습한국학교, 제2회 중·고등학생 국제 교류 연수회 개최 - Korea Daily Times

다습한국학교, 제대로 된 차세대 교육 위해 연수회 개최

by KDT | posted Aug 30, 2022

캘리포니아 북부 서니베일에 위치한 다습한국학교는 2022-2023학년도 가을 학기 개강을 앞두고 한인 차세대 교육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난 20일 1차 교사연수회, 27일 2차 교사 연수회 및 보조교사 연수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20일 다습한국학교에서 2022-2023학년도 가을 학기 개강을 앞두고 1차 교사연수회가 열리고 있다. 전달 강의를 하는 강사는 교사.>

1차 교사연수회에서는 지난 학년 동안 가르친 내용과 여러 외부 학술대회에서 배운 내용을 전달하는 전달 강의 형식으로 각 교시마다 30분씩 진행했다. 2차 연수회에서는 학사 일정 점검, 반배정 및 보조교사 배정, 교과서 및 교실 배정, 특별반과 2022-2023년 역사문화 교육과정 확정, 개강식 및 수석 행사 기획, 한식진흥원 행사 및 동북아 역사재단 지원 사업인 독도의 날 활동 계획 등에 관해 의논했다.

보조교사 연수회는 다습한국학교 역사에 관한 기본 개념, 전담강사 이사장의 격려사, 교사 및 한 소제 등이 있었다. 보조교사들은 자랑스러운 제이동로 혹은 제이동로 독립운동가를 연구 발표했다.

2. 교사·보조교사 합동 연수회: 2022년 9월 5일 Bay News Lab

Bay News Lab logo and article title: '다습한국학교, 새학기 준비 위한 교사 연수회 및 보조교사 연수회 개최'

2022-2023학년도 학사 일정 및 대안수업 준비 논의



3. 교사·보조교사 합동 연수회: 2022년 9월 6일 한국일보

한국일보 THE KOREA TIMES logo and search bar.

사회일반 다습한국학교 교사, 보조교사 연수회

▶ 열람 - 2022-09-06 (화)

▶ 2022-23학년도 개강 준비



다습한국학교가 지난날 2022-23학년도 가을학기 개강을 앞두고 교사 및 보조교사 연수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번 학년에서 할 일을 보조교사들이 먼저 숙고할 예정이다. 뒷줄 왼쪽에서 넷째가 2022년 교실 배정, 특별반과 2022-23학년도 역사문화 교육과정 확정, 개강식 및 수석 행사 기획, 한식진흥원 행사 및 동북아 역사재단 지원 사업인 독도의 날 활동 계획 등에 관해 의논했다.

다습한국학교(교장 최미경)가 2022-23학년도 가을학기 개강을 앞두고 지난날 교사연수회와 보조교사 연수회를 가졌다.

교사연수회는 지난날 20일과 27일 각각 1, 2차로 진행했는데 지난 학년동안 가르친 내용과 여러 외부 학술대회에서 배운 내용을 전달했다. 또, 학사 일정을 점검하고 반과 보조교사 배정, 교과서와 교실 배정, 특별반과 2022-23학년도 역사문화 교육과정 확정, 개강식 및 수석 행사 기획, 한식진흥원 행사 및 동북아 역사재단 지원 사업인 독도의 날 활동 계획 등에 관해 의논했다.

2022-23학년도 보조교사 회상은 권영호 보조교사, 부회장은 한동진 학부모 보조교사가 맡게 됐으며, 지난 학년도 보조교사들에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차세대 교사 숫자에 수여했다.

다습한국학교는 오는 9월10일(목) 오전 9시30분에 산후세 한인양육교회 엘리베이터에서 개강식을 갖고 수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등록 문의는 info@desamk.org로 하면 된다.

4. 개강식: 2022년 9월 13일 KD TIMES

2022. 09. 13 PM '모여라 한국어 배우러 가자', 다습한국학교 개강식

"모여라 한국어 배우러 가자", 다습한국학교 개강식

by KDT | posted Sep 13, 2022

캘리포니아 북부 서니베일에 위치한 다습한국학교의 2022-2023학년도 개강식이 18일 있었다. 이날 개강식은 산후세한인양육교회의 본당에서 교사, 학부모 등 120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박은경 교무의 개회 선언, 윤대찬 목사의 기도, 전담강사 이사장의 격려사가 차례로 있었다.

전 이사장님은 "다습에 학생들을 계속해서 보내는 학부모, 열정적으로 지도하시는 전담강사와 보조교사들의 감사하다"며 "2002학년을 시작하면서 모든 일에 기쁨으로 하게 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최미경 교장은 신입생들을 환영하고 재학생들에게는 여름 방학을 잘 치내고 다시 한 번 반갑다는 소감을 전했다. 또 "한류 열풍으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상황에 우리 학생들도 더 열심히 배워 타인족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나눠주길 바란다"고 했다.

백범일지 독서감상문쓰기 대회에서 백범 통일상과 평화상을 수상한 박재현 학생과 장하진 학생에게 상패와 메달을 전달했다. 새로 온 정희조, 신혜윤 교사 및 장우주, 남하은, 이현영 보조교사 등에

5. 개강식: 2021년 9월 15일 한국일보

한국일보 THE KOREA TIMES logo and search bar.

사회일반 다습한국학교 즐거운 개강식

▶ 열람 - 2022-09-15 (화)



(사진 다습한국학교)

다습한국학교(교장 최미경)가 지난 10일 2022-23학년도 개강식을 가졌다. 사뮈엘, 송승반, 은유빈, 최명빈, 권용빈, 윤예연의 학생과 교사, 보조교사가 발표했으며 각 방에서 첫날 수업이 시작됐다. 백범일지 독서감상문쓰기 대회에서 백범 통일상과 평화상을 수상한 박재현, 장하진 학생에게 상패와 메달 전달식이 있었고 새로 온 정희조, 신혜윤 교사에 임명장 수여, 장우주, 남하은, 이현영 보조교사 임명식도 있었다. 이날 추석을 맞이해 송편을 만들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6. 개강식: 2022년 9월 21일 Bay News Lab

Bay News Lab logo and article title: '다습한국학교 2022~2023 학년도 개강...송편 만들기 동추석 행사 열려'

2022-09-21 | 4 Comments

다습한국학교 2022~2023 학년도 개강...송편 만들기 동추석 행사 열려



다습한국학교가 지난날 2022-2023학년도 가을학기 개강을 앞두고 교사 및 보조교사 연수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번 학년에서 할 일을 보조교사들이 먼저 숙고할 예정이다. 뒷줄 왼쪽에서 넷째가 2022년 교실 배정, 특별반과 2022-23학년도 역사문화 교육과정 확정, 개강식 및 수석 행사 기획, 한식진흥원 행사 및 동북아 역사재단 지원 사업인 독도의 날 활동 계획 등에 관해 의논했다.

다습한국학교(교장 최미경)가 추석행사를 겸한 개강식을 열고 2022-2023학년도 학사 일정을 시작했다. 다습한국학교는 지난 9월 18일 산후세한인양육교회 본당에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강식에서 최미경 교장은 "신입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여름방학을 잘 치고 돌아온 재학생들과 다시 만나 기쁘다"고 말한 뒤 "전 세계를 활달하고 있는 한류 열풍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상황에 다습한국학교 학생들도 다 같이 잘 배워 타인족 친구들에게 한국을 잘 알려줄 수 있도록 노력"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개강식에서는 산후세한인양육교회 윤대찬 목사의 기도와 전담강사 이사장의 격려사도 있었으며 박은경 교사의 개회선언이 차례로 국한되기도 했다. 또한 백범일지 독서감상문쓰기 대회에서 백범 통일상을 수상한 박재현 학생과 평화상을 수상한 장하진 학생에게 상패 수여 및 메달 전달식이 있었으며 신일 정희조, 신혜윤 교사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장우주, 남하은, 이현영 보조교사에 대한 임명식도 있었다.

개강식 이후 학생들은 각 반별로 수업을 받았으며,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학부모들은 대안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송편에 관한 요리레시피도 전했다.

한편, 3교시에는 전교생이 모두 인공심폐술 체험으로 송편을 직접 빚기도 했다. 정희조 교사의 지도로 집합실 송편 빚기에는 학생과 교사를 비롯해 학부모도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준비한 포포콘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뒤 개강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다습한국학교 학생들이 송편을 빚고 송편을 주고 받는다. 사진: 다습한국학교

7. 한식의 날 행사: 2022년 9월 28일 한국일보



다솜한국학교 한식의 날 '만두빚기' 행사

2022-09-28 17:11



다솜한국학교

다솜한국학교에서 4~9학년 학생들이 만두를 직접 빚고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에서 방문한 학생이 한식전문 강사(July K 대니) 선생님과 만두를 통그라미, 세로, 주머니, 주머니, 잎사귀 등 다양한 모양으로 빚었으며, 만두를 찌는 용구 및 음식에 관해서도 배웠다.

8. 한식의 날 행사: 2022년 10월 6일 Bay News Lab



다솜한국학교 '한식의 날' 행사 개최...만두 빚고 절기 음식 배우고

2022-10-06 13:00

한식 전문음 -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주관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경)가 추석을 맞아 오랜 전통을 계승하며 다솜한국학교 '한식의 날' 행사를 통해 한식을 배우고 한국 절기 음식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다솜한국학교는 지난 9월 24일 한식 전문음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주관으로 '한식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들이 세로가 장식해 통그라미, 세로, 주머니, 주머니, 잎사귀 모양 등 다양한 형태의 만두 만드는 법을 알려주며 학생들이 직접 만두를 빚도록 지도했다.

학생들은 만두 외에도 주먹, 동자 등 한국의 절기 음식과 백설, 등, 쌀알 등에 차려지는 한식에 대해서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직접 만든 만두를 먹어보며 요리의 즐거움에 대해 체험했으며, 우리회에서 준비한 여러 종류의 절기 음식도 선물로 받기도 했다.



만두를 빚고 맛보는 다솜한국학교 학생들. 사진: 다솜한국학교



만두를 만들고 있는 다솜한국학교 학생들. 사진: 다솜한국학교



다솜한국학교 학생들이 만두를 만들고 있는 다솜한국학교 학생들. 사진: 다솜한국학교



학생들이 만든 만두. 사진: 다솜한국학교

9. 한국역사문화 수업 [한인사 인종학, 한인 독립 운동가들의 삶과 꿈]: 2022년 11월 7일 KD Times



다솜한국학교 학생들이 지난날 29일 '한인 독립 운동가들의 삶과 꿈'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2022-11-07 22:23

캘리포니아주 새니헤일시에 위치한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경)는 2022-23학년도 한국 역사 문화 교육과정의 대주제를 '한국학교에서 배우는 한인사 인종학'으로 정했다. 이에 지난날 29일 관현 첫 수업으로 '한인 독립 운동가들의 삶과 꿈'을 주제로 공부했다.



한인사 인종학 거리출판에 소개된 미주 독립운동가 중에서 안희정, 서재필, 이승만 선생의 삶에 대해 소개했다. 이들의 꿈은 일제 식민지에서의 독립이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학생들과 대화했다.

독립운동가들은 언어와 문화 등이 다른 미국에 와서 소수민족으로서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동시에 민족을 이끌고 독립을 이루기 위해 많은 학생들 감동했음을 학생들이 말했다.

보조교사들의 역할극으로 이해를 더 쉽게 했다. 게임을 통해 학생들은 독립운동가 관련 어려운 단어들을 하나씩 공부하기도 했다.



앞으로 한 달에 걸친 학생들은 논술에 맞게 제작된 학습자료 신뢰감을 하며 자신들이 미국에 온 때와 어떻게 온지를 각자의 부모와 대화를 나누게 된다. 미국에 온 시기, 방법,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건 일을 하면서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보아줄 것임지, 자신의 꿈을 나누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2022-23학년도 나머지 세 배움 기회를 통해 한인 여성들의 삶, 한인 사업가들의 삶, 현재 살고 있는 한인 리더들의 삶과 그들의 꿈을 들여보는 수업을 하게 된다.

10. 한국역사문화 수업 [한인사 인종학, 한인 독립 운동가들의 삶과 꿈]: 2022년 11월 17일 한국일보

**한인사** 다승한국학교 '독립운동가의 삶과 꿈' 수업

다승한국학교(이하 한국학교)는 지난 2022년 11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한국학교로 설립했다. 21 세기를 이끌어 갈 한인 청소년을 위한 최첨단 디지털 교육과 한국 문화와 전통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승한국학교는 특히 날씨가 한국 안에서 체험이 아니라 한국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대하는 글로벌 관점으로 확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선호시스템의 안전을 특히 매우 안전 시스템과 환경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고려한 부분이 꼭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능하게 노력해 왔다.

또 세계적 정보 통신기반의 구축과 더불어 특히 교육과정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얻고자 하며 글로벌 협력 관계를 맺어왔다. 다승한국학교를 통해 매우 안전 시스템을 매우 교육, 세계지도, 문화 시너지 효과, 문화 체험을 통해 일어나는 노력해 왔다.

매년 10월 10일 '독도의 날'에 맞춰 독도에 대해 배우고 영웅을 자기 주어진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심화학습을 하고 있다. 목표를 위한 한인사 문화의 전 세계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도 되고 있다.

다승한국학교교장 최미영은 2022~2023학년도 한국 역사문화 교육과정의 대두를 한국 학교에서 배우는 한인사 인종학 수업으로 정하고 지난 10월 29일 한인 독립 운동가들의 삶과 꿈을 주제로 첫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한인사 인종학 커리큘럼에 소개된 제주 독립운동가 중에서 안창호, 서재필, 이승만 세 명의 삶에 대해 소개하고 이분들의 꿈이 세로 걸쳐 시공간에서 뛰쳐나오는 것이었다는 것을 학생들과 나누었다.

앞으로 한인사 수업 학생들은 오늘날에 맞게 체계적인 학습으로 심화학습을 하며 자신들이 미국에 온 이유와 어떻게 꿈을 꾸고나고 대화하고, 자신의 꿈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사진 다승한국학교>

11. 다승한국학교 제10회 독도평화대상 선정: 2022년 11월 30일 경복신문

대한민국

**제10회 독도평화대상 선정... 다승한국학교, 이범관 관장**

다승한국학교

2022. 11. 30. 19:00

제10회 독도평화대상 수상자가 선정됐다.

독도평화재단(이사장 이범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TBC 회관실에서 최종심사를 하고 올해 10회 독도평화대상자로 유동성(연호)씨에게 주급 한국학교인 다승한국학교를, 서도상(문희)씨에게 이범관 관장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다승한국학교(이하 한국학교)는 지난 2022년 11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한국학교로 설립했다. 21 세기를 이끌어 갈 한인 청소년을 위한 최첨단 디지털 교육과 한국 문화와 전통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승한국학교는 특히 날씨가 한국 안에서 체험이 아니라 한국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대하는 글로벌 관점으로 확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선호시스템의 안전을 특히 매우 안전 시스템과 환경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고려한 부분이 꼭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능하게 노력해 왔다.

또 세계적 정보 통신기반의 구축과 더불어 특히 교육과정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얻고자 하며 글로벌 협력 관계를 맺어왔다. 다승한국학교를 통해 매우 안전 시스템을 매우 교육, 세계지도, 문화 시너지 효과, 문화 체험을 통해 일어나는 노력해 왔다.

매년 10월 10일 '독도의 날'에 맞춰 독도에 대해 배우고 영웅을 자기 주어진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심화학습을 하고 있다. 목표를 위한 한인사 문화의 전 세계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도 되고 있다.

12. 한국역사문화 수업 [한인사 인종학, 세상을 놀라게 한 한인 여성 지도자]: 2022년 12월 8일 한국일보

**한인사** 유관순 열사, 안수산 여사에 대해 배워

다승한국학교가 지난 8일 한인사 인종학 커리큘럼에 소개된 여성 리더 유관순 열사와 안수산 여사에 대해 공부했다. 요즘에 교사가 연수산 여사에 대해 공부해 교사 유관순 열사에 대해 연구 통해 유관순 열사의 눈높이에 맞게 강의를 펼쳤다. 학생들은 앞으로 한일 간 역사 학습자를 통해 두 여성 리더에 대해 심화 학습을 하고 교육을 자신과 삶에 적용할 지 등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다승한국학교는 2022~2023학년도 나머지 2년의 과정을 통해 한인 사립가들의 삶,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한인 리더들의 삶과 꿈을 들여보는 수업을 한다고 밝혔다.

다승한국학교가 지난 8일 한인사 인종학 커리큘럼에 소개된 여성 리더 유관순 열사와 안수산 여사에 대해 공부했다. 요즘에 교사가 연수산 여사에 대해 공부해 교사 유관순 열사에 대해 연구 통해 유관순 열사의 눈높이에 맞게 강의를 펼쳤다. 학생들은 앞으로 한일 간 역사 학습자를 통해 두 여성 리더에 대해 심화 학습을 하고 교육을 자신과 삶에 적용할 지 등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다승한국학교는 2022~2023학년도 나머지 2년의 과정을 통해 한인 사립가들의 삶,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한인 리더들의 삶과 꿈을 들여보는 수업을 한다고 밝혔다.

13. 한국역사문화 수업 [한인사 인종학 - 세상을 놀라게 한 한인 여성 지도자]: 2022년 12월 8일 현대주간

4 December 8, 2022 - December 14, 2022

**여성 리더의 삶을 통해 '헌신과 꿈'을 배워**

다승한국학교, 한인사 인종학 수업 마쳐

다승한국학교가 지난 8일 한인사 인종학 커리큘럼에 소개된 여성 리더 유관순 열사와 안수산 여사에 대해 공부했다. 요즘에 교사가 연수산 여사에 대해 공부해 교사 유관순 열사에 대해 연구 통해 유관순 열사의 눈높이에 맞게 강의를 펼쳤다. 학생들은 앞으로 한일 간 역사 학습자를 통해 두 여성 리더에 대해 심화 학습을 하고 교육을 자신과 삶에 적용할 지 등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다승한국학교는 2022~2023학년도 나머지 2년의 과정을 통해 한인 사립가들의 삶,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한인 리더들의 삶과 꿈을 들여보는 수업을 한다고 밝혔다.

다승한국학교가 지난 8일 한인사 인종학 커리큘럼에 소개된 여성 리더 유관순 열사와 안수산 여사에 대해 공부했다. 요즘에 교사가 연수산 여사에 대해 공부해 교사 유관순 열사에 대해 연구 통해 유관순 열사의 눈높이에 맞게 강의를 펼쳤다. 학생들은 앞으로 한일 간 역사 학습자를 통해 두 여성 리더에 대해 심화 학습을 하고 교육을 자신과 삶에 적용할 지 등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다승한국학교는 2022~2023학년도 나머지 2년의 과정을 통해 한인 사립가들의 삶,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한인 리더들의 삶과 꿈을 들여보는 수업을 한다고 밝혔다.

14. 역사문화 교재 [한스타일] 발간 : 2022년 12월 10일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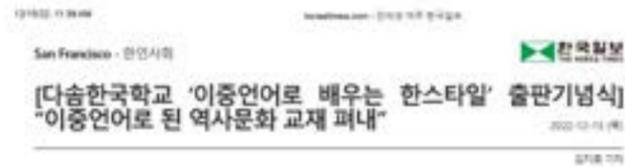
**연방뉴스**

**美 다승한국학교, 일곱번째 역사문화 교재 '한스타일' 발간**

다승한국학교, 일곱 번째 역사문화 교재 출간

다승한국학교가 일곱 번째 역사문화 교재 '한스타일'을 발간했다. 이 교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다승한국학교의 유동성(연호)씨에게 주급 한국학교인 다승한국학교를, 서도상(문희)씨에게 이범관 관장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15. 역사문화 교재 [한스타일] 발간 : 2022년 12월 15일 한국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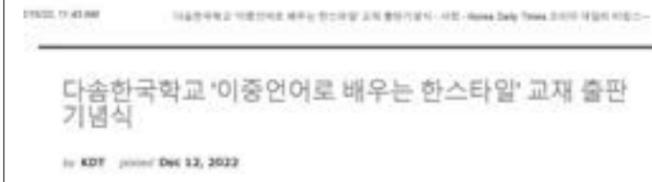
다습한국학교교장 최지영과 7번째 역사문화 교재로 이중언어로 배우는 한스타일 책을 펴내고 지난 10일 출판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중언어로 배우는 한스타일' 책은 다 습한국교 세계사 교과서에도 소개된 한글과 한자, 한복, 한지...

17. 역사문화 교재 [한스타일] 발간 : 2022년 12월 21일 Bay News L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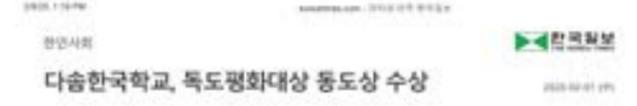
다습한국학교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학교교 세계사 교과서에 소개된 한글, 한복, 한시, 한옥, 한지에 관한 내용을 한인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학습지로 제작한 책인...

18. 역사문화 교재 [한스타일] 발간 : 2022년 12월 KD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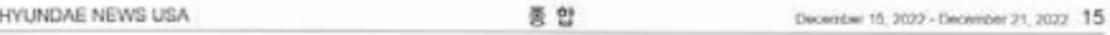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시에 위치한 다습한국학교(교장 최지영)는 일곱 번째 역사 문화 교재로 한한한 '이중언어로 배우는 한스타일' 출판기념식을 가졌다.

20. 다습한국학교, 독도평화대상 동도상 수상: 2023년 2월 1일 한국일보



다습한국학교교장 최지영과 독도평화대상 동도상을 받았다. 지난 2013년 1월 1일 100주년 기념식에서 최지영 교장이 동도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평화교육)

16. 역사문화 교재 발간: 2022년 12월 21일 현대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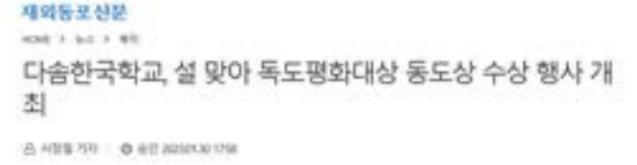
다습한국학교교장 최지영은 '이중언어로 배우는 한스타일' 책을 펴내고 지난 10일 출판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중언어로 배우는 한스타일' 책은 다 습한국교 세계사 교과서에도 소개된 한글과 한자, 한복, 한지...

19. 다습한국학교 독도평화대상 수상: 2022년 12월 29일 세계타임즈



독도평화대상 수상인 다습한국학교는 2022년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에 위치한 다습한국학교 교장 최지영 교장이 1월 100주년 기념식에서 최지영 교장이 동도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평화교육)

21. 독도평화대상 동도상 수상 행사 : 2023년 2월 5일 재외동포신문



독도평화대상, 강북북도 그리고 독도재단이 함께 수여하는 제10회 독도평화대상 동도상 수상인 다습한국학교는 2022년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에 위치한 다습한국학교 교장 최지영 교장이 1월 100주년 기념식에서 최지영 교장이 동도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평화교육)

다.

독도문화대상은 독도 수호와 홍보 활동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를 시상하고 그 활약을 널리 알림으로써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13년 제1회로 지난해로 10회째를 맞이했다. 어종 통도상은 평화와 인권 부문에 대한 상이다.



다송한국학교는 1월 28일 상을 받아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 다송한국학교)

다송한국학교는 2009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반크 사이버외교사절단 박기태 단장이 학교를 방문해 독도와 동해에 대해 교육하고, 왜 독도를 수호해야 하는지 설명한 것을 계기로, 지난 13년 동안 꾸준히 독도 교육을 본교의 주요 교육과정으로 정하고 가르쳐 왔다.

독도문화대상 주최 측은 이러한 다송한국학교의 독도 알리기 활동이 전 세계 한인동포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사 다송한국학교에 이번 상을 수여했다.

이번 시상 행사에서는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도 열렸는데, 우선 다송 학생들을 열어 행복이 없는 학생들에게 행복을 빌려줘, 모든 학생들이 행복을 입어볼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세배를 비롯해 보리 그리기와 복주머니 만들기, 제기차기, 널뛰기, 투호던지기, 모호콘에 새해 소원 3가지씩 적기 등의 놀이가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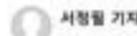


다송한국학교는 1월 28일 상을 받아 시상식을 개최했다. 행복을 증진 하라 많은 학생들 (사진 다송한국학교)

놀이 후에는 차를 마시며 고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학생들은 다소곳이 앉아 차와 고향을 돌며 삶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보냈다.

최미영 교장은 "개울방학 기간에도 잘 행사 준비를 위해 분주했던 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독도 알리기와 관련한 우리 학교의 작은 움직임들 통해 미국 전체와 다른 나라에서도 독도 알리기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바라건대 우리 학생들이 독도의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가치와 특징을 잘 이해하고, 주변 친구에게 설명하고 알려 독도가 위양부로 복스가 아닌 '독도'로 모든 세계 지도에 기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2. 조현용 교수 초청 온라인 특강 [언어, 한국인의 문화유전자]: 2023년 2월 13일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신문

HOME > 뉴스 > 특이

#### 미 다송한국학교, 2월 25일 조현용 교수 초청 온라인 특강

📅 이행사 기자 | 📍 승인 20230213 1450

▶ 다른 지역 한국학교 교사 및 학부모들도 참여 가능. 2월 19일까지 참여 신청 접수

**언어, 한국인의 문화유전자**

일시: 2023. 2. 25 (토) 오후 4~6시 (PST)  
(신청마감: 2023. 2. 19)

방법: ZOOM (월요일 이후 공개)

대상: 주일 한국학교 교사 및 학부모

주최: 다송 한국학교 (www.dasonks.org)

후원: SF 한국교육원, 다송한국학교 이사회

**조현용 교수**

- 경희대학교 한국어 교실 전공 교수
- 언어 문화 플랫폼리스트
- 주요 언어문화교육 연구모임 대표
- 저서: '우리의 직어, 우리의 교정, 한국어 문화를 말한다' 등

### 23. 한국역사문화 수업 [한인사 인종학-대한독립의 꿈을 이룬 재미동포 사업가]: 2023년 2월 20일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신문

HOME > 뉴스 > 특이

#### 美 다송한국학교 '미주 한인사 인종학 수업' 진행

📅 서정일 기자 | 📍 승인 20230220 1651

▶ 2월 18일 백미대학 김종림과 김형제상의 김호·김형순 관련 교육



미국 캘리포니아 서니베일 다송한국학교는 2월 18일 한국학교에서 배우는 미주 한인사 인종학 수업 일환 중 하나로 백미대학 김종림과 김형제상의 김호·김형순의 삶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다송한국학교)

미국 캘리포니아 서니베일 다송한국학교(교장 최미영)는 이번 학년도 한국 역사 문화 교육과정 대주제를 한국학교에서 배우는 미주 한인사 인종학 수업으로 정하고 수업을 이어가고 있다.

최미영 교장은 "옛 순서와 두 번째 순서였던 '한인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꿈과' '세상을 놀라게 한 한인 여성 지도자'에 이어 지난 2월 18일에는 '대한독립의 꿈을 이룬 재미동포 사업가들'을



다송한국학교가 지난 2월 18일 미주 한인사 인종학 수업의 일환으로 김호·김형순 선생 등 대한독립의 꿈을 이룬 재미동포 사업가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다송한국학교)

다송한국학교(교장 최미영)가 필로우스 비행학교 김형제 상의 재산을 기부한 백미 대학 김종림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고 어려운 처지의 민족을 도우며 독립의 꿈을 이룬 김호, 김형순 등 재미 한인 사업가들의 일생을 들여보며 한인 2세들이 가져야 할 품의 방향을 생각해 보는 수업을 마련했다.

서니베일에 위치한 다송한국학교는 2022~2023학년도 교육과정 대주제인 '한국학교에서 배우는 미주 한인사 인종학 수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18일 '대한독립의 꿈을 이룬 재미동포 사업가'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이날 수업에서 할 농사로 거두기 한 김종림 선생과 백미인 등으로 김형제상을 필로 김호와 김형순 선생의 삶에 대해 공부했다.

### 25. 한국역사문화 수업 [한인사 인종학-대한독립의 꿈을 이룬 재미동포 사업가]: 2023년 2월 23일 한국일보

2023. 02. 23 (목) | [koreaherald.com](https://www.koreaherald.com) | 2023년 2월 23일 한국일보

San Francisco - 한인사회 |

**'대한독립 꿈 이룬 재미동포 사업가' 공부** | 2023-02-23 (목)

(한인사회)



다송한국학교(교장 최미영)가 지난 18일 '대한독립의 꿈을 이룬 재미동포 사업가들'을 주제로 백미대학 김종림과 백미인 등으로 김형제 상의 재산을 모금한 김호, 김형순의 삶에 대해 공부했다. 필로우비츠와 필로우비츠로 사업가들이 거주했던 리슬리의 필로우 비행학교 등 별자리를 따라가 보는 학습을 하는 등 한인 사업가의 일생을 들여보며 학생들이 가져야 할 품의 방향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송한국학교는 4월 15일 '재미 한인 모험을 계획할 예정이다.

### 24. 한국역사문화 수업 [한인사 인종학-대한독립의 꿈을 이룬 재미동포 사업가]: 2023년 2월 20일 Bay News Lab

2023. 02. 20 AM | 다송한국학교, 김종림·김호·김형순 등 대한독립의 꿈을 이룬 재미 한인사

▶ 2월 18일 백미대학 김종림과 김형제상의 김호·김형순 관련 교육



▶ 한인 - 650,000 NEWS | SF 한인사 인종학 | '대한독립의 꿈을 이룬 재미동포 사업가' | K-CULTURE | 문화특집뉴스

#### 다송한국학교, 김종림·김호·김형순 등 대한독립의 꿈을 이룬 재미 한인 사업가 조명

2023-02-21 | 8 Comment

▶ '한국학교에서 배우는 미주 한인사 인종학 수업' 일환

26. 한국역사문화 수업 [한인사 인종학-대한독립의 꿈을 이룬 재미동포 사업가]: 2023년 2월 23일 현대주간

4 February 23, 2023 - March 1, 2023 **종합** HYUNDAE NEWS USA

**<한국학교에서 배우는 미주 한인사 인종학 수업>**  
**“대한독립의 꿈을 이룬 재미 동포 사업가들의 삶 조명”**  
 다습한국학교, 2022~2023학년도 한국 역사 문화 교육



새해첫째에 위치한 다습한국학교 교실은 2022-2023학년도 한국 역사 문화 교육과정의 대주제를 <한국학교에서 배우는 미주 한인사 인종학 수업>으로 정해져 있다. 이번 주제는 <대한독립의 꿈을 이룬 재미 동포 사업가들의 삶 조명>이다. 다습한국학교는 2022-2023학년도 한국 역사 문화 교육과정의 대주제를 <한국학교에서 배우는 미주 한인사 인종학 수업>으로 정해져 있다. 이번 주제는 <대한독립의 꿈을 이룬 재미 동포 사업가들의 삶 조명>이다. 다습한국학교는 2022-2023학년도 한국 역사 문화 교육과정의 대주제를 <한국학교에서 배우는 미주 한인사 인종학 수업>으로 정해져 있다. 이번 주제는 <대한독립의 꿈을 이룬 재미 동포 사업가들의 삶 조명>이다.

27. 조현용 교수 초청 특강 [언어, 한국인의 문화 유전자] 2023년 2월 26일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美 다습한국학교, 조현용 교수 초청 특강**  
 언어, 한국인의 문화 유전자라는 주제로 열렸다



조현용 경희대 교수가 지난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다습한국학교가 초청한 온라인 특강에서 '언어, 한국인의 문화 유전자'라는 주제로 열렸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시에 위치한 다습한국학교에는 지난 25일 경희대학교 한국어 교육진흥 조현용 교수를 초청하여 '언어, 한국인의 문화 유전자'라는 제목의 특강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북가주 지역을 비롯해 LA, 뉴욕, 워싱턴, 플로리다, 일본,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 등 35명이 참석했다. 100분 간의 강의 후에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특강을 주최한 최미영 다습한국학교 교장은 "조 교수님의 강의를 처음 접했을 때는

28. 104주년 3.1절 행사: 2023년 3월 7일 Bay News Lab

Bay News Lab

**다습한국학교, 104주년 3·1절 맞아 대형 태극기 들고 행진...애국선열들 뜻 기려**



다습한국학교(교장 최미영) 학생들이 104주년 3·1절을 맞아 대형 태극기를 들고 행진을 하며 대한독립을 외치는 등 독립을 위해 애신 선조들의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다습한국학교 학생들은 지난 3월 4일 104주년 3·1절을 맞아 삼일절 수업을 실시한 뒤 학생들이 다함께 태극기 행진을 열었다. 학생들은 3·1절의 의미를 배우고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얼을 되새겼으며, 태극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웠다.

17:23, 1:10 AM

다습한국학교, 104주년 3·1절 맞아 대형 태극기 들고 행진...



104주년 3·1절 맞아 대형 태극기 들고 행진하고 있는 다습한국학교 학생들. 사진: 다습한국학교.

29. 3.1절 행사 - 태극기 행진 : 2023년 3월 9일 한국일보

San Francisco - 한인사회

**다습한국학교 3.1절 태극기 행진**



다습한국학교(교장 최미영)가 지난 4월 31일 104주년을 맞아 태극기 행진을 했다. 학생들은 31절과 태극기에 대해 배우고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민족, 대한독립을 외치는 등 독립을 위해 애신 선조들의 뜻을 기리고 재미 한인사회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라며 큰소리로 단서를 불렀다.

30. 개교 19주년 기념 - 백일장·그림그리기 대회 및 운동회 : 2023년 3월 13일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신문

**다습한국학교, 개교19주년 기념행사 개최**



개교 19주년 맞아 다습한국학교(교장 최미영)가 3월 11일(현지시간) 개교 19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다. 1교시에는 백일장과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렸으며 이어 운동회가 진행됐다. 특히 운동회는 코로나19 관계로 4년 만에 개최됐다.

백일장과 그림 그리기 대회 주제는 '나의 봄을 소개합니다' 여름 방학 동안 가장 즐거운 날, 한국학교 선생님, 사할, 봄 등이었다.

31. 개교 19주년 기념 - 백일장·그림그리기 대회 및 운동회 : 2023년 3월 14일 Bay News Lab

Bay News Lab

**개교 19주년 맞은 다습한국학교, 백일장·그림 그리기 대회 및 운동회 개최**



다습한국학교(교장 최미영)가 지난 4월 31일 104주년을 맞아 태극기 행진을 했다. 학생들은 31절과 태극기에 대해 배우고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민족, 대한독립을 외치는 등 독립을 위해 애신 선조들의 뜻을 기리고 재미 한인사회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라며 큰소리로 단서를 불렀다.

31323, 11:47 PM 개교 19주년 맞아 다문화한국학교, 백일장·그림그리기 대회 및 운동회 개최  
개교 19주년 맞아 다문화한국학교, 백일장·그림그리기 대회 및 운동회 개최

운동회에서는 신해관 교사의 지도로 '이연상각', '봄주머니 던지기', '황변으로 콩 옮기기', '스피드 퀘즈', '관람날기', '똥 놀 함께 옮기기', '달걀을 달리기' 등의 게임이 펼쳐졌다. 보조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해 먼저 시범을 보였으며 학부모들은 학생들을 응원하는 등 즐거움 시간이 이어졌다.



개교 19년 기념 백일장 및 그림 그리기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준비한 주제로 가지고 글짓기 및 그림을 그리고 있다. 사진 다문화한국학교.



개교 19년 기념 백일장 및 그림 그리기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준비한 주제로 가지고 글짓기 및 그림을 그리고 있다. 사진 다문화한국학교.

관 줄 날기에서는 교사, 보조교사들이 함께 경쟁부랑 파운 워며 즐기고, 이에 맞춰 학생들도 인사는 줄날기를 함께 보냈다. 특히 똥 놀 함께 옮기기 게임은 학생들이 단적으로 잘

31323, 11:47 PM 개교 19주년 맞아 다문화한국학교, 백일장·그림그리기 대회 및 운동회 개최  
여러에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됐다. 스피드 퀘즈에서는 도산 헌장도 상상성, 정출어할 등 여러의 단어들도 책에 맞춰 학부모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정확적으로 펼쳐진 운동회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경합속에 정합이 최종 우승을 차지 했다. 운동회가 끝난 뒤에는 참석자들이 다 함께 모여 간식을 함께 나눠 먹었으며, 이어 개교기념식도 진행됐다.



개교 19주년을 맞아 개최된 다문화한국학교 운동회 모습. 사진 다문화한국학교.



개교 19주년을 맞아 개최된 다문화한국학교 운동회 모습. 사진 다문화한국학교.

31323, 11:47 PM 개교 19주년 맞아 다문화한국학교, 백일장·그림그리기 대회 및 운동회 개최



개교 19주년을 맞아 개최된 다문화한국학교 운동회 모습. 사진 다문화한국학교.



개교 19주년을 맞아 개최된 다문화한국학교 운동회 모습. 사진 다문화한국학교.

전날인 다문화한국학교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학교가 오늘날까지 계속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생님, 학생,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며 "앞으로도 서로 더기에 사랑하는 학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고 말했다.

Bay News Lab | editor@baynews.com

### 32. 개교 19주년 기념 - 백일장·그림그리기 대회 및 운동회 : 2023년 3월 15일 한국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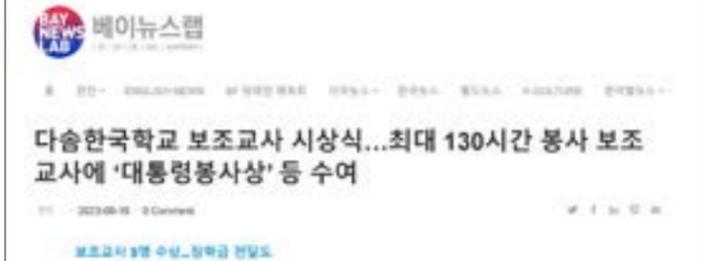


다문화한국학교(교장 최이영)는 3월 11일 개교 19주년을 맞아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대회와 기념 운동회를 교내에서 개최했다.

나의 봄을 1호, 여름학기동안 가장 즐거웠던 날, 한국학교 선생님, 사원, 분"을 주제로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를 진행했고 연례적으로 올해 개교기념 운동회를 4년만에 개최했다.

학생들이 '똥 놀 옮기기' 게임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사진 다문화한국학교>

### 33. 보조교사 시상식 - 대통령 봉사상 수여 : 2023년 5월 15일 Bay News Lab



대통령봉사상 수상한 보조교사들과 학교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다문화한국학교.

다문화한국학교(교장 최이영)가 보조교사들을 대상으로 대통령봉사상과 이사장칭을 수여 하는 보조교사 시상식을 거행했다.

보조교사들은 9학년을 다치고 다문화한국학교를 졸업한 10학년 학생들로 구성되며, 다문화한국학교에서 진행한 프로그 콘서트에서 학생들을 이끌어 해설사와 함께 Q&A를 진행하는 등 최대 130시간까지 자원봉사를 한 학생들이다.

### 34. 보조교사 시상식 - 대통령 봉사상 수여 : 2023년 5월 18일 현대주간



#### 다문화한국학교 보조교사 시상식을 거행

시내베일에 위치한 다문화한국학교에서는 지난 5월 15일 보조교사 시상식을 거행했다. 대통령 봉사상 (The President's Volunteer Service Award) 이사장상 및 장학금을 받았다. 9학년을 다치고 다문화한국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로 이루어진 보조교사들은 10학년부터 하게 되는데 권진호, 한동진, 박희희, 안이현, 이남현, 이준권, 정우주, 남하은, 이현일 등 10명이다.

이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다. 다문화한국학교에서의 배움과 실천을 통해 더 큰 사회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기를 바라고 있다. 선한 진 이사장은 후배들에게 자랑스러운 줄 보람이 되고 선생님들에게는 제자를 믿어 협력하는 동료로서도 역할을 다하는 보조교사들이라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다문화한국학교는 오는 5월 20일 공강식 및 졸업식을 거행하며 2022-2023학년도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는 info@daewonk.com으로 하면 된다.



2022-2023학년도 대통령 봉사상 수상

35. 보조교사 시상식 - 대통령 봉사상 수여 : 2023년 5월 19일 한국일보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 이사장 전남진과 지난 19일 보조교사 시상식을 가졌다. 다솜한국학교 졸업생들로 이뤄진 보조교사들은 10학년부대 해게 되는 데 총 29명이며, 대통령 봉사상과 이사장상, 장학금 등을 받았다. 최미영 교장은 학업과 더불어 보조교사로서 최대 130시간까지 자원봉사 한 보조교사들에게 감사 편지를 전했다. 특히, 한국학교 졸업 후 3년간 보조교사를 한 권민호, 한동진, 박보혜 보조교사는 대학에 진학한다고 밝혔다. 다솜한국학교는 오는 20일 종강식 및 졸업식을 개최하며, 2023~24학년도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 info@dosomk.org, 사진 속 앞줄 오른쪽에서 3번째가 전남진 이사장, 뒷줄 왼쪽에서 3번째가 최미영 교장

다솜한국학교를 졸업하는 권민호, 오태양 학생들 축하하는 학부모들, 지난 19일 한국일보

다솜한국학교를 졸업하는 권민호, 오태양 학생들 축하하는 학부모들, 지난 19일 한국일보

졸업식에서는 장학금, 오태양 학생의 졸업장을 받았다. 장학금 학생은 어머니가 한국학교 교사의 권개로 어려서부터 다솜한국학교에 유교해 12년간 학교를 다니며 가장 오랜 기간 재학한 학생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오태양 학생은 6년간 학교를 다니고 이날 졸업했다.

졸업생들은 "다솜을 통해 성장하고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며 "힘들게 가르치신 만큼 감사할 것 아닐 수 있어 감사할 따름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졸업생들은 앞으로 보조교사로 활동하게 된다. 교사, 보조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은 장학금, 오태양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했다. 이날 3년간의 보조교사 활동을 마치고 대학에 입학하는 권민호



권민호



그레이에이든이슬



김민건

36. 종강식 및 졸업식 : 2023년 5월 25일 Bay News Lab

다솜한국학교 종강식 및 졸업식...장하진·오태양 학생 졸업, 교사 학부모들 큰 박수로 축하

2023 가을학기 등록도 시작돼...신입생은 6월 1일부터 신청

다솜한국학교를 졸업하는 권민호, 오태양 학생들 축하하는 학부모들, 지난 20일 한국일보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과 지난 20일 종강식 및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장하진, 오태양 학생이 졸업했으며, 이들은 보조교사 활동도 열심히 해왔다고 밝혔다. 다솜한국학교는 가을학기 등록을 받고 있다. 재학생은 5월31일까지 등록하고, 신입생은 6월 1일부터 등록이 시작된다. 등록은 www.dosomk.org에서 할 수 있으며, 문의는 info@dosomk.org로 하면 된다.



김서운



김연우



김웨슬리



김은수



김재이



김제이든



나예준



남소은



남하은



박지윤



박채린



손우제



명소정



박가은



박라온



손은제



송예담



송주담



박비비



박주연



박준우



송하담



송해담



신주원



안아라



안아민



염바다



윤지윤



이남현



이정윤



오태양



윤세인



윤재운



이주환



이준



이준건



윤지우



윤지웅



윤지유



이준겸



이준헌



이지용



이현일



장시운



장예림



조다나



조새린



최하준



장예진



장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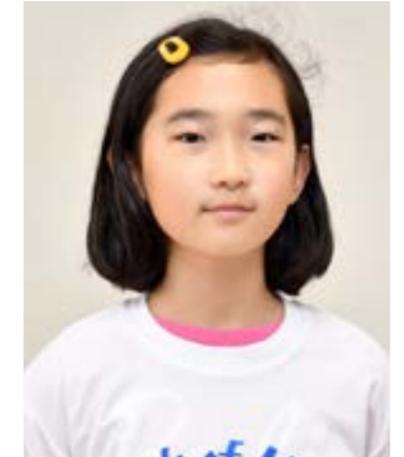
장하진



한동진



한서진



한예진



전이현



정예서



조경민



허지나



허지아



교장 최미영



교감 원은경



교무 박은경



웹간사 김원구



교사 권미정



교사 안지은



교사 조은미



교사 정희조



교사 신해윤



교사 전누리



교사 김소연



교사 박은교



목사 박석현



이사장 전남진



직전 이사장 정철화

## 다솜 학생 온라인 등록 안내

본교에서는 웹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학생 등록을 받습니다. 온라인 등록은 종이로 학생 등록을 받는 방식에 비해 아래와 같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 간편한 등록 학생 정보 관리 (웹 database로 관리)
- 등록비 결제 자동화 (신용카드 및 개인 수표 결제)
- 학부모의 계정(User Account)에 과거의 모든 학생 등록 정보와 영수증 PDF 파일 보관 (다년간 재학 후 졸업이나 수료한 경우에 계정을 통해 졸업장 혹은 수료증 PDF 발급)
- 학부모의 계정을 통한 공지 및 소식 전달

학생 등록 접수 기간은 4월 1일부터 8월말까지이며 정원이 차면 바로 마감됩니다. (정원이 차면 대기자 명단에 등록하실 수는 있습니다.) 5월 말까지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등록 받고, 6월 1일부터 신입생 등록을 받습니다. 재학생 학부모는 학생을 등록했던 User Account로 로그인해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등록을 위해서는 다솜 웹에 User Account가 없는 학부모는 우선 User Account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User Account를 신청하면 확인 이메일을 받게 되고 이메일에 들어 있는 웹 링크를 클릭해 답해야 User Account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다솜 웹 “커뮤니티 / 웹 이용 안내” 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혹 Username이나 Password를 잊어서 로그인을 못 하시는 분을 위한 도움말도 웹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User Account로 로그인한 후에 학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해 웹 이용 안내 페이지에 준비된 도움말 제목들입니다. 이 도움말들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웹 계정 만들기 (Creating User Account)
- 로그인 아이디(username)나 비밀번호(password)를 잊었을 때
- 학생을 학교에 등록하는 방법 (Registering Students)
- 학생 등록 확인, 수정, 취소 및 PDF 영수증 내려받기

아래 그림은 온라인 학생 등록 메뉴 페이지입니다. 가을학기 및 1년 등록의 2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등록하셔야 하며, 제목을 클릭하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잘 읽어 보시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2024학년도 등록안내

# 다솜 한국학교

가을학기 2023. 9. 9 ~ 2024. 1. 27  
 봄학기 2024. 2. 3 ~ 2024. 5. 18  
 수업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가을학기 등록시작 재학생 : 4월 1일부터  
 신입생 : 6월 1일부터  
 대상학년 해당연도 2월 1일에 만 4세 이상  
 등록방법 온라인 등록 [www.dasomks.org](http://www.dasomks.org)  
 문의 최미영 교장 / 원은경 교감  
[info@dasomks.org](mailto:info@dasomks.org)



동포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미주 한인사 인종학  
 토크콘서트

초대합니다

# 재미동포의 삶과 꿈

The Life and Dreams of Korean Americans

2023. 4. 15 (토) 오전 10:30~12:30

산호세 한인장로교회 본당

토크콘서트 및 Q&A, 사물놀이 공연과 앙상블 연주, 피자 파티



전남진  
다솜한국학교 이사장



김연주  
Trustee/Board President, FUHSD



은용선  
루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정무 영사



정민용  
ELEGEN Sr. Ops Director

주최: 다솜한국학교 후원: 재미동포재단, 다솜한국학교 이사회,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다솜** 한국학교